2025 통권 60호

서울교대 교지편집위원회

서울교육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서울교육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기억에 감정을 담으면 추억

사향지기 60호를 펴내며

사향지기가 어느덧 60호라는 커다란 시곗바늘의 정점에 닿았습니다. 찰나의 초침이 모여 분을 이루고 그 시간이 쌓여 하나의 궤적을 그리듯, 사향지기 역시 '사람을 향한 다채로움'을 중심으로 우리 결의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왔습니다. 매 걸음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흐름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만큼은 변함없이 지켜내고자 애써왔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엮어온 나날들이 이번 호에 고스란히 스며들었습니다. 이 한 권의 여정이 여러분께 변화하는 세상을 차분히 마주할 힘이 되고, 잊고 있던 마음의 결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여정을 담은 60호 표지는 포근한 겨울 풍경을 머금고 있습니다. 겨울 햇살 아래 수많은 눈 결정이 소복이 쌓여 하나의 풍경을 이루듯, 이번 교지 역시 저희가 고민하고 선택해 온 결정들이 겹겹이 쌓여 완성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울교육대학교의 소식을 비롯해 교육·사회 이슈, 다양한 정보와 사향인들의 다채로운 이야기가 조화롭게 담겼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된 문장들이 한 편의 기사를 거쳐 단단한 결정체로 독자 여러분을 마주합니다. 겨울의 품에서 익어 봄의 길목에 전해지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기분 좋은 설렘과 따뜻한 온기로 스며들길 바랍니다.

이토록 소중한 결실을 맺기까지 마음을 보태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따뜻한 눈길로 사향지기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주신 이향근 소장님, 세심한 손길로 실무를 든든히 지원해 주신 김윤서 실장님, 그리고 항상 애정 어린 발길로 사향지기를 찾아주시는 독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온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내 힘으로 한 마음으로'라는 교훈 아래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정성을 다해준 기자님들께도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난 3년의 여정을 함께한 29기와 사향지기의 중심에서 열정을 다한 30기, 그리고 한 글자마다 진심을 담아낸 31기 기자님들의 마음이 한데 모여 비로소 이번 60호가 온전한 결정체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향지기는 다채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독자 여러분의 삶에 잔잔한 울림을 전하기 위해 꾸준히 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겨울을 감싸던 눈꽃처럼 포근한 소식을, 때로는 밤을 밝히는 불꽃처럼 선명한 시선을 담아내며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모쪼록 봄의 길목에서 전해드리는 이번 교지가 독자 여러분의 일상에 기분 좋은 생기를 더하고, 오래도록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서울교육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사향지기 29기 편집국장 김민선

Contents

CAMPUS 1

교대생의 꽃, 교육실습의 모든 것! ····· 10
사향인 여러분, 어떤 교육봉사를 하고 있나요? ····· 16
마음을 돌보고, 배움을 나누다! 세계 교사의 날 ····· 20
무궁무진한 초등 영재교육 ····· 24
SNUE 모교방문단, 후배에게 전하는 캠퍼스 초대장 ····· 28
땀방울에 맺힌 보람, 나의 농활일지 ····· 32
기억하나요, 당신의 한 학기 ····· 38

EDUCATION 2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정체성: 이중 언어 교육 ····· 42
교사를 위한 방어선은 어디에 ····· 46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 50
한 아이도 멀어지지 않는 배움, 보편적 학습 설계 ····· 54
내일의 교실에서 이어가는 배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58
이건 첫 번째 레슨, 스마트폰 금지법 알아보기 ····· 62

CULTURE 3

젠더 벤딩: 실험을 시작합니다 ····· 68
잔말 말고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어! ····· 74
순간의 편리함, 남는 것은 쓰레기? ····· 80
MZ 세대의 선택과 가치: 문화에서 갈등까지 ····· 84
피는 물보다 진하다? ····· 88
케이팝 데몬 헌터스, 혼문을 지켜라 ····· 92

TALKTALK 4
시간은 흘러도, 과제는 남는다 ····· 98
우리의 서툶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에 ····· 102
구해줘 홈즈! 서록관 VS 자취 대첩 ····· 106

INFO 5
펜과 칠판으로 지킨 나라 ····· 112
나는 예민한 사람일까? 'HSP' ····· 116
거짓말하는 인간, 호모 팔락스 ····· 120
가을은 독서의 계절? ····· 124
어제의 야구, 오늘의 야구 ····· 128

PEOPLE 6
도움과 돋움, 함께 성장하는 우리 ····· 136
제40대 총학생회 S-PACE를 만나다 ····· 142

SPECIAL 7
우당탕탕 사향상사 ····· 148
기자's pick 내가 꿈꾸었던 대학 로망 ····· 152

CAMPUS

2025 통권 60호 1

CAMPUS

사람 사는 이야기

교대생의 꽃, 교육실습의 모든 것!

사향인 여러분, 어떤 교육봉사를 하고 있나요?

마음을 돌보고, 배움을 나누다! 세계 교사의 날

무궁무진한 초등 영재교육

SNUE 모교방문단, 후배에게 전하는 캠퍼스 초대장

땀방울에 맺힌 보람, 나의 농활일지

기억하나요, 당신의 한 학기



교대생의 꽃, 교육실습의 모든 것!

편집위원 배민영

사향인들에게 조금 특별한 5월과 11월….

날이 좋아서? NO! 바로 '교육실습' 기간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가 오면 우리는 '교사'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설렘과 긴장이 가득한 교육실습.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교육실습은 각기 다른 단계로 우리를 성장시켜주며, 그 과정을 통해 진짜 교사의 모습을 조금씩 만들어 간다.

하지만 교육실습, 겪어본 사람만 아는 것이다. 그 기쁨과 고통이 교차하는 이 과정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럼, 교육실습의 모든 것을 함께 들여다보자.



교육실습, 그것이 알고싶다!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총 5번의 교육실습.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과연 무엇을 위해 보내는 걸까? 실습을 단순한 체험으로만 보내지 않으려면, 그 목적과 목표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수업 하나하나가 더 뜻깊고 알찬 배움으로 바뀐다.

서울교대 홈페이지에는 교육실습의 목적과 목표, 실습생 배정 원칙까지 모두 나와 있어, 교육실습생으로서 어떤 점을 배우고 느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교육실습 목적

서울교대 교육실습의 목적은 단순히 교실에서 수업을 해보는 것이 아니다. 대학에서 배운 교육 이론을 교육 현장에서 직접 적용하고 검증해 봄으로써, 학생 대상 교수·학습 지도 능력은 물론 학급 경영과 학교 교육 수행 능력까지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교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교직자가 지녀야 할 올바른 교육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교육실습의 목적이다.

#교육실습 목표

- 학교 교육 현장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 및 이해
- 학생 및 학습 환경에 대한 이해
- 교수·학습 지도 원리 이해 및 적용 능력 배양
- 학급 담임 역할 및 교직 실무 능력 배양
- 바람직한 교육자의 자세 함양

#교육실습생 배정 원칙

교육실습생 배정 원칙도 홈페이지에 따라 정해져 있다. 실습학교에서는 관찰실습, 참가실습, 수업실습, 운영실습, 종합실습 등 5단계 교육실습 기간 동안 저·중·고 학년을 모두 경험하도록 교육실습생을 배정한다. 단, 특수학급에는 학생 배정을 할 수 없다.

> 저학년에 배정됐을 경우 → 중 또는 고학년 배정
> 중학년에 배정됐을 경우 → 저 또는 고학년 배정
> 고학년에 배정됐을 경우 → 저 또는 중학년 배정

이 배정 원칙 덕분에 교육실습생들은 다양한 학년을 경험하며, 교사의 역할과 교육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실습 단계별 중점 내용

대상	영역	시기(기간)	이수 학점	실습 중점 내용
2학년	관찰실습	1학기 (1주)	P/F	- 학교 교육환경의 실태 파악 - 교사의 교육 활동 및 학생 관찰을 통해 교직에 대한 이해 및 교육자의 자세 인식
	참가실습	2학기 (2주)	1	- 교육 활동에 참여 및 기초적인 수업 경험을 통한 교육 현장 이해 - 바람직한 담임교사의 역할 인식 및 초보적 수행
3학년	수업실습	1학기 (2주)	1	교수·학습 원리의 이해 및 수업 경험을 통한 수업 설계·실행 능력 신장
	운영실습	2학기 (2주)	1	- 수업 설계·실행 능력 심화 및 담임교사 역할 경험을 통한 학급경영 능력 함양(창의적 체험활동 포함) - 학급 경영 및 교직 실무에 관한 사무처리 능력
4학년	종합실습	1학기 (2주)	1	- 학교 교육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 창의적인 수업 설계·실행 능력 신장

이제 교육실습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경험을 해야할지 감이 잡혔다면, 앞으로 우리에게는 훨씬 재미있고 의미있는 실습만이 남았다! 단순한 경험을 넘어, 한 주 한 주가 더 의미있는 배움의 시간이 될 것이다.

새내기는 교육실습이 궁금해요!

'교육실습'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 새내기들에게 작은 두근거림을 안겨준다. 아직 교육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새내기들에게 이는 낯설면서도 궁금한 존재다. '*실습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 '수업 준비는 어떻게 할까?', '학생과의 소통은 어려운 걸까?' 같은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선배들: 나도 1학년 땐 그랬었지...)**

실제로 1학년 사향인 설문(총 7명 응답)에서도 새내기들의 관심은 '현실적인 실습의 모습'에 모였다. 수업 준비 과정과 실습 중 어려움과 긴장감을 궁금해한 응답이 각각 5명(71.4%)으로 가장 높았고, '교생실습이 정확히 무엇인지'(2명, 28.6%), '학생들과의 소통'(2명, 28.6%)이 그 뒤를 이었다. 막연히 "어렵다더라"를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새내기들이 실제로는 수업 준비의 시작점과 교실에서 긴장이 폭발하는 순간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년별 실습 흐름에 대한 궁금증은 더 뚜렷했다. 2학년~4학년 실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선배들은 실습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가장 궁금해했다. 실습이 학년이 올라가며 무엇을 더 요구하는지, 선배들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같은 질문은 새내기들이 교육실습을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라 성장의 단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다. 한편 '실습 없는 1학년은 그 기간에 무엇을 하는지'처럼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의 준비를 고민하는 시선도 함께 드러났다.

기대와 우려는 한쪽으로만 기울지 않았다. 가장 많이 등장한 마음은 '힘들지는 않을까?'(57.1%)였지만, 동시에 '실습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을까?'(28.6%), '재밌을까?'(14.3%) 같은 기대도 분명히 존재했다.

새내기들이 선배들에게 남긴 한 마디!

기대했던 바와 달리 수업이 흘러갈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해요!
어려움이나 배울 점을 구체적인 경험이 담긴 이야기로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내기들이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계획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교실을 다시 붙잡는 경험의 언어였다! 그렇다면 이 질문들에 가장 솔직하게 답해줄 사람은 누구일까? 이제 교육실습을 먼저 지나온 사향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사향인이 들려주는 교육실습

질문은 총분히 모였다. *수업 준비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막상 교실에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긴장과 부담을 어떻게 견뎠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실습이 끝났을 때 남는 것이 정말 '힘듦'만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설명'이 아니라 경험의 언어로 교육실습을 꺼내 보려 한다. 1학년 설문에서도 새내기들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수업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어려움과 배울 점을 구체적인 경험이 담긴 이야기로 듣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교육실습은 글로만 이해되는 시간이 아니라, 교실 안에서 직접 부딪히며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관찰실습에서 처음 교실의 리듬을 익히고, 참가실습에서 처음 교단에 서며, 수업실습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운영실습에서 담임의 무게를 실감하고, 종합실습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기까지. 사향인들은 각 단계에서 무엇을 보고, 어디에서 흔들렸고, 무엇을 배우며 버텼을까. 이제, 교육실습을 지나온 사향인들의 목소리로 그 시간을 따라가 보자.

#교육실습의 첫 걸음, 관찰실습

2학년 1학기 관찰실습은 교육실습의 출발점으로, 사향인들이 교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시기다. 직접 수업을 하지는 않지만 교사의 말과 행동, 학생들의 반응, 교실의 흐름을 관찰하며 교사의 역할을 처음으로 체감하게 된다. 설문에서도 **'신기했다', '배울 게 많았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관찰실습이 교사가 된다는 감각을 부담 없이 익히는 시간임을 보여준다.

#소중한 나의 첫 수업, 참가실습

2학년 2학기 참가실습은 사향인들이 처음으로 교단에 서는 단계로, 짧은 수업 참여만으로도 큰 긴장과 설렘을 동반한다. 설문 응답에는 **'떨렸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으며,

이를 통해 수업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과 교사 역할의 무게를 처음 실감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가실습은 완성보다 경험에 의미를 두는, 이후 수업실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

#어지러운 세안의 연속, 수업실습

3학년 1학기 수업실습은 교육실습 중 가장 많은 변화와 성장을 체감하는 단계다. 설문조사 결과, 모든 응답자가 가장 크게 성장했다고 느낀 부분으로 **'수업 설계 · 진행 능력'**을 꼽았으며, 이는 수업실습이 참관을 넘어 실제 수업을 반복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또한 **'긴장'이 '자신감'으로, '불안'이 '기대'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다수 나타나, 경험의 누적이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이끌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여전히 어렵다는 응답도 함께 나타나, 수업실습이 성취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는 과정임을 드러냈다.

#교대생인데 담임입니다, 운영실습

3학년 2학기 운영실습은 수업을 넘어 학급을 운영하는 교사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경험하는 단계다. 이 시기 사향인들은 수업 준비뿐 아니라 생활 지도, 학급 운영, 학교 행정까지 함께 마주하며 교사의 책임을 체감하게 된다. 설문에서도 **'담임 역할의 무게를 느꼈다', '학생들과의 관계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응답이 나타나, 운영실습이 수업 능력뿐 아니라 교사로서의 태도와 관계 형성을 배우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사향인들은 교사가 된다는 것이 교실 안팎의 일상을 함께 책임지는 일임을 깨닫게 된다.

#교육실습은 이젠 안녕, 종합실습

4학년 1학기 종합실습은 예비교사로서의 시간을 정리하며 다시 교실로 돌아가는 마지막 실습이다. 임용고시 준비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2주간의 실습은 오히려 **'힐링의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공부에서 잠시 벗어나 실습에 온전히 집중하며, 교실에서 학생들과 마주하는 순간들이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종합실습은 부담보다는 여유 속에서 교사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고,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를 스스로에게 되묻는 시간이 된다.

교육실습을 거친 사향인들은 단지 교사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교사로 한 발짝 나아가는 길을 경험한다. 앞으로 남은 실습과 교직 생활에는 아직 많은 고민과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즐겁고 뜻깊은 교대 생활, 그리고 진정한 교사로서의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향지기에서
독자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글솜씨를 뽐내보세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사향지기에서 실어드립니다.

지원 자격 | 서울교육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주　　제 | 자유 주제

(사향지기에 싣고 싶은 주제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기고해주세요.)

예 우리 대학과 관련된 이야기

알리고 싶은 교육 혹은 시사 이슈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 등

(단, 교지 특성상 맞지 않는 주제는 제외합니다.)

분　　량 | A4 용지 2장 내외

보내실 곳 | dangmu04100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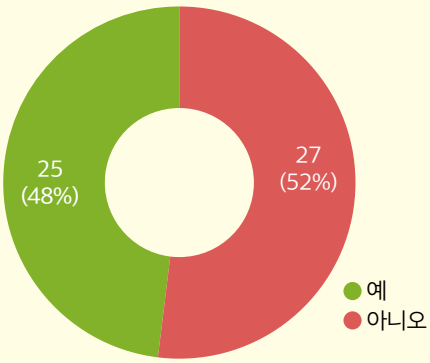
문　　의 | 편집국장 홍혜정



사향인 여러분,
어떤 교육봉사를 하고 있나요?

편집위원 이서영
편집위원 홍혜정

서울교대 졸업 필수 요건 중 하나인 40시간의 교육봉사. 학부생들은 어떤 교육봉사를 하고 있을까? 서울교대 학부생 52명의 봉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9/30~10/31 봉사 설문

설문 결과 대부분의 학생이 1학년 1학기, 2학기, 또는 1학년 여름방학에 봉사 활동을 했다고 답했다. 아직 봉사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2학년 겨울방학이나 3학년 1학기에 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학부생들은 교육봉사를 어디서 알게 되었고, 언제 봉사 시간을 채웠으며 채울 계획일까? 서울교대 학부생 52명의 봉사 이야기와 함께 교육봉사에 대해 알아보자.



교육봉사란 무엇일까?

봉사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이다. 이 중 **교육봉사**란 예비 교원이 가진 재능을 정부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봉사 신청 방법

계획서 제출 방법	학사 시스템
계획서 첨부파일	계획서 서식 없이 공고문, 공고 첨부
계획 승인 여부 확인	학사 시스템
(봉사 종료 후) 결과 입력	학사 시스템(봉사활동결과입력)에 승인 받은 계획 데이터 연동 ▷ 봉사기간, 봉사시간, 증빙서류(일지, 확인서) 업로드 후 저장

교육봉사,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교육봉사 계획 승인과 활동까지 완료했다면 마지막 단계는 바로 학사 정보에 봉사 시간을 등록하는 것이다. 교육봉사를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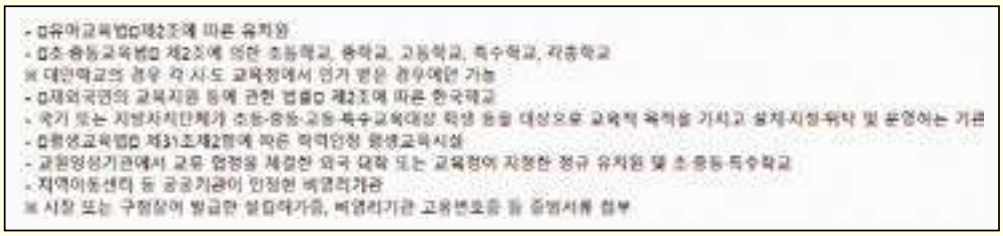
교육봉사 학사 정보 등록 방법

학사종합정보시스템(KOEDU) 로그인 ➡ 수강 관리 ▷ 봉사 관리 ▷ 봉사활동 결과 입력 페이지 ➡ 증빙 자료(봉사활동일지, 봉사활동 확인서) 업로드 ➡ 승인 여부 확인

KOEDU를 통해 승인받고 등록하는 과정이 간편하고 쉬워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교육봉사 신청 및 등록 시 주의사항

- 반드시 교무처 봉사활동 승인 확인 후 활동해야 한다. 승인 이전 활동에 대해서는 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 단순한 돌봄, 숙제 봐주기, 뒷정리 등의 활동은 교육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 공공기관 혹은 봉사 인정 가능 기관이 아닌 기관의 경우, 따로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한다. 증빙서류가 요구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ㅁ유아교육법ㅁ제2조에 따른 유치원
- ㅁ초·중등교육법ㅁ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대안학교의 경우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인가 받은 경우에만 가능
- ㅁ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ㅁ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운영하는 기관
- ㅁ평생교육법ㅁ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무 업정을 체결한 외국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시장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설립허가증, 비영리기관 고유번호증 등 증빙서류 첨부

- 봉사 일지에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반드시 본교 봉사 일지를 사용해야 한다.
- 학사 정보 최종 등록에는 최대 3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 기타 주의사항은 학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기자와 혜정기자가 추천해주는 교육봉사!

서영기자 "이 중에서 하나만 꼭 해야 한다면, 당신의 선택은?
① 선생님과 협업하여 함께 수업 운영하기
② 학생들 학업 도와주며 소통하기
③ 동생이나 후배 1:1로 고민 들어주기"

혜정기자 "①번을 골랐다면 **보조 교사 봉사**는 어떠신가요? 학습 지도, 자료 배부 등의 활동을 하며 실제 교사의 업무를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봉사에요. ②번을 골랐다면 **방과후 학교 혹은 지역 아동 센터 봉사**를 추천해요. 다양한 아이들과 만나볼 수 있는 기회예요. ③번을 골랐다면 **멘토링 봉사**는 어떠신가요? 한 명의 학생을 집중적으로 봐주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고,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봉사에요."

다양한 교육봉사 종류,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교육봉사는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는 활동이 아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다양한 학년 아이들의 학업을 도와주거나, 보조 교사로 활동하는 등 교육봉사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크게 교내와 교외 교육봉사로 나누어 대표적인 봉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교내 교육봉사

장애아동 체육 교실 (SNUEAPE)	1. SNUEAPE 체육 교실이란?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아동의 건강 및 운동 기능 개발과 사회 적응 능력 발달**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
	2. 활동 목적 - 비장애 학생 위주의 수업에서 비롯되는 장애 학생의 **체육 경험 부족 해소** - 학교체육의 연장선에서 학생에게 더 세심하고 집중도 있는 신체활동 제공 - 예비 교사의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와 체육 지도 역량 제고
	3. 활동 내용 - 대학생 봉사자(교사)와 아동 매칭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은 축구, 농구, 줄넘기, 기본 이동기술1), 체력 검사 등 다양함 - 주 1회 2시간 동안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진행
	4. 유의사항 - 프로그램 10회 중 8회 이상 참여해야 봉사 시간 인정 (결석 3번 시, 활동 중지이며 지각 2번은 결석 1번과 동일) - 프로그램 시작 전 사전교육에 참여해야 학생 지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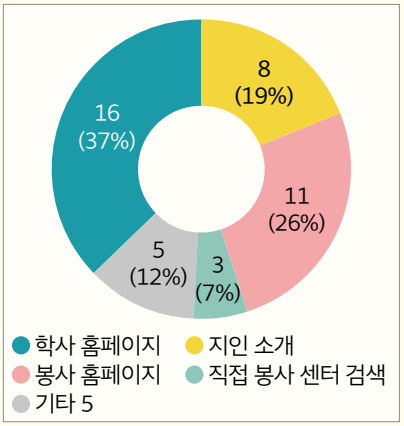
1) 다양한 장애물을 활용한 홉, 립, 점프, 슬라이드, 갤롭, 스킵 활동

어린이 한마당	1. 어린이 한마당이란? - 서울교육대학교가 매년 어린이날을 맞아 개최하는 행사 - 예비 교사인 재학생들이 지역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체험**을 제공하며 교육의 가치를 실천하는 자리
	2. 활동 목적 예비 교사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고, 교육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음

어린이 한마당	3. 활동 내용 • 과별 부스 운영 - '어린이 한마당'은 과별로 다양한 부스를 진행하는데, 이때 **과별 부스 준비를 돕고 부스를 운영하는 봉사자 모집** -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진행(오후 12시~오후 13시는 점심시간으로 제외)되며 봉사 시간 6시간 제공 • 하루샘-하루둥이 프로그램 - 어린이날 하루 동안 서울교대 학우(하루샘)가 어린이(하루둥이)와 짝을 이루어 함께 활동하는 **1:1 매칭 프로그램** -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봉사 시간 6시간 제공 - 프로그램 시작 전 사전교육 필수 참여
	4. 유의사항 - 하루샘-하루둥이 프로그램의 경우 하루샘/하루둥이의 신청 현황에 따라 2명의 어린이가 매칭될 수 있음 - 과별 부스 운영과 하루쌤-하루둥이 프로그램 복수 참여 불가능 - 당일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 가능한 사람만 신청 가능

교외 교육봉사

교외 교육봉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대부분의 학생이 학사 홈페이지를 통해 교외 교육봉사를 알게 되었으며, 봉사 홈페이지, 지인 소개 등을 통해 교육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교육봉사를 알게 되는 방법에는 동아리나 커리어넷, 대외 활동 사이트(캠퍼스픽)가 있었다.
어떤 교외 교육봉사가 있을까?	총 52명의 학우분이 참여해 주신 만큼, 정말 다양한 교외 교육봉사가 있었다. 많은 학우가 참여한 교외 교육봉사에는 '어린이 작업실 모야', '우리 동네 키움 센터', '동작 관악 이음-나눔 봉사활동'이 있었다. **1) 어린이 작업실 모야** 서초구립반포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교육봉사 <오른손모야>는 반포도서관 어린이작업실[모야]의 운영을 돕는 교육봉사이다. 주요 활동에는 어린이작업실[모야] 공간 교육, 어린이작업실[모야] 작은손 작업활동 참여, 작업 관찰 및 운영 지원, [모야] 프로그램 피드백 및 제안이 있다. **2) 우리 동네 키움 센터** 우리 동네 키움 센터는 학기 중 혹은 방학 기간 중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키움 센터에서는 아동 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급·간식 지원, 내부 청소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3) 동작 관악 이음-나눔 봉사활동** 동작 관악 이음-나눔 봉사활동은 서울특별시 동작 관악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 위기·부적응 학생을 지원하는 봉사이다. 주요 활동에는 수업 지원 및 생활 멘토 지원이 있다.



교육봉사는 예비 교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아동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정말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이 있으며, 많은 학우가 적극적으로 교육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졸업 요건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봉사를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앞으로도 교육봉사에 관심을 가지며 꾸준히 봉사하는 멋진 사향인이 되기를 바란다.

마음을 돌보고, 배움을 나누다!
세계 교사의 날

편집위원 손지후

사향인 여러분은 '교사와 관련된 기념일' 하면 어떤 날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10월에도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중요성과 교사의 역할을 조명하는 기념일이 존재합니다. 바로, **<세계 교사의 날(World Teachers' Day)>!**

2025년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교육대학교에서도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세계 교사의 날>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서울교육대학교의 <세계 교사의 날> 행사를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그 유래와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1966년 10월 5일,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네스코(UNESCO)는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채택합니다. 전 세계 교사의 권리 및 책임 등을 포괄한 국제적인 지침을 제시한 것이죠. 이후 1994년, 유네스코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0월 5일을 <세계 교사의 날>로 제정하게 됩니다.

<세계 교사의 날>은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비롯된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권고는 교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존중, 그리고 교육 여건의 개선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 (중략) … 교원의 적절한 지위와 교직에 대한 사회적 존경은 이들 교육목적과 목표를 온전히 실현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되어야 한다.
8. 교원의 근무조건은 효과적인 학습을 가장 잘 촉진시키고 교원들로 하여금 교직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67. 학생을 위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긴밀한 협조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원은 본연의 교직임무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권고를 바탕으로 제정된 <세계 교사의 날>은 교사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또한 이날을 맞아 유네스코와 국제노동기구는 국제교육연맹(EI)와 함께 매년 **국제 캠페인을 진행하며, 각국 정부에 교육 예산 확대나 교사 처우 개선을 촉구**합니다. <세계 교사의 날> 캠페인은 매년 의미 있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요, 최근 3년간 <세계 교사의 날>의 슬로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더 많은 교사를' (The teachers we need For the education we want)
2024년 '교사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Valuing teacher voices)
2025년 '교사를 위해 함께, 미래를 위해 함께' (Together for teachers, Together for tomorrow)

교육을 고민하고 주도하는 예비교사로서 사향인들에게 <세계 교사의 날>은 더욱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2025년 10월 13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도 <세계 교사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 교사의 날> 행사

일시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17:40~20:30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사향융합체육관 그랜드홀
주최 서울교육대학교 제39대 총학생회 바로 문화기획국
대상 서울교육대학교 재학생 50명(사전 선착순 신청)

문화기획국은 교육 현장의 주체가 될 예비교사들이 교사의 정체성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행사를 기획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토크 콘서트와 선후배와의 대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 1 토크 콘서트: 예비교사를 위한 성장 경험을 공유하여 지속 가능한 교직 생활에 대해 고민해본다!

(1) 하랑쌤(황현하 선생님) 강연: 행복한 교사로 살아가는 방법



우선, 교육 인플루언서로 잘 알려진 초등교사 하랑쌤이 서울교육대학교를 찾아주셨습니다. 하랑쌤은 의원면직 후 다른 직업군에 종사하다가 다시 교직으로 복귀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직 생활의 현실적인 장단점을 진솔하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랑쌤은 교직만이 지닌 진정한 가치로 '아이들이 주는 사랑'과 '한 사람의 삶에 빛을 줄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강조하며, 사향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또한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학부모·학생과의 관계 형성 및 소통의 중요성을 짚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첫인상 만들기, 의미 있는 학부모 상담 등 실제 사례에서 우러나온 조언들은 사향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랑쌤은 마지막으로 임용고시 준비 과정에서의 마음가짐과 실전 팁을 전하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직의 현실과 가치 모두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앤드쌤(이유정 선생님) 강연: 교사됨의 길, 사랑을 잃지 않는 법



이어서 상담심리전문가 앤드쌤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앤드쌤은 교사를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일'을 하는 존재로 정의하며, 신뢰할 만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하셨습니다. 앤드쌤은 '사람을 사랑하려면 자신도 사랑받아야 한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교사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번아웃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조언은 사향인들에게 깊은 공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사향인들에게 "교대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라며, 나답게 견디고 진솔하게 살아가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앤드쌤의 조언은 불안과 부담을 안고 있던 예비교사들에게 깊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프로그램 2 선후배와의 대화: 걱정인형 DIY 클래스를 통해 예비교사로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공감하며 위로하다!



<세계 교사의 날> 행사는 선후배 간 대화의 일환인 '걱정인형 DIY 클래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 현장과 교직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 사향인들이 자신의 걱정을 담은 걱정인형을 만들어보며, 예비교사로서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로서의 삶과 마음가짐을 되돌아보며, <세계 교사의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삶에 따뜻한 빛이 될 당신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서울교육대학교 <세계 교사의 날> 행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사에게 감사를 전하는 '스승의 날'과 달리 <세계 교사의 날>은 교사의 역할을 되새기고 교육자가 사회에서 존중받고 지원받아야 함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 행사가 앞으로도 서울교육대학교의 전통적인 행사로 이어지고, 사향인들이 <세계 교사의 날>을 계기로 교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되새기길 기대합니다.

(행사 사진 제공: 제39대 총학생회 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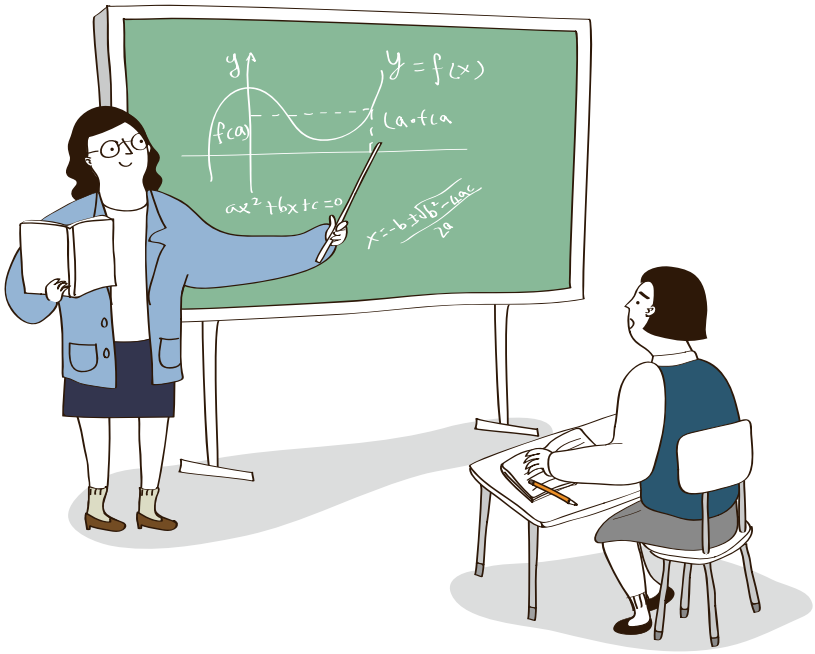


무궁무진한 초등 영재교육

편집위원 김민아

"옆 반 새록이가 이번에 서울교대 영재원에 합격했대요."
"어디 학원 다녔대요?" "우리 애도 영재교육 알아봐야 할까요?"

7세 고시, 조기 영재교육 등의 사교육과 이를 풍자하는 밈이 유행하는
현대 사회에서 '영재교육'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AI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에서 '진짜 영재'란 무엇일까?
예비 교사로서 우리는 영재교육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민아 기자와 함께 단순히 선발과 경쟁의 상징이 아닌,
아이들의 잠재력을 길러내기 위한 영재교육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자.



'영재교육'의 의미와 목적

한국영재교육연구센터(2022)와 교육부의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영재란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성취 수준이 아닌,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영재교육을 영재를 대상으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규정한다. 즉, 영재교육은 정규교육과 구별되는 특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재능 영역(수학, 과학, 예술, 체육 등)에서 학생의 잠재력을 계발하는 맞춤형 교육을 지향한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공통적으로 재능과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조기 발굴하고, 그들의 특성에 맞는 심화·탐구 중심의 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초등 영재교육은 단순한 지적 우수성 계발을 넘어, 학생 개인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적 책임감 함양, 문제 해결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초등 영재교육의 현황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 영재교육은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구체적인 선발 시기나 절차는 기관마다 상이하므로,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분	운영 주체	운영 방식 및 특징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대학	주말 및 방학 수업 / 교수진의 직접 지도
교육청 영재교육원	시·도 교육청	방과후 및 주말 수업 / 지역형 운영
영재학급	초등학교	방과후 및 주말, 방학 수업 / 접근성 높음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재교육

그렇다면 예비 교사로서 영재교육을 어떻게 접하며 전문성을 기를 수 있을까?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

2025년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과학, 소프트웨어, 음악, 미술 등 4개 분야의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의 특성상 교수진의 직접 지도가 이루어지고, 학부생들은 '**조교**'로 근무하며 영재교육 현장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다. 과학영재교육원의 경우, 조교는 수업 준비 및 정리, 간단한 학부모 문의 사항 응대, 체험 학습 인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영재교육의 실제 운영 방식과 수업 특징 등을 보고 배우며 예비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자연스럽게 쌓아갈 수 있다.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영재교육학 전공

학부 졸업 이후에도 영재교육을 전문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우리 학교 교육전문대학원에는 '초등 영재 분야에서 현장의 실무를 겸할 수 있는 초등 영재 교육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영재교육학 전공(석사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전공 교수님을 만나 보다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영재교육 전공의 강훈식 교수입니다. 현재 과학영재 교육 및 과학교육에 대한 연구·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Q '서울교육대학교 영재교육전공'은 어떤 전공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영재교육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사·강사를 양성하는 전공입니다. 이 전공에서는 **수학/과학/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① 영재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특성 파악 및 영재 판별
② 영재교육 현장과 연계된 실제적인 교수·학습 전략 방안과 수립
③ 영재교육 지도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함양
④ 영재교육 연구 방법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으며, 입학 후에는 전공 분야와 관계없이 필수 공통 과목을 3개 이수해야 합니다. 보통 2학기에 지도 교수를 선정하고, 이후에는 지도 교수의 전공 분야와 연계된 강의를 듣고 연구를 수행합니다.

Q 영재교육을 자신 있게 수행하기 위한 '교사' 또는 '교육자'의 역량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무엇보다 영재 학생의 다양한 특성(사고방식, 정서적 특성 등)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교수·학습 및 평가 전략을 설계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절한 질문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고, 실패의 과정을 배움의 기회로 전환하도록 돕는 교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반성적인 성찰과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육적 안목 역시 영재교육 지도 교사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Q 실제 현장에서 영재 아동을 지도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A 영재 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다양한 인지적·정의적 측면에서 분명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 영재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 과학영재 학생이라 하더라도, 과학 지식의 양이나 과학 탐구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이 수준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영재 학생들에게도 교사의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 및 체계적인 지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또래 관계에서 타인을 배려하거나 타인과 협력하는 데 겪는 어려움 및 갈등 해결을 위해 자기 이해, 협동심, 인성 교육과 같은 전인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Q 영재교육 전공 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에게 기대하시는 성장 지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단순히 '영재교육 지도 교사'라는 역할에 머무르기보다는 **'학교 전체의 수업 문화를 확장해 나가는 교사'**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영재교육 전공에서 배우고 익힌 학생 중심 수업, 탐구 설계 전략, 창의적·융합적 사고 확장 전략 등은 일반 학생들에게도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의 잠재력을 단기 성취가 아닌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지니고, 교육 현장에서 마주한 다양한 고민을 '교사 학습공동체' 등을 통해 연결하며 성찰하는 교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영재교육 전공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영재교육 전공은 영재 학생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모든 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위한 전공입니다. 학생들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면, 해당 전공에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재교육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면, 교육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안내를 확인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영재교육의 본질은 경쟁과 조기 교육이 아닌, 살아 있는 질문과 탐구를 통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데에 있다. 우리 예비 교사들도 영재교육을 언젠가 맡게 될 특별한 역할로만 바라보기보다, 일상의 수업 속에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실천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러한 작은 날갯짓이 미래 교실의 수업 문화를 성장시키는 씨앗이 될 것이다.



SNUE 모교방문단, 후배에게 전하는 캠퍼스 초대장

수습위원 박예은

2025학년도 여름, 대학생이 되고 맞이한 첫 여름방학에 신난 예은 기자! 여름방학을 맞이해 애타게 그리던 본가에 내려가서 편안한 휴식을 즐기던 것도 잠시,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해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왔다는데~ 과연, 예은 기자가 모교에서 겪었던 잊지 못할 경험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자.

모교방문단이란?

예은 기자는 'SNUE 모교방문단'으로서 모교에 방문하여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렇다면, SNUE 모교방문단이란 무엇일까?

SNUE 모교방문단이란 **서울교대 재학생이 출신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서울교육대학교를 알리고 진로 정보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2024년에 시작하여 매년 진행되는 이 활동은 교육부의 '2025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입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 제고 등을 통해 수험생의 대입 준비 부담의 완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모교방문단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모교에 방문하여 학교 정보, 학과 안내, 입시 정보 안내 등 고교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입시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한다. 이들은 고등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접수하기 전인 6월에서 10월 중 하루, 1시간 동안 활동하며, 날짜는 모교와 소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그럼 만약 모교와 소통할 수 없거나, 모교에서 모교방문단 활동을 할 수 없다면 모교방문단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은사님이 모두 다른 학교로 이동하신 상황처럼 자신의 모교와 소통하기 힘들다면, 학생처에서 모교로 연락을 넣을 수 있다. 또한, 모교에서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후배가 없는 상황처럼 자신의 모교에서 진행할 수 없을 때는, 학생처에서 인근의 다른 고등학교와 매칭을 해주신다.

그러니 만약 모교방문단에 지원하고 싶은데 이런 외부 요소들이 걱정되어 망설여진다면, 일단 지원해 보자!

모교방문단의 선발 과정과 선발 이후 준비 과정

새록이: 저도 모교방문단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원하죠?

고등학교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기회! 모교방문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우선, 모집 공고는 서울교육대학교 홈페이지의 사향광장-대학소식-공지사항 탭에서 찾을 수 있다. 모교방문단의 지원은 애교심이 강하고 학교 홍보에 열정과 책임을 가진 서울교대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선발된 사람에게는 활동비 5만 원과 SNUE 마일리지 10점을 제공한다. 더불어, 모교 후배들에게 15만 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해 준다.

모집 공고를 찾았다면, 아래에 첨부된 지원서 파일을 내려받아 출신 고등학교명, 입학전형, 지원동기 등을 작성하고, 기한 내에 지원서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한다. 이후 합격자 발표 연락을 받으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모교방문단이 되기 위한 관문 두 번째는 면접 심사다.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 몇 가지의 질문에 답변한 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이후 최종

합격자 발표 연락을 받으면, 우리는 드디어 자랑스러운 SNUE 모교방문단이 된 것이다!

선발 이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진행 절차, 전달해야 할 정보 등을 전달받은 후, 강연 내용을 준비한다. 담당자님과의 소통을 통해 PPT 수정을 거치고, 모교와 소통하여 강연 일정과 참가인원을 확정하면 모든 준비는 끝났다!

모교방문단 D-DAY!

드디어 모교방문단 당일! 프로그램 당일에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미리 도착하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은 기자의 경우, 사전에 프로그램 신청자가 15명이었으나 당일에 신청자가 25명으로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급하게 다과 수량과 강연 장소의 의자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학교에 여유 있게 도착하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학교에 도착하면 강연 장소를 확인한 후 미리 PPT를 화면에 띄우고, 마이크, 서명부, 만족도 조사지 등을 세팅하고, 업체에 연락하여 다과를 수령한다.

이후 강연이 시작되자, 예은 기자는 간단하게 강연자 정보와 목차를 언급한 후 우리 학교를 소개했다. 서울교대의 장점인 교통, 등록금, 기숙사비, 임용고사 합격률 등을 자랑하고, 심화전공, 동아리, 해외연수, 교환학생 등 학교의 여러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또한, 공부하느라 지친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의 로망이 또 하나의 공부 동기가 될 수 있도록, 교대 문화와 대학 생활과 관련한 여러 사진을 보여줬다. 과 교류, 밥 약속, 어린이 한마당, 문화제, 농활, 축제 등 여러 사진과 에피소드를 소개한 덕분에 현장 분위기도 풀어지고 모두 강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동기 부여로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다짐과 열정이 극에 달할 즘, 예은 기자는 자신의 대입 준비 방법을 공개했다. 우선, 수시 전형에 특화된 모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면접의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하였고, 2025학년도 학부의 수시·정시전형 결과를 함께 보여주며 학생들이 집중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짚어주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의 특정 부분을 발췌한 사진을 통해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의 사례를 보여주며 3년간 쌓아왔던 비법을 전수하고

자신만의 내신 & 수능 공부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후 면접 준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한 후, Q&A를 진행했다. 원서 6장 모두 교대로 넣었는지, 입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왜 그 중 서울교대를 선택했는지 등 여러 질문에 답하며 강연은 마무리되었다.





학생들 앞에서 강연할 기회가 많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모교방문단 활동은 강연 경험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대 진학을 원하는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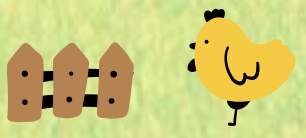
특히 모교에 대한 애정이 컸던 예은 기자에게 이번 SNUE 모교방문단은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 졸업생 선배의 강연을 들으며 교사의 꿈을 키워나갔던 한 학생은, 어느새 성장하여 그때 그 교실의 교단에 올라 후배들에게 캠퍼스 초대장을 전하고 있었다.

이 글을 읽고 모교방문단의 매력을 느꼈다면, 내년에는 직접 후배에게 캠퍼스 초대장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

땀방울에 맺힌 보람, 나의 농활일지

수습위원 김지윤
수습위원 박예은

지난 7월, 지윤 기자와 예은 기자는 특별한 여름방학을 보냈다. 바로 농활, 즉 농민학생연대활동을 다녀온 것! 이들은 타지에서 다른 과, 다른 학년 사람들과 4박 5일 동안 함께 생활하며 어떤 경험을 했을까? 지윤 기자와 예은 기자의 농활일지를 살펴보며 농활의 의미와 구체적인 생활에 대해 알아보자.



‘농민학생연대활동’을 소개합니다~

‘농민학생연대활동’이란 농촌에서 짧게나마 농민의 삶을 살아보며 농촌의 현실과 노동의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 흔히 ‘농활’이라고 부른다. 도시에 사는 대학생으로서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던 농촌을 생생하게 느끼고, 농촌의 현실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농활’인 것이다.

서울교육대학교에서는 매년 여름방학 4박 5일간 총학생회의 주최로 강원도 정선에 농활을 간다. 2025년 여름, 서울교대 농활대는 정선의 건천리와 석곡리를 방문하며 함께 농사 작업을 돕고, 레크레이션을 통해 즐거운 추억도 쌓으며 농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출처: 2025 여름 농활 자료집)

위 사진은 이번 농민학생연대활동의 일정표이다. 농민분들의 일손을 돕는 오전과 오후 작업, 직접 요리해 함께 먹는 맛있는 식사, 물총놀이·빙수 먹기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 고된 작업 후 달콤한 휴식인 뒤풀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농활일지

그러나, 글만으로 농활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학 생활의 꽃’ 중 하나라 불리는 농민학생연대활동! 과연 낭만 가득한 추억이었을까, 혹은 힘들기만 한 노동의 나날이었을까?

지윤 기자와 예은 기자의 생생한 일기를 살피며 확인해보자.

지윤 기자 **건천 2일 차** 2025.07.01. 날씨: 흐린 듯 맑음



오늘은 건천리에 온 지 2일 차! 어제 '형님'이라 부르는 농민분들과의 인사에 이어 오늘은 본격적인 농활 작업을 시작했다. 아침 일찍 기상하여 아침 조가 직접 요리한 짜장밥과 스크램블 에그를 맛있게 먹곤 마을대장님의 작업 안내를 들었다. 내가 오늘 작업할 곳은 원이 형님 댁으로, 형님의 차에 타 흰 벽면이 예쁜 집에 도착했다.

오늘의 작업은 고추밭 잡초 뽑기였다. 밀짚모자와 작업복을 갖춰 입고, 형님 어머님께서 주신 농사용 작업 방에 두툼한 목장갑까지 착용하자 제법 일하는 태가 났다. 고추밭은 평소에는 형님 혼자 작업하신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이였다. 처음에는 잘된 밭을 망칠까 걱정했지만, 생각이 무색하게 조금만 뽑다 보면 요령도, 속도도 붙었다. 오히려 옆줄에 앉은 친구와 경쟁이 붙은 것마냥 잡초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었다. 허리와 다리가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도시와 달리 벌레는 거의 없고 벌들이 몇 번 왔으나 무섭지 않았다. 노동요를 흥얼거리며 머리를 비우는 순간이 묘하게 마음에 들었다.

오전 작업 중간에는 래성 형님께서 새참으로 비빔면과 수박을 갖다주셨고, 원이 형님 또한 달콤한 빵, 간식, 음료 등을 아이스박스에 가져다주시며 비교적 긴 휴식 시간을 주셨다. 오전 작업 후에는 원이 형님 댁에서 오리 불고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반찬들과 고봉밥을 점심으로 먹었다. 작업 후에 한 식사, 그리고 원이 형님 댁 컨테이너에서 1시간 정도 취한 낮잠은 꿀맛이었다. 다시 회상해도 4박 5일을 통틀어 이곳이 최고의 작업 장소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잡초 뽑기 베테랑으로 거듭난 오후 작업 후, 원이 형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슴 농장을 구경시켜 주셨다. 어릴 적 동물원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본 사슴들이었다. 형님께서는 수사슴의 뿔을 자르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 사슴들에게 먹이를 주기도 하셨다. 원이 형님 댁에서의 하루가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었기에, 내게 농활 작업은 '하기 싫고 고된 노동'이 아닌 '조금 힘들지만 힐링되는 시간'으로 기억되었다.

숙소로 돌아간 후, 첫 작업의 여파로 다들 진이 빠진 와중에 봤던 별이 유독 기억에 많이 남는다. 도시와 달리 정선은 고개만 들면 별이 수 놓인 밤하늘을 볼 수 있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하게 반짝이는 하늘 아래에서 나는 생각보다 농활에 오길 좀더 잘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지윤 기자 건천 3일 차

2025.07.02. 날씨: 맑음 (비가 왔으면ㅜㅜ)



3일 차의 아침 조는 내가 속한 조였다. 전날 밤 미리 (MSG의 도움을 톡톡히 받아) 만든 김치 콩나물국은 내가 지금까지 먹은 모든 국을 통틀어 TOP3 안에 들 정도로 맛있었다. 생활 주체님과 요리를 전담한 우리 조원들에게 깊이 감사하며 간장계란밥과 함께 아침을 든든히 먹을 수 있었다.

오늘 내가 작업할 곳은 래성 형님 댁이었다. 래성 형님 댁에서는 '고추 옆가지 따기' 작업을 하였다. 고추의 가장 굵은 줄기를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줄기를 쓸어내리며 영양분이 분산되지 않게끔 나머지 가지들을 떨어뜨리는 작업이었다. 풀이 보이면 무작정 뽑기만 하면 되던 어제와 달리, 이곳은

중심이 되는 적절한 줄기를 찾는 것부터가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다 멀쩡한 고추를 몇 개 떨어뜨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감을 잡아 작업을 잘할 수 있었다. 전날에 커다란 골든 리트리버가 작업 중에 와서 고추밭에서 쫓아내야 했다는 귀여운 에피소드가 있었기에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나는 만날 수 없었다…….

래성 형님께서는 새참도, 점심도 배가 터질 만큼 잘 주셨다. 새참으로 주신 오이 냉국을 특히 잘 먹었다. 형님께서는 요새 가뭄이 들어 농사가 힘들다며 특히나 양배추밭을 걱정하셨다. 함께 식사를 하고, 형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이나마 연대의 느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 거창하지 않은 연결됨이더라도 농활의 의미만큼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업 후에는 건천의 농활 대원들이 모두 모여 수박 화채를 만들어 먹었다. 미리 냉장고에 넣은 수박에 밀키스와 사이다(~~혹은 술~~)를 넣고, 기획팀에서 준비한 얼음과 과일 통조림 등을 넣자 시원하고 맛있는 화채가 완성되었다.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고 싶을 만큼 화채는 맛있었고, 농활에 함께해주신 다른 학우분들의 반응 또한 좋아서 더욱 뿌듯했다. 육체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던 낯선 작업 끝에 하루가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대장 언니가 설명해 주었던 농활의 낭만을 나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예은 기자 **석곡 3일 차** 2025.07.02. 날씨: 햇빛이 따가울 정도로 맑음



석곡 2리에서의 3일 차 아침이 밝았다. 졸린 눈을 비비며 아침조 사람들이 요리한 밥을 먹고 작업준비를 하다 보니 어느새 졸음은 달아나고, 그 자리에는 설레는 감정이 들어찼다. 과연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하게 될까~?

정규 형님 댁 마당의 잡초를 뽑는 조, 정규 형님의 밭에 농약을 치는 조, 외부 밭의 잡초 제거 조가 있었는데, 난 정규 형님 댁의 마당에 배정이 되었다! 어제와 비슷한 일이었지만 조원들이 달라진 덕분에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작업을 하며 새로운 사람과도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항상 바쁘게 일하며 업무에 치여 살던 시끄러운 도시를 벗어나, 평화롭고 조용한 농촌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잡초를 뽑고 있으니 몸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으나 마음은 여유를 되찾은 것 같았다.

점심으로 물냉면과 비빔냉면을 먹고, 잠깐 휴식을 취하며 정규 형님과 농촌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총학생회가 진행한 교양을 통해 농촌이 처한 현실을 조금은 알 수 있었지만,

실제로 농촌 사회에 몸을 담고 계신 형님을 통해 이야기를 들으니 농촌이 겪는 어려움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점심을 먹고 잠깐 쉰 후, 다시 잡초를 뽑으면서 평소 가지고 있던 잡념도 정리하고, 조원들의 재밌는 이야기도 들었더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했다. 햇빛이 너무 따가울 때는 잠깐 그늘에서 잡담도 하고, 고양이도 구경하며 즐겁게 작업했다. '농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마냥 힘들 것만 같았는데, 조원들과 함께 작업하니 꽤나 즐거웠고, 작업 결과물이 실시간으로 쌓이는 것이 눈에 보이니 뿌듯함과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다.

작업을 빠르게 끝낸 후, 우리는 마을회관으로 돌아가 팥빙수를 만들어 먹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한 후 직접 만들어 먹는 팥빙수는 정말 맛있었다. 우리 마음대로 재료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특히 마을대장 언니가 가져온 미숫가루가 정말 '킥'이었다.

팥빙수를 맛있게 먹은 후, 4박 5일 중 가장 재밌었던 시간이 다가왔다. 바로 계곡 물놀이!!! 시원한 계곡 안에서 물장구도 치고, 물총으로 장난도 치면서 꺄르르 웃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나까지 기분이 좋아졌다. 즐거운 물놀이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용주 형님의 트럭 뒤에 타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회관으로 돌아갔다. 개운하게 샤워까지 마친 후 푸짐한 저녁 식사와 함께, 석곡 2리에서의 즐거운 3일차 밤은 저물었다.



예은 기자 **석곡 4일 차** 2025.07.03. 날씨: 다행히도 조금 흐림!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우리 생활조가 아침조로 배정된 날이라, 조원들과 함께 오전 5시에 일어나서 떡만둣국을 준비했다. 이쯤 되면 일찍 일어나는 농민의 삶에 익숙해질 줄 알았으나, 올빼미형 인간인 나에게 아침 5시 기상은 아직 힘든 일인 것 같다. 하지만 미라클 모닝을 하니 갓생을 사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긴 하다!

오늘 내가 배정된 조는 마을이장님의 수수밭 잡초제거조! 외부로 나가는 조는 처음이라 걱정도 되었지만, 이제는 모두 친해진 농활대 사람들과 함께이기에 걱정보다 더 큰 기대를 품고 수수밭으로 이동했다.



끝없이 펼쳐진 수수밭이 우리를 맞이하는 광경에 압도된 것도 잠시, 두 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전경을 보며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잡초 뽑기는 앉아서 하는 작업이었는데, 내 앉은키보다 수수의 키가 더 커서 놀랐다. 수수가 더 잘 클 수 있도록 수수 뿌리 옆에 자란 잡초들을 제거하며 앞으로 나아갔는데, 쭉 전진하는 나의 위치를 통해 작업 현황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더 뿌듯하고 열심히 하게 되었다.

초록으로 가득한 시야에 갇혀 머리를 비우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다. 점심 밥상을 마주하니, '상다리가 부러지겠다'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싶었다. 에어컨이 설치된 컨테이너 안에서 배부르게 점심을 먹고, 이장님의 자비 덕분에 시원한 휴식 시간도 가졌다. 잠깐 낮잠을 자며 충전한 후, 우리는 오후 작업에 나섰다.

오전에 비해 날씨가 맑아져서 해가 조금 들었지만, 양옆의 사람들과 수다도 떨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금세 달콤한 새참 시간이 찾아왔다. 이온 음료, 탄산음료, 빵 등을 먹으며 땀방울을 식히다 보니, 다시 일할 힘이 충전되는 것이 느껴졌다. 서로 응원하고 도와주며 작업을 마무리하고, 마을회관으로 돌아가 개운하게 샤워를 하고 나와서, 우리는 다 같이 마지막 밤을 즐거움으로 장식할 마을 잔치를 준비했다.

마을 잔치란 농활 마지막 밤에 마을의 형님들과 함께 즐기는 만찬으로, 다 같이 모여 농활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고 회포를 푸는 자리이다. 농활이 끝나감이 아쉬웠지만, 다른 작업조 사람들과 대화하며 타 작업장의 얘기도 듣고, 형님들과 즐겁게 대화도 나누며 농활의 밤을 즐겁게 마무리했다.

이렇게 두 기자의 농활일지를 통해 이들의 특별한 여름방학을 생생하게 살펴보았다. 낯선 환경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분명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활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농촌과 학생의 연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농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러 사람들과 신선한 추억을 쌓고 싶은 사람인에게 농활을 권한다.

기억하나요, 당신의 한 학기

수습위원 박지민

잠시 우리가 함께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어떨가요? 그 순간들은 소중한 추억이 되어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개강 : 9/1



빈도



축제 : 9/15



댄스리플레이



총학선거 : 10/29~10/30



에듀필



토박이



하제소리



교육실습 : 11/4~11/14



아이콜



엘로디



벨칸토



소울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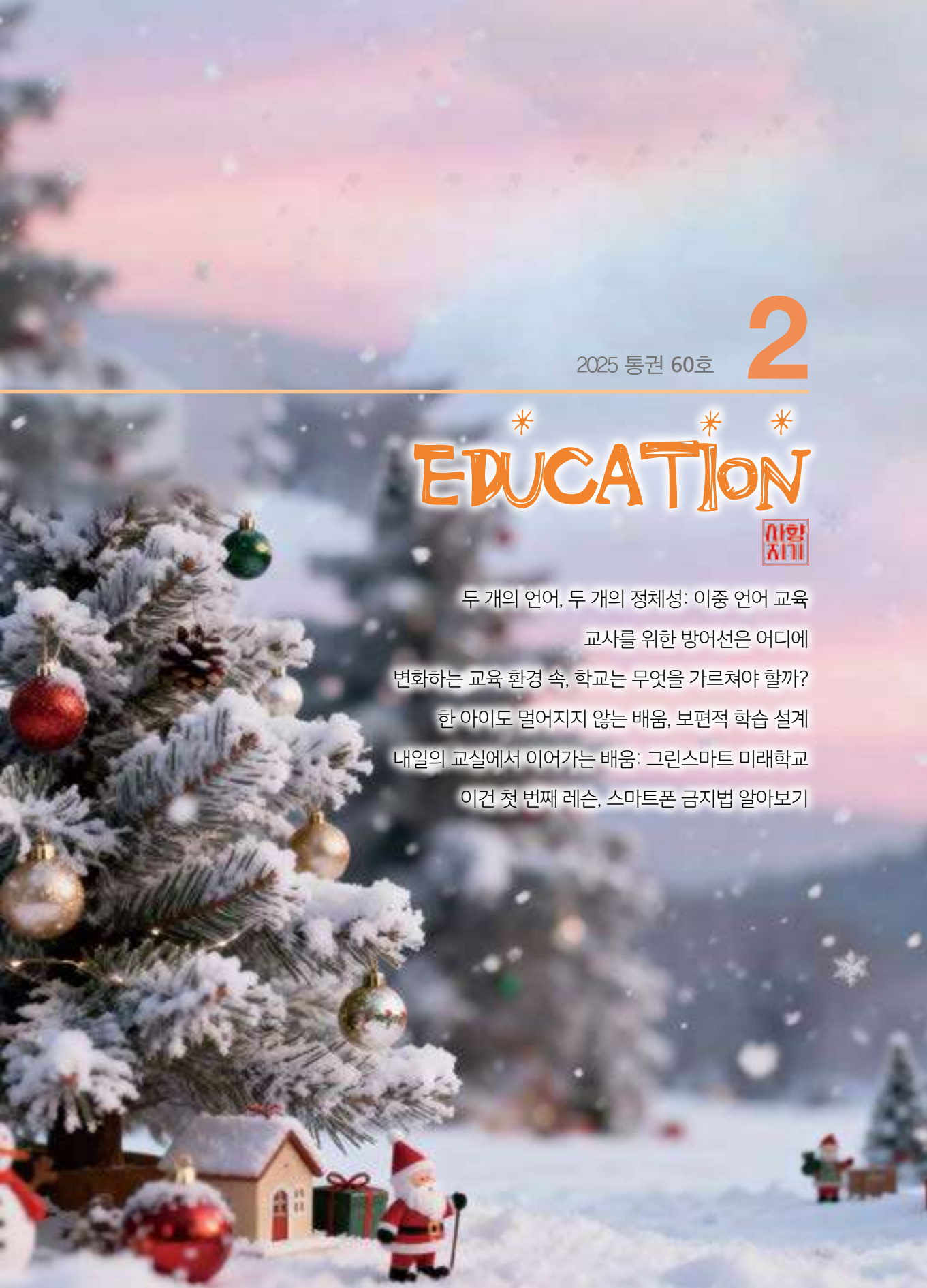
울림통



종강 : 12/12

학우들의 2026년도 다채로운 이야기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EDUCATION



2025 통권 60호 2

EDUCATION

사람과 사람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정체성: 이중 언어 교육
교사를 위한 방어선은 어디에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한 아이도 멀어지지 않는 배움, 보편적 학습 설계
내일의 교실에서 이어가는 배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건 첫 번째 레슨, 스마트폰 금지법 알아보기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정체성:
이중 언어 교육

편집위원 배민영

"고려는 누구예요? 고려가 북진정책을 했다는데...."

초등 교사 새록이는 고민이 많다. 2학년 때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린(가명)은 한국어를 꽤 잘 구사하지만, 학문적 내용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일상 대화는 문제없지만,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벅찬 점이 많다. 새록이는 오늘도 교실 안에서 답을 찾아간다. 어떻게 하면 린과 같은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이 '학교 한국어'의 벽을 넘어 학습에 잘 참여할 수 있을까?



국어 교육 vs 한국어 교육

새록이의 고민을 이해하려면, 먼저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교육 모두 '한국어'를 다루지만, 목적도 대상도 전혀 다르다.

(1) 국어 교육 - 모어 화자를 위한 교육

국어 교육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문학 작품 읽기, 문법 체계 이해, 논리적 글쓰기, 다양한 담화 활동 을 통해 사고력과 표현력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언어를 깊고 풍부하게 다루는 심화 교육이다.

(2) 한국어 교육 - 제2언어 화자를 위한 교육

반면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가 모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다. 일상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점차 학교 수업에서 요구되는 학문적 언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설계된다. 다문화 배경 학생의 경우, 대화는 가능하지만 교과 개념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다. KSL은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을 진단하고, 일상 언어를 넘어 학문적 언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식이다.

이중 언어 교육이 뭐예요?

이중 언어 교육은 학생이 두 개 이상의 언어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다문화 배경 학생에게 두 언어는 단순한 대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설명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본적 기반이다. 이 때문에 이중 언어 교육은 언어 발달을 넘어 '자아 형성의 과정'으로도 이해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자주 언급되는 네 가지 개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이를 한눈에 정리한 것이다.

구분	의미	예시
KFL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한국어학당의 회화 수업
KSL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Korean as a Second Language)	다문화 학생 대상 한국어 지원 수업
BICS	일상 대화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s)	친구와 대화하기, 교실에서의 간단한 지시 이해하기 예: "여기 앉아도 돼?" / "선생님 화장실 가도 돼요?"
CALP	학문적·인지적 언어 능력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y)	교과 개념 설명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예: 사회 교과의 '삼국 간의 관계' 설명하기, 과학 실험 결과 정리하기

표에서 보듯 KFL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뜻하며, 주로 기초 회화 중심이다. 반면 KSL은

린처럼 한국에서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제2언어 화자를 위한 교육으로, 수업을 이해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언어 능력을 갖추도록 집중한다. 또한 BICS와 CALP의 차이는 다문화 배경 학생의 언어 발달을 설명하는 핵심이다. BICS는 1~2년이면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일상 언어 능력이지만, CALP는 5~7년이 걸리기도 하는 고차원적인 학문 언어 능력이다. 교사 새록이가 수업에서 마주한 어려움은 대부분 학생들의 BICS는 충분하지만 CALP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처럼 이중 언어 교육은 학생이 두 언어를 균형 있게 사용하며, 사회·학문적 환경에 모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과정이다.

이중 언어 교육의 실제

'학교 한국어'의 벽에 부딪힌 교사 새록이와 다문화 배경 학생 린의 사례는 교실 밖 전문가의 목소리를 필요로 했다. 이에 **이중 언어 교육과 한국어 문해 교육을 연구해오신 원진숙 교수님**을 찾아뵙고,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이 겪는 언어와 정체성이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교사의 역할과 사회의 해법까지 폭넓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다문화 배경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언어적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원진숙 교수님 다문화 학생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일상 대화 수준(BICS)은 비교적 빠르게 습득하지만, 교과 학습에서 요구되는 학문적 언어(CALP)로 넘어갈 때 생기는 장벽입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언어는 곧 사고와 존재의 한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자신의 **뿌리 언어(Heritage Language)**를 지키면서 동시에 현재 사회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두 언어의 성장을 함께 지지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만들어주는 교육이 바로 이중 언어 교육이며, 학습자가 학문적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반입니다.

Q. 이중 언어 교육은 왜 정체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교육인가요?

원진숙 교수님 이중 언어 교육은 단순히 두 언어를 사용하는 기술을 넘어, 학습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확립하는 과정과 깊이 연결됩니다. 뿌리 언어는 한 개인의 문화·혈통·가족사를 이루는 기반이기 때문에, 이를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층위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두 언어를 모두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환경은 학습자에게 자아 확장, 문화적 감수성, 미래의 경쟁력, 사회적 교섭 능력을 강화하는 자산이 됩니다. 결국 언어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구현하는 도구이기에, 이중 언어 교육은 아이가 스스로를 더 넓은 세계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교육입니다.

Q.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원진숙 교수님 다문화 학생 지원은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사회적 안전망과 언어 지원 인력(예: 이중 언어 강사)이 충분히 갖춰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위에서 교사가 맡아야 할 핵심 역할은 바로 '문지기(gatekeeper)'입니다. 교사는 학습자의 가능성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적절한 시점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너라면 할 수 있어"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아이의 진로와 정체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문지기는 특별한 기법보다 학생을 제대로 보는 눈과 신뢰 기반의 관계가 더 중요하며, 공교육의 최전선에서 학습자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Q. 앞으로의 이중 언어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원진숙 교수님 이중 언어 교육의 확장은 단지 다문화 학생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잃지 않도록 뿌리를 다지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KSL·KFL 연계 교육의 확대, 뿌리 언어 유지 지원, 이중 언어 강사 양성과 안정적 배치, 학교의 다문화 감수성 교육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비 교사들은

초등 교육의 틀을 넘어 한국어 교육·다문화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바라보며, 학습자의 언어와 정체성을 지지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미래 학교의 필수 역량이자,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민영 기자's 인터뷰 후기!

윤진숙 교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 방식'을 형성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느꼈다. 그동안 다문화 교육을 '지원'이나 '배려'의 관점으로 바라보던 나의 시선은 인터뷰를 통해 '정체성과 성장'이라는 더 근본적인 관점으로 확장되었다.

"교사는 문지기(gatekeeper)다."

학생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다음 문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교사라는 사실을 또렷하게 알려주는 문장이다. 문지기는 단순히 문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 가능성이 자라날 방향을 조심스럽게 비춰주는 사람이다. 때로는 작은 격려 한마디가 새로운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또한 '뿌리 언어'의 의미는 나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두 언어를 함께 자라게 하는 일이 곧 아이의 정체성을 지키고 미래의 자원을 키우는 일이라면, 교실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예비 교사로서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더 깊이 묻게 된 시간이었다. 이번 인터뷰는 내가 향하고 싶은 길을 더 바라보게 만든 소중한 만남이었다.

교사 새록이의 고민은 결국 언어가 정체성을 만들고, 정체성이 학습의 기반이 된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다문화 배경 학생들이 두 개의 언어와 두 개의 정체성을 온전히 펼치고, 자신만의 세계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 사회가 더 넓은 포용성을 갖추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예비 교사로서 학생의 배경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며, 그들이 다음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기르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린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교사를 위한 방어선은 어디에

편집위원 봉지원
수습위원 박예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가 지난 현재 시점, 교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 5법'이 개정되었음에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3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48.3%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권 침해가 신고까지 이어진 경우는 4.3%에 그쳤다. 이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교사를 위한 방어선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교권뿐만 아니라 교사의 정신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지금, 교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원, 예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자.



‘교권’의 현주소

오늘날, 교권이 추락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릴 정도로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교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있을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는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교권이 위협받았다고 할 수 있다.

모두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남긴 서이초 사건의 경우, 순직한 교사는 생전 학부모에게서 다수의 전화를 받았고, 학부모가 자신의 개인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불안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해당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것이 드러났다. 이처럼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악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권을 위협하는 도구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혹자는 교권을 마치 ‘교사의 권위’처럼 생각하여 교권이 높았던 시절에는 교사가 마음대로 학생을 체벌할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권’이란 그러한 권위주의적인 개념이 아니다. 교권은 교사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교육현장을 뒷받침하는 기본 권리이다. 다시 말해, 교권은 교사가 공무원으로서 담당하는 공적 업무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직무상의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서울교대에서는 산학협력단 부설 센터 중 하나로 ‘718 교권회복연구센터’를 운영 중이다. 해당 센터에서는 교권회복 및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된 각종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주제로 학술대회도 운영한다. 지난해 7월 18일과 20일에 진행되었던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 또한 718 교권회복연구센터와 함께했다.

이러한 각 기관의 노력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 또한 시행중이다. 이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후술할 ‘교권보호 5법’이다.

교권보호법, 어떤 법인가요?

교권보호 5법은 2023년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안이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통칭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에 대해 설명한 자료를 살펴보면, 개정 이후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교육기본법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규정함.
초·중등교육법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학생 인권 보장과 동시에 학생의 의무를 명시함.
유아교육법	유아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함.

교원지위법	-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무고죄,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유형 확장 - 교육활동 침해행위 가해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 가능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가능 -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 및 은폐 금지 - 분쟁 및 소송 지원을 위한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 - 아동학대범죄 피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제한 -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의무화
아동학대 처벌법	-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 - 경찰 및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 및 결정 시 교육감 의견을 참고하여야 함.

한편, 이러한 교권 5법의 개정에도 교사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권보호 5법 등 법제 개선이 교육활동 보호에 도움된다.'고 대답한 인원은 유치원·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 중 44.9%에 그쳤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장의 교원들이 교권 보호를 위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악성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가 각각 97.7%(중복응답)의 호응을 얻었다. 현장 교원들이 교권 보호를 위해 원하는 바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자.

서울교사노조 교권국장 박정우 선생님 인터뷰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교사노조 교권국장 박정우입니다. 우리 노조는 서울 시내 초등교사의 약 절반 정도가 가입한 서울 최대 교직단체입니다. 이곳에서 저는—교권 상담 및 지원, 교육청과의 정책 협의를 통한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 등—교사의 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Q. 교권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신 교권의 모습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논의가 계속된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낍니다. (중략) 현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고, 그에 따른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교권 침해 사안에도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주체, 교권 침해 방법은 계속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특이 민원, 인공지능 기술, 영상 기기 등을 통한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체와 방법에 상관없이 교사의 수업권,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교권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제로 어떤 방식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점이 있는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 통상적으로, 먼저 피해 상황이 생기면 가입한 노조나 학교 관리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논의합니다. 이때 특별휴가와 공가 등 보호 조치만 받고 사안을 마무리하기도 하고, 생활교육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 등 특정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만약 크게 충격을 받은 경우에는 병가나 병휴직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가 인정되면, 피해 교사 보호 조치와 침해 학생, 학부모 등 관련자 조치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
> 이 과정에서 피해 교사가 불안하지 않도록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가 꼭 필요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가입한 노조와 소속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을 얼마나,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과도하거나 그릇된 염려와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략) 교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는 것을 안내하여 피해 교사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의 정신 건강, 이대로 괜찮은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교권 위에서, 교사의 정신 건강 또한 덩달아 휘청거리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서울 서이초 사건뿐만 아니라, 서울 신목초, 용인 기흥고, 의정부 호원초, 군산 무녀도초, 대전 관평초, 제주의 한 중학교 등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교사의 정신 건강이 위협받는 현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교권보호법과 함께 "하늘이법"이라는 법안을 내놓았다. 하늘이법이란 2025년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제기된 법안으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에 의해 살해된 초등학생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법안은 기존에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게 직권휴직 혹은 면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의 법제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회에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법안이 교사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 또한 존재한다. 정신 건강이 사회적으로 예민한 부분인 만큼, 우리 사회는 여러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과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예비 교사인 우리 사향인들이 교권 보호와 교사의 정신 건강 보장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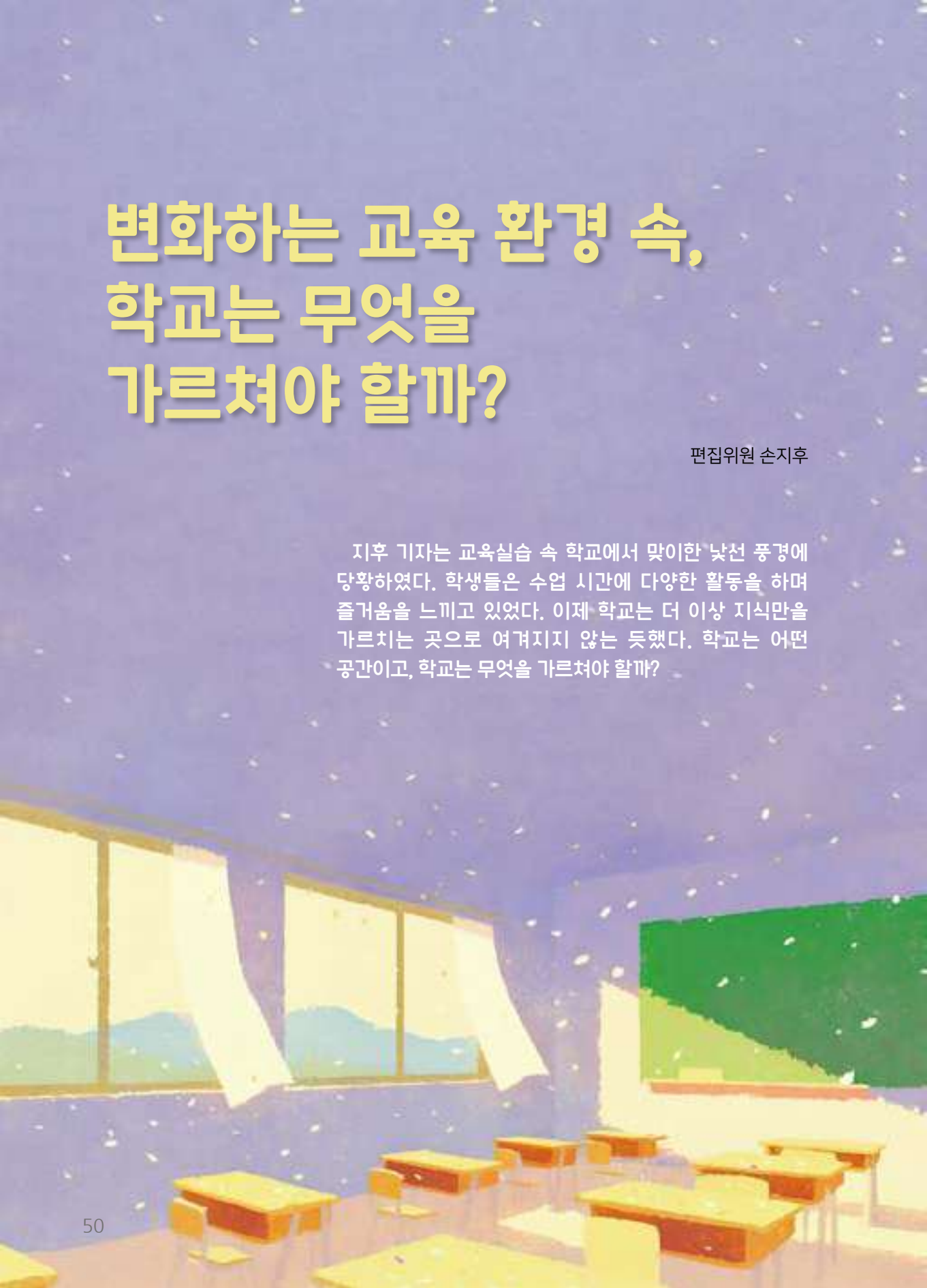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교권 침해부터, 이 뒤를 따라오는 교사의 정신 건강 이슈까지.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교육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행복해야 한다. 더 건강한 교직 사회를 위해, 교사를 위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편집위원 손지후

지후 기자는 교육실습 속 학교에서 맞이한 낯선 풍경에 당황하였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학교는 더 이상 지식만을 가르치는 곳으로 여겨지지 않는 듯했다. 학교는 어떤 공간이고,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사교육을 빼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워졌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미 학원과 과외 등 다양한 사교육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어쩌다 이렇게 거대해졌을까?

흔히 대한민국의 사교육 열풍은 한국전쟁 후 교육이 사회 이동의 유일한 경로로 뽑히며 교육 수요가 급증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 사교육은 등장 이후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며 경제적 부담이나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였다. 나아가 오늘날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학교 교육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선 쉰다는 오해가 커지며 정상적인 공교육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곤 한다.

사교육이 가져온 다양한 문제들

1)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위협**: 과도한 공부량으로 인해 수면 부족 문제를 초래하거나 학생들을 만성 피로,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끝없는 경쟁 구조는 학생들의 행복도를 저하할 수 있다.

2) **경제적 부담 가중 및 불평등 심화**: 사교육 열풍이 확대될수록 가계 부담은 막대해질 것이다. 또한 사교육은 필연적으로 교육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심하게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3) **공교육 시스템 약화**: 전반적으로 학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공교육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이는 공교육 불신 심화를 넘어 정상적인 학교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

물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차례 제도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였다. 특히 1980년에는 '7·30 교육개혁 조치'를 통해 개인 과외와 학원 교습이 전면 금지되었다. 그러나 사교육이 위축되고 공교육이 제 역할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 것과 달리, 대한민국 특유의 높은 교육열과 사교육 선호도는 쉽게 식지 않았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불법적인 과외가 성행하는 등 역효과가 나타났다. 결국 사교육은 이전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대되었고, '7·30 교육개혁 조치'는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1990년대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교육을 통한 성공을 중시하는 전통이 강한 대한민국의 특성상, 이제 **사교육을 단순히 규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의 교육 정책들은 사교육을 규제하기보다는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표되고 있다. 특히 방과 후 학교의 도입, EBS 교재의 수능 연계 확대, 영어·수학 수준별 수업 운영,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등 공교육에서도 선택지를 넓히고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교육 경감 정책

1) **국가책임 교육**: 늘봄학교 도입을 중심으로 학교(국가)가 돌봄까지 책임지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기존에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 이후 학원에 의존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학교가 직접 해결하여 사교육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2) **고교학점제 시행**: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진로에 맞추어 스스로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공교육의 한계로 거론된 맞춤형 교육의 부재와 획일적 수업 구조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사교육과 구분되는 학교만의 특징이 있지 않을까?

앞서 살펴본 여러 교육 정책들은 사교육의 의존도를 경감시키고 학교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만 얽매이게 되면 공교육을 '사교육 대체재'로 축소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학교가 학원을 쫓아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은 분명 주객이 전도된 상황일 것이다. **학교와 공교육은 분명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사교육을 단순히 억제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와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학교는 이제 공교육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학교에서만 가능한 교육'이 무엇일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학교는 학생들이 교과 개념을 숙지·암기하도록 훈련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공교육의 특징이 결과·성과가 중시되는 대한민국에서 학교보다 학원에 열광하는 사회 구조를 탄생시켰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분명 더 큰 가르침을 얻게 된다. 학교는 **하나의 작은 사회**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저학년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는 손을 들고 차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비롯한 필수적인 질서와 규칙을 배울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있는 교실에서 의견 충돌이나 갈등은 당연하게 일어난다. 교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극복하는 과정, 또 스스로 해결하는 단계, 친구와의 관계 등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다.

그렇다고 학교가 일상적인 가르침만을 주는 것도 아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잘 살기 위한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데 분명한 강점**이 있다. 공교육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기술만을 가르치지 않는 대신, 국가가 공인한 교육과정에 맞추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반이 되는 힘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학교가 사교육이 절대 대신할 수 없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 수업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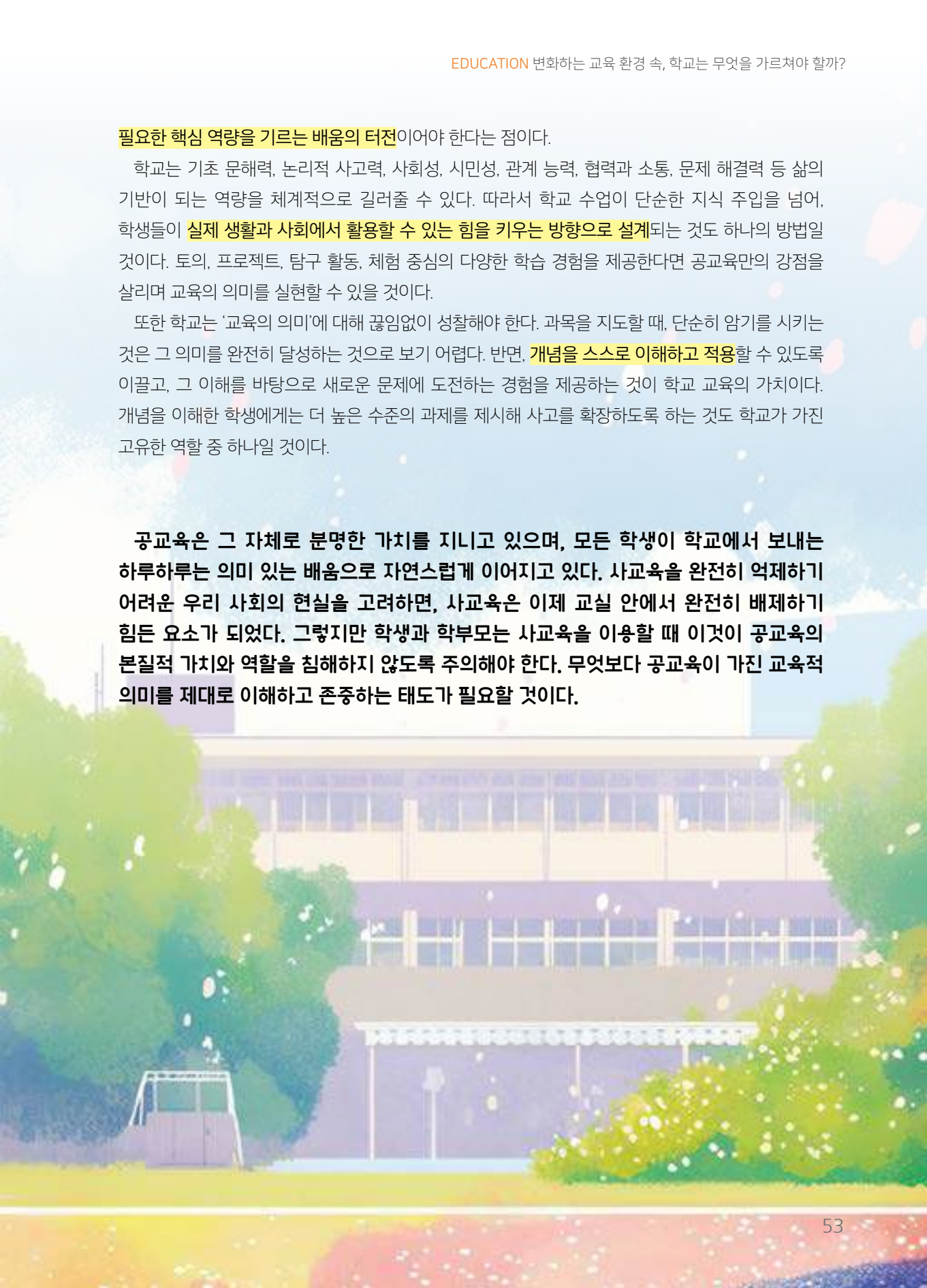
학교 수업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교사의 수업 스타일이나 교육관에 따라 제각기 다른 교실의 풍경이 그려진다. 그러나 그 다양성 속에서도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학교는 **학생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르는 배움의 터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는 기초 문해력, 논리적 사고력, 사회성, 시민성, 관계 능력, 협력과 소통, 문제 해결력 등 삶의 기반이 되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길러줄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수업이 단순한 지식 주입을 넘어, 학생들이 실제 생활과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토의, 프로젝트, 탐구 활동, 체험 중심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면 공교육만의 강점을 살리며 교육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는 '교육의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 과목을 지도할 때, 단순히 암기를 시키는 것은 그 의미를 완전히 달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개념을 스스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가치이다. 개념을 이해한 학생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과제를 제시해 사고를 확장하도록 하는 것도 학교가 가진 고유한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공교육은 그 자체로 분명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의미 있는 배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사교육을 완전히 억제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면, 사교육은 이제 교실 안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힘든 요소가 되었다. 그렇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을 이용할 때 이것이 공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역할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교육이 가진 교육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한 아이도 멀어지지 않는 배움, 보편적 학습 설계

편집국장 김민선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배우고,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교실."

한동안 교실을 설명하는 데 자연스럽게 사용되어 온 이 문장은, 오늘의 교실 풍경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교실 속 아이들이 저마다 다른 속도로 이해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배우며, 각자의 리듬으로 수업에 머물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실의 모습을 떠올리면, '보편적'이라는 말이 모두를 같은 방식으로 맞추는 뜻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처음부터 누구나 배움에 접근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미리 열어 두는 데 가깝다. 누군가를 위한 사후적 보완이 아니라, 누구도 배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준비된 수업! 이러한 관점에서 보편적 학습 설계를 살펴보자.



1 보편적 학습 설계란(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다양한 특성을 가진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교육과정에 접근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교육적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학생들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는 설계

(출처: 김남진, 김용욱(2010))

2 보편적 학습 설계의 지향

공평한 교육과정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
간단하고 직관적인 교수학습	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다양한 표현 수단	학생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성공 지향적 교육과정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여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적절한 노력 수준	학습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을 위한 적절한 환경	적절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격려한다.

3 보편적 학습 설계의 원리

다양한 참여 수단 설계	다양한 표현 수단 설계	다양한 행동 및 표현 수단 설계
		
the WHY of learning	the WHAT of learning	the HOW of learning

(출처: CTL blog)

UDL이 말하는 배움은 교사가 준비한 수업을 그대로 따라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학습자가 왜(why) 배움에 참여하는지, 무엇을(what)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배운 것을 어떻게(how) 표현하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설계를 지향한다. 이러한 관점은 학습자의 참여 방식을 살피는 참여의 원리,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을 다루는 표상의 원리, 그리고 학습 결과를 실행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다루는 행동과 표현의 원리라는 세 가지 원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① 참여의 원리 (Engagement)

참여의 원리는 정서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고려한 다양한 참여 방식을 설계하는 원리이다. 이는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벗어나, 각자의 관심과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흥미를 돋울 수 있는 다양한 선택 제공
-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를 돕는 선택 제공
-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선택 제공

② 표상의 원리 (Repres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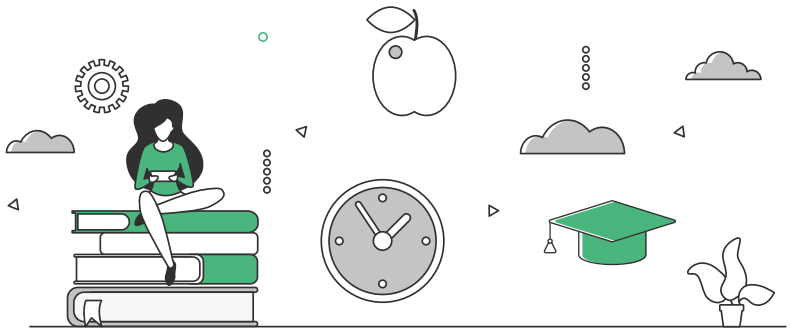
표상의 원리는 인지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 내용을 다양한 자료와 매체로 제시하는 설계 원리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각자의 이해 방식에 맞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 인지 방법의 다양한 선택 제공
- 언어, 수식, 기호 등 표현 방식의 다양한 선택 제공
-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선택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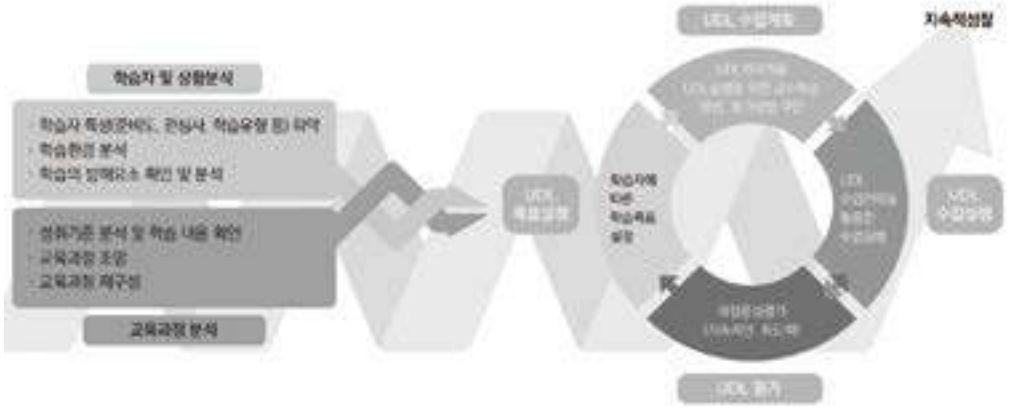
③ 행동과 표현의 원리 (Action & Expression)

행동과 표현의 원리는 전략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자가 배운 내용을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실행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원리이다. UDL은 학습 결과를 드러내는 방식이 학습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다양한 학습활동과 표현 수단을 제공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학습 과정과 결과를 표현할 수 있다.

- 신체적 표현 수단 제공
- 표현과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선택 제공
- 자율적 실행 기능 수준에 따른 다양한 선택 제공



4 보편적 학습 설계를 위한 체크리스트



(출처: 보편적 학습 설계(UDL) 수업 실천 프레임워크와 전략 개발 연구)

이처럼 보편적 학습 설계를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업 전·중·후 전반에 걸친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지속적인 성찰은 UDL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수업 속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핵심 요소다. 다음의 체크리스트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차분히 돌아보고, 설계의 방향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 학습자들이 수업에 어떻게 참여할지 생각하기
- 스스로 학습을 조절할 수 있게 하나요?
- 노력과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나요?
- 모든 학습자가 참여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나요?

2) 학습자들에게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기
- 더 깊이 이해하고 높은 수준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하나요?
- 기호와 표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나요?
-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나요?

3) 학습자들이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고민하기
-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나요?
- 유창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요?
- 신체적으로 반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요?

보편적 학습 설계는 서로 다른 배움의 결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는 대신, 각자의 배움을 포근히 감싸안는 보자기와 같은 설계이다. 예비 교사인 사향인들이 이 보자기를 펼쳐 수업을 바라보며, 누구도 배움에서 멀어지지 않는 교실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내일의 교실에서 이어가는 배움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수습위원 박지민



막연히
'교실'이라 했을 때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딱딱한 칠판과 책상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교실은 이제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났다. 교육의 미래는 변화된 교실 속에서 서서히
시작될 것이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주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
알아보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란, 환경과 첨단이 합쳐진 통합형 학교 모델로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총 2,835동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 약 18.5조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모두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미래학교'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주도성을 키우며 학습과 쉼, 놀이가 공존하는 학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공간 혁신	그린 학교
◆ 학습의 목적과 활동에 따라 크기와 쓰임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 ◆ 선택 학습과 창의·융합 수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	◆ 탄소 중립과 유해 물질 제로를 목표로 하는 친환경 공간 조성 ◆ 체험 중심의 환경·생태 교육 확산 ◆ 생태 교육 실천과 녹색 에너지 활용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교육 환경 구축
스마트 교실	**학교 복합화**
◆ 학생 개개인에 맞춘 디지털 기반 맞춤형 학습 공간으로 전환 ◆ ICT[1] 중심의 수업 환경 마련 ◆ 블렌디드 수업[2]과 학생 활동 중심 수업 확대	◆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 ◆ 학교가 지역의 생활·문화 거점으로 기능 ◆ 교육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관계 구축

1) 정보의 생성·처리·전달에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 전반. 특히 교육에서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된다.
2) 대면 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통합하여, 장점을 최대화하도록 설계한 혼합형 수업 모델.

공간 혁신, 그린 학교, 스마트 교실, 학교 복합화의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학교 공간이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 추가로 강조되는 두 가지 가치가 있다. 하나는 안전성이며, 이는 구조적 안정성과 감염병 대비 설계 등을 포함한다. 또 다른 하나는 사용자 참여 설계로, 학생·교사·학부모·지역 주민 등 교육 공동체가 설계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학교 공간이 구성원의 의견과 필요를 반영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모두 적용되는 사업이다. 초등학교만의 특별한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 초등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달리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습 경험을 중심**에 두고 **공간 혁신을 구체화**한다. 의사소통 중심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독서 교육 강화, 탐구 중심 수업, 창의적 체험 활동 등 **교육 과정의 주요 요소를 반영**하여 학교 공간이 새롭게 구성된다. 예를 들어, 교내에서는 안전 교육과 탐구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로봇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디지털 학습 공간이 확대된다. 도서관은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 교과 영역과 연계된 열린 공간으로 재배치되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협력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 다목적 무대 등도 조성된다. 또한,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학습 환경을 통해 블렌디드 수업이 가능해지고, 놀이 중심 체험 공간, 중앙홀 등 학생 참여형 학습 환경이 확장된다. 이처럼 초등학교의 공간 혁신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한 창의적·융합적 교육 공간으로의 전환을 지향한다.

이러한 전국적 학교 공간 혁신의 흐름 속에서,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지역적 특성**과 **도시 환경**을 반영한 고유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 미래 교육은 4가지 핵심 가치인 '미래', '상생', '책임', '자치'를 바탕으로, '미래 속에서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학교', '공감과 연대가 살아 숨 쉬는 행복한 학교', '모두를 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학교', '자율과 다양성이 있는 학교'라는 4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학교 공간 개선 사업으로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과 첨단 정보 기술을 융합하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창출하고자 한다.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추진 과정은 철저한 사전 기획과 지역 특성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학교 운영 위원회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각 학교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공간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교육과 환경,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결**을 지향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확립되고 있다.

이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새롭게 변화한 실제 학교들의 사례를 살펴보자. 첫 번째로, 서울 유현초등학교이다. **유현초등학교**는 학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립식 구조로 만들어진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사 기간 중에도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새롭게 조성된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배움이 가능해졌다. 기존 학교의 단편적 공간 구성에서 벗어나 내·외부 공간의 다변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복도와 휴게 공간 등에서도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학생들이 머무는 공간 전반에 개방감을 부여하여, 단순한 학습의 장을 넘어 새로운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형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모듈러 교실*



▲*학교 내부*

(출처: 서울시)

두 번째로 소개할 학교는 **울산 주전초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전국 최초로 건물 체적의 40% 이상을 목구조로 설계하여 친환경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울산

주전초등학교는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자급자족 인증을 모두 취득하며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입증했다. 학교 내부는 복도와 휴게 공간 등 공용 공간을 넓혀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도서관 벽면에는 대형 창호를 설치해 자연 채광을 극대화함으로써 밝고 따뜻한 학습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바닷가라는 입지 특성을 반영해 염분과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짜고, 학생들이 바다와 자연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 점은 지역성과 교육적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 이러한 설계는 단순한 건축적 시도를 넘어,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배워가는 친환경 교육 공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학교 외관



▲학교 내부

(출처: 네이버 거리뷰/울산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미래 교육의 큰 전환점을 제시한다. 학생들은 이 공간에서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학습을 통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미래 세대가 경험하게 될 새로운 학습 변화는 곧 교육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해주며,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길을 보여준다.



이건 첫 번째 레슨, 스마트폰 금지법 알아보기

편집위원 이서영

2028년의 어느 날….

"자 이제 스마트폰 낼 시간이에요. 다들 알죠? 이제 법적으로 교실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요."

중학교 2학년 사향이는 스마트폰을 내야만 하는 아침 시간이 제일 싫다. 몇 년 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했었는데, 무엇이 달라진 걸까?



About 스마트폰 금지법

사향이의 학교생활은 '스마트폰 금지법' 시행 전후로 달라졌다. 일명 '스마트폰 금지법'은 2025년 7월 교육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붙여진 이름이다. 2026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스마트폰 금지법이 전면 시행된다.

실제 초·중등교육법 일부 발췌문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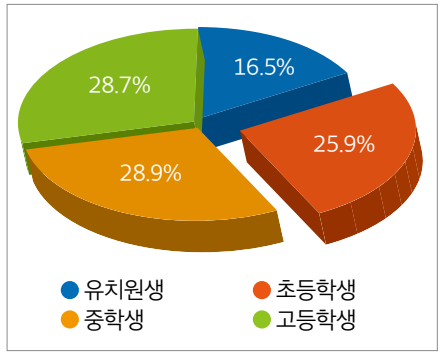
③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 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출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25.09.16 [법률 제21049호] 사법정보공개포털]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 법률로 이를 명확히 제한했다. 여기에는 스마트기기의 소지와 사용 제한의 권한을 교사 및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전 2023년 교육부 지침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일부 제한되기도 했지만, 법적 기반을 확보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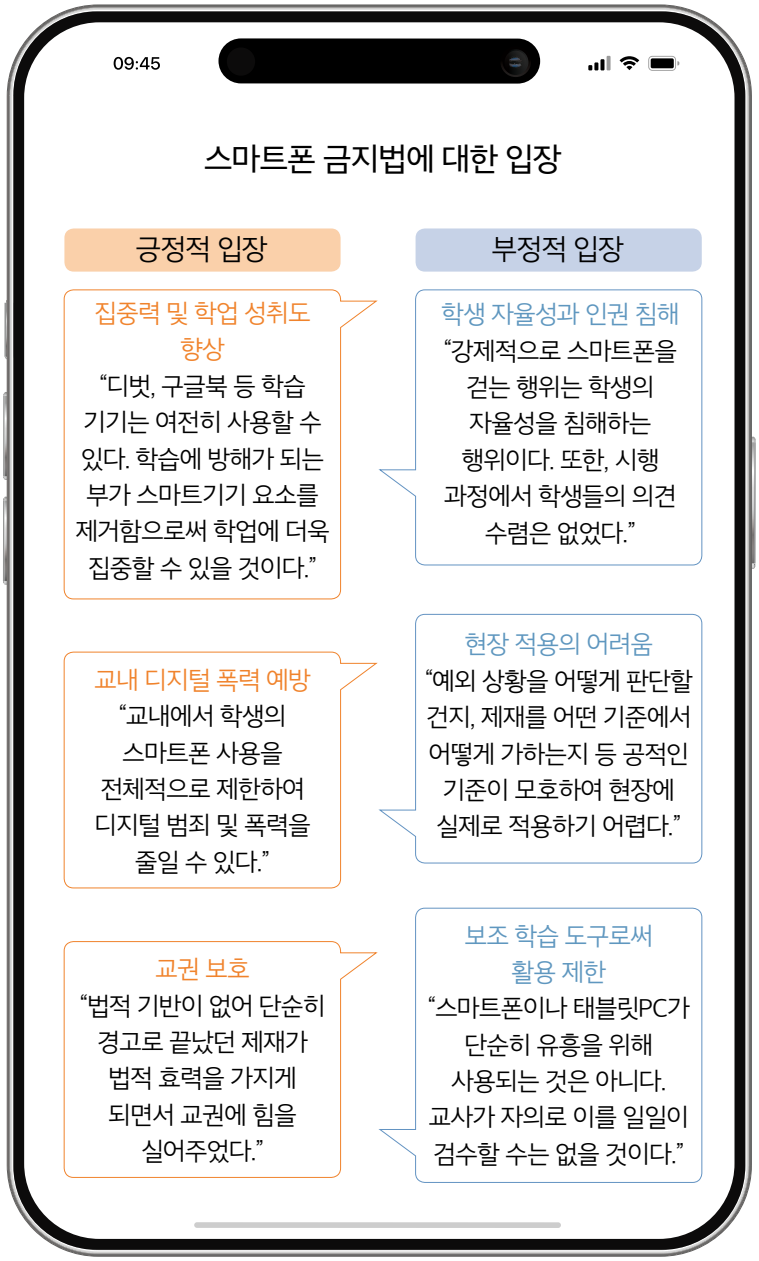
스마트폰 금지법이 대두된 배경

스마트폰 금지법은 청소년의 과한 스마트기기 사용 우려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 국가데이터처[1]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만 10~19살)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2] 위험군에 속해있다. 위험군 비율은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과 거리가 멀어 보이던 초등학생도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이제는 더 이상 예외의 대상이 아님을 나타낸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스마트폰 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다. 2026년 전면 시행에 앞서 기대의 목소리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스마트폰 금지법 시행의 찬성과 반대 측의 주요 입장에 대해 알아보자.



스마트폰 금지법의 시행이 단지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 예비 교사로서 양측의 입장을 고루 살피며 중립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스마트폰 금지법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스마트폰 금지법의 시행은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스마트기기가 실생활에 밀접하게 녹아 들어있음을 시사한다. '유O브는 유명한 밥 친구', '스몸비[3]', 'SNS 디톡스[4]' 등의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니다. 스마트기기의 사용 연령층과 범위가 다양해지는 요즘, 스마트기기가 주는 편리함 이면의 과도한 사용의 주의가 필요하다.

곧 시행될 스마트폰 금지법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교실 현장에 자리 잡게 될까? 사향이의 달라진 학교생활은 서울교육대학교 학부생들에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예비 교사로서 이전과 다른 스마트폰 없는 교실에 대해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더불어 스마트폰 금지법과 같은 교육 관련 법에 관심을 가지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



1)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처)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계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빅데이터를 통한 국가통계기관 및 통계작성기관.
2) 스마트폰 과의존 :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지 못하고 스마트폰 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현상. 스마트폰을 매개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고도 스마트폰 이용을 끊지 못하는 상태.
3) 스몸비 : 스마트폰(Smartphone)과 좀비(Zombie)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몰입해 주위를 살피지 않고 걷는 사람.
4) SNS 디톡스 :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의 한 갈래로, SNS를 포함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거나 일정 시간 차단하는 상태.

CULTURE

2025 통권 60호

3

CULTURE

사회

젠더 벤딩: 실험을 시작합니다

잔말 말고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어!

순간의 편리함, 남는 것은 쓰레기?

MZ 세대의 선택과 가치: 문화에서 갈등까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혼문을 지켜라



젠더 벤딩
: 실험을 시작합니다

수습위원 김지윤

연극사는 오랫동안 성별에 따라 배역이 고정되는 전통을 이어왔다. 고대와 중세의 연극에서는 여성의 무대 출연 자체가 아예 금지되었고, 금기가 깨어진 후에도 주요 배역은 대부분 남성이 맡곤 하였다. 뮤지컬 「아마데우스」의 살리에리나 연극 「멕베스」의 멕베스를 남성 배우가 연기하는 데 의문을 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남성 서사 위주의 극에 색다른 시도를 곁들이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관객과 배우가 함께 호흡하는 무대는 일종의 실험실이다. 그리고 지금, 그 실험대에 오른 것은 바로 성별의 경계이다. 배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젠더 프리'와 '젠더 벤딩' 캐스팅,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합니다.



연구 가설: 캐스팅의 새로운 가능성

연극적 실험의 기반이 된 것은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Gender Performativity)' 이론이다. 버틀러는 젠더를 반복적 수행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고, 연극계에서는 이에 응하여 젠더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시도로써 '젠더 프리'와 '젠더 벤딩' 캐스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젠더 프리 캐스팅(Gender-free casting)은 배우의 성별과 관계없이 배역을 결정하는 캐스팅 방식을 뜻한다. 이미 배역에 남성 또는 여성의 성별이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캐스팅 단계에서는 그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젠더 프리 캐스팅은 배우에 따른 기존 배역의 각색 여부에 따라 '젠더 블라인드(Gender-blind)'와 '젠더 벤딩(Gender-bend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젠더 프리 캐스팅은 젠더 블라인드 캐스팅으로, 성별을 보지 않고 배우를 선발하기만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젠더 벤딩 캐스팅(Gender-bending casting)은 '젠더 스와프(Gender Swap/성별 전환)'라고도 불리며, 캐스팅된 배우에 맞춰 배역의 성별을 바꾸어 각색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작품 속 원래의 성별을 역전하면서 작품의 의미나 관계망까지 새롭게 각색하는 것이다. 젠더 블라인드는 연기만 잘하면 누구든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으며, 연기자의 성별 외에는 기존 극과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 그러나 젠더 벤딩은 대본 단계에서부터 등장인물의 성별이 재규정되며 더 적극적인 연출 방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실험 설계: 실제 공연에서의 사례

먼저 '젠더 프리' 캐스팅의 사례부터 살펴보자. 셰익스피어의 동명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연극 「리어 왕」은 풍요로운 왕국의 리어 왕이 정치적·사회적으로 몰락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당연히 원작 상 '리어 왕'은 남성이며 연극사에서 줄곧 남성 배우가 주인공을 맡았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2016년 이러한 편견을 깨고 여성인 글렌다 잭슨이 리어 왕으로 캐스팅되었다. 성별을 바꾸거나 재해석하는 과정 없이 '여성이 리어 왕을 연기한다'는 사실만으로 성별의 고정관념은 깨질 수 있었다.



(출처: The Guardian, 2016, 연극 「King Lear」 King Lear - Glenda Jackson)

젠더 프리 캐스팅의 또다른 사례로는 국내의 뮤지컬 「하데스타운」을 들 수 있다. 그리스 신화 속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가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초연에서 남성이었던 주인공 '헤르메스' 역할에 2024년 7월 여성인 최정원 배우가 이례적으로 캐스팅되었다. 최정원 배우는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냥 이야기꾼으로 존재하고 싶다."라고

인터뷰하며 성별이 아닌 인물의 정체성과 메시지에 집중하여 관객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다. 이외에도 주인공이 왕자가 아닌 공주가 된 연극 「햄릿」, 다양한 성별의 홈즈-왓슨 콤비를 보이는 연극 「바스커빌 : 셜록 홈즈 미스터리」 등 국내와 해외 연극계에서는 다방면의 젠더 프리 캐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출처: ㈜클립서비스, 2024, 뮤지컬 「하데스타운」 헤르메스 - 최정원, 국립극단, 2020, 연극 「햄릿」 햄릿 - 이봉련)

'젠더 벤딩' 캐스팅은 작품 기획 단계에서의 추가적인 각색 작업을 요하기에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2025년 연극 「디 이펙트」에서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 세계 최초로 젠더 벤딩 캐스팅을 선보였다. 항우울제 임상실험을 소재로 하며 '사랑과 슬픔에 관한 4인극'이라는 부제를 가진 이 연극은 네 캐릭터 모두 기존에 공연되어 온 성별과 때로는 같게, 때로는 다르게 공연되었다. 여성이었던 '로나'와 '코니' 역에는 김영민과 박정복 배우가, 남성이던 '토비'와 '트리스탄' 역에는 양소민과 이설 배우가 각각 젠더 벤딩 캐스팅으로 연기했다. 배우에 따라 일부 대사 및 어휘는 수정되었고, 의상 등 시각적 장치도 다르게 나타났다.







(출처: ㈜레드앤블루, 2025, 연극 「디 이펙트」 토비 - 박훈, 양소민, 민진웅)

결과 분석: 효과 및 반응

연극계의 새로운 캐스팅은 캐릭터와 배우의 성별을 다양하게 조합해 연극 및 뮤지컬의 실험적 특성을 극대화하고 관객의 흥미를 자극하였다. 나아가 이는 색다른 배우들을 비교하기 위한 반복 관람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지윤 기자 또한 젠더 벤딩 캐스팅이 적용된 연극 「디 이펙트」를 여러 차례 관람하며 각기 다른 무대의 매력을 체험했다. 예를 들어 토비 역할의 강연 장면에서 박훈 배우는 투자 유치를 노리는 기업가처럼 보인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반면 양소민 배우의 토비는 여성인 만큼 허투루 보이지 않도록 한층 당당하고 권위 있어 보이려는 인상을 주었다. 트리스의 다정하고 따스한 면모는 이설 배우에게서, 코니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만 쉽게 속내를 알 수 없는 면모는 류경수 배우에게서 특히 두드러졌다. 고용주와 피고용주 관계였던 토비와 로나의 감정선 역시 성별 반전에 따라 페어마다 차이를 보였다.





(출처: ㈜레드앤블루, 2025, 연극 「디 이펙트」 로나 - 이윤지, 김영민)

민새롬 연출가는 인터뷰에서 "민감하고 예민한 인물들에게 관습적으로 여성 서사를 많이 부여했던 것 같다"[1]고 말했다. 이어 "젠더 벤딩을 통해 원작의 고정된 성별이 가졌던 한계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을 탐구하겠다"[2]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 결과 「디 이펙트」의 젠더 벤딩 캐스팅은 작품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다양성'을 부각하고 인물들에 대한 무의식적 편견을 최소화하였다. 관객을 '실험 참가자'로 지칭하는 공연에 신선한 시도를 곁들임으로써 공연 자체를 더욱 '실험'처럼 느끼게 하는 효과도 낳았다. 배역에 대한 각색을 통해 「디 이펙트」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극의 주제와 '실험'이라는 극의 형식을 모두 강조할 수 있었다.

---

1) 황서연. (2025년06월19일). 김영민→류경수 '디이펙트', 이유 있는 젠더 벤딩[종합]. 티브이데일리.
2) 김상협. (2025년07월29일). "남녀 배역 따로 없어요!"…세계 최초 '젠더 밴딩' 도입. KBS 뉴스.

결론 및 제언

연극계의 이번 실험은 참신한 자극이 되어 다양한 작품과 함께 국내외 시장에서 서서히 확대될 전망으로 보인다. 젠더 프리 캐스팅을 통해 맡을 수 있던 배역이 한정되어 있던 여성 배우들은 더 많은 배역과 기회를 얻게 되었다. 예술의 표현적 자유와 공정성을 확대하였고 마케팅 측면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젠더 프리'와 '젠더 벤딩' 캐스팅을 통해 우리는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인물 해석의 폭을 넓히고 성별이 아닌 본질에 더욱 집중하며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캐스팅 방법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만 있지는 않다. 젠더 프리, 젠더 벤딩 캐스팅이 실제로 성별적 불평등을 해소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진행된 바가 없으며, 단순히 화제를 모으기 위한 마케팅 수단에 불과한 것은 아니냐는 언론도 있다. 원작을 훼손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젠더 벤딩'이라는 각색 자체가 성별적 특징과 한계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한다. 젠더 규범의 해체는 관객으로 하여금 우리 사회의 젠더 인식을 재고하게 만든다는 효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젠더 수행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과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연극에서는 성별의 경계를 넘어선 다양한 캐스팅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젠더 프리', '젠더 벤딩' 캐스팅은 우리가 성별적 고정관념을 성찰하고 작품을 보다 본질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끔 돕는다.

무대 위의 배우에게 중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다. 연극계의 새로운 캐스팅 방법은 관객에게 새로운 자극을 던짐과 동시에 누구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다양한 역할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의의를 전한다.

더 자유롭고 다채로운 무대를 향하여, 연극의 실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사향지기의 오탈자를 찾아주세요!

사향지기 독자 여러분,
재미있게 교지를 읽고 계신가요?
앗, 그런데 사향지기에 오탈자가 있다니?
오탈자를 발견하신 독자분들은 오탈자가 있는 부분의
*페이지, 줄 수 및 위치, 오탈자*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3개 이상의 오탈자를 찾아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dangmu041001@naver.com
문의: 편집국장 홍혜정



잔말 말고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어!

편집위원 김인영
수습위원 양시형

안전안내문자 4분전

지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위험이 높으니 낮시간 야외 활동 자제, 작업중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여름철, 하루에도 몇 번씩 질리도록 받는 안전안내문자다. '여름' 하면 찜통같은 더위가 당연시 따라오는 요즘, 우리가 '잔말 말고 에어컨을 파워냉방으로 틀' 수밖에 없는 이 폭염을 파헤쳐 보자.





매년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폭염

'올여름 최강 폭염', '가장 뜨거웠던 올여름'

매년 여름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뉴스 기사 제목들. 실제로, 최고기온이 40℃까지 올랐던 2018년의 여름을 제외하고는 매년 최고기온은 꾸준히 상승했다. (기상청, 2015~2025) 올해 여름이라고 다를까? 여름 평균 기온이 오른 것은 물론, 심상치 않은 다음 두 가지 현상까지 나타났다.

1. 비교적 일찍 찾아온 폭염경보

'아직 7월인데, 한여름인 8월에는 얼마나 더 더워지려고 벌써 찜통이야!'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그런데,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작년보다 18일 빨리 발령됐다. 보통 폭염은 7월 중하순, 장마가 끝나고 찾아오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6월 30일 폭염주의보를 시작으로 7월에 7일에 폭염경보까지 발령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쪽에서 내려온 '티베트 고기압'과 남쪽에서 올라온 '북태평양 고기압'이 겹치면서, 장마를 일으키는 정체전선이 약화한 대신 고기압의 뜨거운 공기로 인해 기온이 높아졌다고 설명한다.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경보로 인해 체감상 더 길고, 더 덥게 느껴진 여름이 지속됐다.**

2. 전국적 기온 상승과 해안가의 열대야 확대

'여름에는 피서지. 어느 바다로 갈까? 동해? 서해?'

우리는 여름 더위를 피하려 바닷가로 휴가를 떠나곤 한다. 하지만, 해안가는 시원하다는 '피서' 공식도 흐려졌다. 해안가 또한 여름 기온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평균 기온이 오른 것에 더해, 해안 지역의 열대야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대야**'란 수증기가 열기를 붙잡아 두는 온실 기체 역할을 하면서 밤이 되어도 지면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현상인데, 바닷가 근처에서 특히 자주 발생한다. 해안가의 낮 기온이 오르면서, 이 열대야 현상도 확대된 것이다.

여름철의 악마, 습도

'망고, 수박이면 몰라도 사람 살 습도는 아니네요..'

여름철은 높은 습도를 동반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습도**'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을 뜻한다. 우리가 습할 때 유독 더 덥다고 느끼는 이유는 체감 온도가 기온은 물론 습도의 영향도 받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습도가 높으면 우리 몸에서 땀의 증발이 어려워져 몸에서 열을 방출하는 현상이 줄어든다. 습도가 50%를 넘게 되면 습도가 10% 올라갈 때마다 체감 온도가 1℃씩 높아진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지역이더라도 습도가 높으면 체감 온도는 더 높을 수 있다. **습도는 불쾌지수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여름에 우리가 불쾌감을 느끼는 데에 큰 몫을 한다.**

실내 냉방의 실태, 더위가 멈추지 않는 탓일까?



"공공기관 103곳 중 '적정 실내 온도'를 지킨 기관은 단 1곳."

여름이 되면 우리는 더위와의 전쟁을 시작한다. 여름철 최고기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에어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에어컨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요즘, 위와 같은 흥미로운 보도가 눈에 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름철 공공기관은 냉방 시 실내 온도를 평균 2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를 26℃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올해 서울의 평균 최고기온은 33℃를 웃돌았다. 폭염이 일상이 된 요즘, 학생들은 26℃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며 온도를 23~24℃로 낮추는 경우가 많다. 기숙사나 강의실에서는 냉방 온도를 두고 갈등이 잦다. 과도한 냉방은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냉방병, 두통, 기침 등 냉방 관련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다. 한 대학 보건센터 관계자는 "여름철 호흡기 질환이나 근육통으로 내원하는 학생이 지난해보다 20%가량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무더운 여름에 건강과 비용 부담, 적정온도 설정 사이에서 학생들은 매년 여름,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다. 단순한 냉방 온도 설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여름 난방 환경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후끈후끈하다, 후끈후끈한... 현장 인터뷰!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고객을 맞이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로 담아보았다.

1. 자기소개 및 야외 근무 경험 소개를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인문학부에 재학 중인 최명균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 홍천 오션월드에서 한 달간 실내·실외 남자 락카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는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고객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락카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는 일을 맡았는데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책임감과 근무 태도의 중요성을 크게 느낄 수 있던 경험이었습니다.

2. 근무 중 폭염으로 인한 건강 이상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특히 실외 락카에서 근무할 때 온도와 습도가 매우 높아서 체력적으로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 탈수 증상이나 어지러움을 느낀 적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짬짬이 물을 자주 마시고, 잠시 그늘에서 쉬면서 스스로 컨디션을 관리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피부가 탈 정도로 8월경의 햇볕이 강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3. 여름철 업무 중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나요?

제게 여름철 업무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높은 온도와 습도 속에서도 계속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락카 키가 모두 나갈 정도로 많은 고객이 몰려 정신없이 바쁜 날이 많았습니다. 고객의 불편 사항도 많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친절하게 응대하려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락카 내부의 물기를 자주 닦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하게 움직였던 기억이 납니다.

4.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점이 있을까요?

오션월드의 근무 환경이 더 좋아지려면 우선 직원 이동 동선이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무 중 휴식을 위해 식당이나 휴게실로 이동할 때 고객 동선과 겹쳐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또한 어지러움과 같은 더위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여러 시설이 마련된다면 여름에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모두가 시원한 곳을 찾게 된다. 함께 만들어 가는 쾌적한 여름을 기대해 본다!

사향인의 여름 생존법

이 더위 속에서, 서울교대 학우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름 생존법'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양산을 늘 챙겨 다니고, 시원한 카페 음료를 마셔요."
"나시 입기! 어깨를 드러내야 시원하더라고요."
"비 오는 여름밤에 아끼는 우산을 들고 좋아하는 노래와 정처 없이
떠도는 것과, 수박, 복숭아 같은 시원하고 달콤한 과일을 먹는 것이요.
즐거움에 집중하면 긴 여름도 금시에 지나갑니다."

뜨거운 계절을 견디는 방식은 다 달라도, 모두가 각자의 여름을 조금 더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여름을 더 시원하게 나는 방법은?

에어컨을 파워냉방으로 튼다면 물론 시원해지겠지만, 한여름을 더 현명하게 나는 법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루틴**에서 시작된다. 여름에는 한낮의 최고 더위 시간을 피하도록 오전이나 저녁에 주로 활동하고, 외출할 때는 양산과 물을 기본적으로 챙겨야 한다.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적정 온도로 두고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해 체감 온도를 낮추고, 차양이나 커튼, 제습기 등을 이용해 열과 습기의 유입 또한 줄이는 것이 좋다. 물은 목마름을 느낄 때가 아니라 평소에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한다. 땀을 오래 흘리면 체내 수분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데, 전해질이 풍부한 이온 음료나 바나나 등의 과일·채소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취약한 이웃을 비롯해 서로를 챙기는 문화가 필요하다. 야외 노동자나 어르신에게 물 한 컵과 그늘을 권하는 작은 실천이 **우리 공동체의 체온을 낮춘다**.

매년 더 위협적인 위력으로 찾아올 폭염. 더 이상 더위를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 여름철 재난으로 제대로 알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여름 더위는 피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이 여름을 더 시원하게 나는 방법은?'에서 언급했듯이 그 대응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냉방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습관을 바꿀 때, 진짜 시원한 여름은 '에어컨의 파워냉방'이 아니라 여름을 **현명하게 나는 우리의 태도**에서 시작될 것이다.





당신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사향지기에게 들려주세요!

서울교대 학우 및 교직원 여러분! 평소에 궁금했던 주제나 사안을
사향지기에서 대신 취재해드립니다.
창의적인 기사 아이디어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사소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작은 울림을 줄 소중한 이야기들을
사향지기가 기다립니다.

교내(캠퍼스), 교육,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그곳으로 사향지기가 취재하러 갑니다!

보내실 곳 dangmu041001@naver.com
문의 편집국장 홍혜정

순간의 편리함,
남는 것은 쓰레기?

편집위원 홍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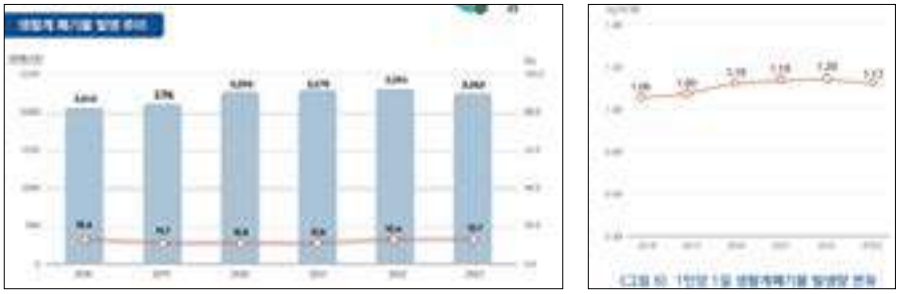
코로나 19를 거친 우리는 비대면 시스템이 익숙해졌다. 물건을 살 때에는 마트에 가지 않고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며, 배달 앱을 이용해 음식을 시켜 먹는다.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 그러나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법. 우리가 얻은 편리함은 '대량 쓰레기 발생'이라는 문제를 낳고 말았다. 이렇게 발생한 쓰레기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쓰레기의 발생과 처리까지, 쓰레기의 여정을 따라가 보자!



쓰레기, 너는 어디서 왔니?

쓰레기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꼽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2018년을 기준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2024년 발표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생활계 폐기물**은 총 '2241만t'으로 전년보다 2.07% 감소하였다. **생활폐기물**[1] 발생량은 평균 1.17kg/일/인으로 전년도(1.20kg/일/인) 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생활폐기물: 생활계 폐기물 중 가정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출처: 한국폐기물협회)

OECD국의 1인당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과 한국의 1인당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2023년 433kg으로(OECD 평균 531kg)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90.5kg으로 호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플라스틱 배출량은 OECD 평균인 42.4kg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양이다. '이소연'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팀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배달 포장 제품의 이용 증가를 일회용품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의 주요 원인 알아보기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의 원인 중 하나는 **배달 포장 제품의 이용 증가**이다. 국가 통계 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배달앱[2] 사용률은 31.7%, 배달대행[3] 업체의 사용률은 29.3%로 나타났다. 문제는 배달을 한 번 시킬 때마다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배달을 한 번 시키면 발생하는 주요 쓰레기로는 '플라스틱 용기 및 뚜껑', '일회용 수저 및 식기류', '종이박스 및 종이봉투', '스티커 및 비닐' 등이 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는 오염도가 높아 재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소각 처리가 되고 있어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 문제를 가중하고 있다.



쿠팡과 마켓컬리의 이용도 쓰레기 발생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업체들은 로켓배송, 새벽 배송 등 빠른 배송을 앞세우며 소비자들의 배달 이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업체의 **과대포장**이다. 제품 하나를 시키면 비닐 쓰레기와 택배 상자가 발생한다. AI를 도입해 맞는 크기의 택배 상자를 사용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마저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분리수거는 왜 중요할까?

배달 음식이나 쿠팡, 마켓컬리 같은 배송 업체의 이용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한 쓰레기들을 제대로 **'분리수거'**하는 것도 환경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분리수거는 왜 중요할까?

---

2) 배달앱: 소비자의 배달을 도와주는 응용 소프트웨어
3) 배달대행: 배달 대행 서비스 사업

먼저, 분리수거를 잘하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분리수거를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분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천연자원 사용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분리수거는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을 만들 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아끼고 폐기물 발생을 줄인다**. 분리수거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도 가질 수 있다.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교내 분리수거 현황은?

혜정 기자가 직접 교내 분리수거 현황을 조사해 보았다. 점심시간에 많이 이용하는 '연구강의동 2층 쓰레기통', '학생회관 1층 쓰레기통', 기숙사인 '서록 1관 쓰레기장' 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 학교 학생들은 분리수거를 잘 실천하고 있었다. 다만, 음식이 남아 있는 플라스틱 그릇 같은 경우 음식물을 음식물 수거함에 버리지 않고 일반쓰레기 수거함에 통째로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교내 분리수거 환경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었으나 학생회관 1층의 경우 쓰레기통이 종이류, 캔·병류, 일반쓰레기로 구성되어 있어,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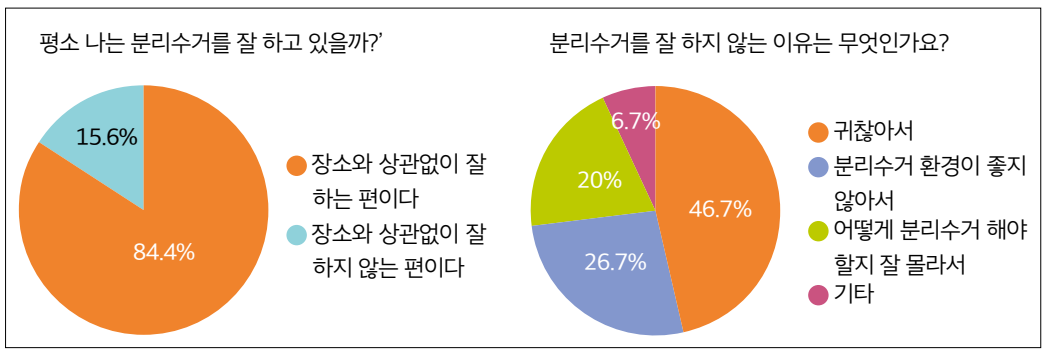
(학생회관 1층)



(서록 1관)

우리의 양심고백

사향인 32명을 대상으로 분리수거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27명(84.4%)이 '장소와 상관없이 분리수거를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나머지는 모두 '보통이다'로 응답했으며, '장소와 상관없이 잘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분리수거를 잘하지 않는 이유로는 '귀찮아서' 가 46.7%로 가장 많았고, '분리수거 환경이 좋지 않아서(26.7%)', '어떻게 분리수거 해야 할지 잘 몰라서(20%)' 가 그 뒤를 이었다.



학교에서 분리수거를 하며 불편했던 경험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종합해 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

시설 및 환경 문제	쓰레기통 종류와 구조의 부족, 쓰레기통 크기 및 개수 부족	- 플라스틱, 종이, 일반만 있는 곳이 많아서 캔, 유리, 비닐 등 세부 분리가 부족 - 쓰레기통 크기가 작아서 금방 참
관리, 운영 문제	쓰레기통 관리 미흡, 운영 시간·접근성 문제, 규정·정책 혼란	- 쓰레기통 관리가 미흡 - (기숙사의 경우) 운영 시간 제한이 있어 불편 - 각 건물마다 분리 기준이 달라 혼란스러움
사용자 행동 문제	잘못된 분리배출로 인한 불쾌감	- 분리되어 있는데도 구분 없이 버리는 경우가 많음 - 카페 컵, 빨대가 모두 일반쓰레기로 들어감
세척 및 처리 환경 문제	세척 공간 부족, 음식물 및 액체 처리 어려움	- 플라스틱 용기를 씻을 시설 부족(집처럼 헹굴 수 없음), 음료 버릴 공간이 없어 어려움

학교 밖에서 분리수거를 하며 겪은 불편함에는 '음료수 라벨 떼기 불편하다', '어디까지 분리수거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분리수거 안내가 붙어있으면 좋겠다' 등이 있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너와 나의 쓰레기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자원순환 정책'**이 있다. '자원순환 정책'이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로 전환하여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방침이다. 유럽에서는 **'순환경제 패키지'**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다시 재활용 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제품을 만들고, 재활용 제품의 국경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개인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로웨이스트'**가 있다. '제로웨이스트'란 제로(zero)와 쓰레기를 의미하는 웨이스트(waste)의 합성어로 쓰레기가 0인 삶을 의미한다. 즉, **최대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실천**하는 움직임이다.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물은 생수를 구입하지 않고 끓여 마시기', '택배 이용하지 않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은 가까운 상점 이용하기' 등이 있다. 외출 시에는 '텀블러, 장바구니,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방법' 이 있다. 쇼핑할 때에는 '과대 포장된 제품이나 포장재가 많이 나오는 낱개 포장 제품은 구입하지 않고, 한철 입고 버릴 옷 대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구매'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꼭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 배출 방법이 혼동된다면 스마트폰 앱 '내 손 안의 분리배출'로 확인할 수 있다.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조금의 관심을 기울이며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올바르게 분리수거 하면 환경을 지킬 수 있다.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쓰레기는 점점 더 많이 발생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쓰레기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보자.

MZ 세대의 선택과 가치: 문화에서 갈등까지

편집위원 김민아

'욜로(YOLO)*'는 끝났다? 한때 '인생은 한 번뿐'이라며 오늘의 즐거움에 아낌없이 지갑을 열던 MZ 세대**의 가치관은 오늘날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여러분은 MZ 세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의 선택에 어디까지 공감할 수 있는가? 지금부터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MZ 세대의 새로운 자기표현 문화 및 소비 가치관과 그에 따른 세대 간의 소통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의 약자로,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라는 뜻의 표현이다. 영미권에서는 주로 어리석거나 약간 위험하더라도 즐겁거나 흥미로운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MZ 세대: M 세대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를 통칭하는 대한민국의 신조어이다. 참고로 출생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대를 구분할 수 있다.

X 세대	M 세대 (밀레니얼 세대)	Z 세대
1960년대 중후반~1979년 출생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 출생



이거 하면 나도 MZ? MZ 세대의 자기표현 문화!

브랜드를 중시했던 X 세대와 달리, MZ 세대의 초점은 '나 자신'에게로 옮겨졌다. 즉, 평범함을 거부하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가 MZ 세대를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① 폰꾸

대표적인 자기표현 문화의 사례로 '폰꾸(핸드폰 케이스 꾸미기)'를 꼽을 수 있다. 핸드폰 케이스의 역할이 단순히 기기를 보호하는 도구를 넘어, 빠른 주기로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 패션 아이템으로 확장된 것이다. 2024년 5월 모바일 쇼핑 플랫폼 '에이블리' 관계자는 "'자체 제작 폰 케이스' 주문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5%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거래액은 80% 늘었다. 또한 '핸드메이드 폰 케이스'(135%), '핸드메이드 케이스'(90%) 등 수제 생산 품목 관련 검색량도 상승 추이를 보이며 자체 제작 폰 케이스의 인기를 증명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폰꾸 문화는 관련 시장의 규모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인형 키링, 한정판 굿즈, 피규어 등 여러 취향 소비로 확장되며 MZ 세대의 자기표현 문화의 플랫폼이 되고 있다.

② 셀피(selfie)

자신의 일상, 감정, 취향을 사진으로 기록 및 공유하는 '셀피(Selfie)' 또한 자기표현 문화를 상징한다. 2000년대 초반 '자기 자신을 찍은 사진'을 의미하던 '셀피'는, 개인이 자신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방법이자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SNS가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필터와 편집 앱을 활용해 나만의 독특한 이미지 만들기, 여가 생활을 즐기는 나의 모습 공유하기 등 셀피를 통해 '자기 서사(Self-narrative)'를 구축하는 방식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셀피는 개인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기업 등의 이미지 관리와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어떤 소비를 하시겠습니까? MZ 세대의 소비 가치관!

초기 MZ 세대가 파인 다이닝, 쇼핑, 여행 등 소비를 통한 순간의 경험과 만족을 중시했다면, 최근에는 'YONO(You Only Need One)', 즉 '진짜 필요한 하나를 선택하는 소비'로 가치관이 이동하고 있다.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나에게 가치 있는 소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은 다음과 같다.

① 디깅(digging) 소비

팬데믹 이후 출현한 신조어로, digging(깊이 파고들다)과 소비의 합성어이다. 소비자가 자신이 좋아하거나 흥미를 느끼는 분야, 브랜드, 아티스트 등에 깊게 파고들며 관련 제품이나 경험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초기에는 아이돌, 영화 등 대중문화 영역에서 두드러졌지만, 현재는 식음료, 헬스, 뷰티, 미술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디깅 소비자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취향을 중심으로 제품과 경험을 선택한다. 즉, 획일화된 소비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세계관을 반영하므로,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디깅 소비는 앞서 살펴본 '폰꾸' 같은 커스터마이징, 초개인화 문화를 선도하며 MZ 세대의 대표적인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② 미닝아웃(meaning-out) 소비

의미를 뜻하는 'meaning'과 벽장 속에서 나오다는 뜻의 'coming out'이 합쳐진 용어로, 자신의 정치적·사회적 신념 등을 소비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일종의 소비자 운동을 일컫는다. 팬데믹 이후 큰 자산 축적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작은 소비라도 나의 가치와 의미가 담긴 선택으로 만들고자 하는 경향이 MZ 세대 사이에서 두드러졌고, 이러한 가치와 메시지가 SNS에서 새로운 콘텐츠 경쟁력이 된 것이다.

'가치'를 소비하는 MZ 세대의 미닝아웃 소비는 개성 및 자아의 표현에서 나아가 기업 윤리에 대한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소비, 윤리적 소비와 같이 환경·경제 등의 여러 분야에서의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미닝아웃 소비의 사례로는 카페에서 제공되는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업사이클링을 활용한 에코백 사용하기, 돈쭐* 내주기 등이 있다.

*돈쭐: '돈으로 혼쭐을 내준다'의 줄임말로, 타의 귀감이 된 가게/기업에 착한 소비로 보답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신조어이다.

③ 듀프(dupe) 소비

듀프(dupe)란 'duplicate(복제하다)'에서 유래된 용어로, 특정 고가 제품이나 브랜드 상품과 유사한 외관·기능을 가진 저가의 제품을 의미한다. 디깅 소비가 개인의 취향과 애정을 기반으로 특정 분야나 브랜드를 깊게 파고드는 소비 방식이라면, 듀프 소비는 고가 제품을 품질이 비슷한 가성비 좋은 대체품으로 대체하는 합리적 소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등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MZ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듀프 소비는, SNS를 통한 정보 공유가 활발해짐에 따라 그 인식이 확대되었다. 예컨대 샤넬 화장품 대신 다이소의 컬러밤 립·치크, 고급 브랜드 가방 대신 월마트의 가방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논쟁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지만, 패션, 생활용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들에게 다채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MZ 세대의 소비문화이다.

'다름'이 갈등의 원인? 세대 간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소통 갈등!

이러한 MZ 세대의 자기표현 문화와 소비 가치관은, 팬데믹 이후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MZ 문화를 일시적 유행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의 생존 전략은, 기성세대와의 인식 차이를 불러일으키며 세대 간 소통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장기적 축적과 안정을 중시해 온 기성세대와 달리, MZ 세대는 고용 불안과 주거

문제 등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오늘의 나'에게 의미 있는 선택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MZ 세대의 정체성 표현, 나를 위한 투자, 가치 기반 소비는 기성세대의 시선에서 불필요한 꾸밈, 과소비, 브랜드 집착 등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한 세대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힌트는 인식의 차이가 소통의 단절이 아닌 확장의 기회임을 인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몇몇 기업들은 '친환경', '윤리적 생산' 등 명확한 가치 메시지를 앞세워 MZ 세대의 미닝아웃 소비와 디깅 소비를 반영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 판매를 넘어, 소비자의 가치에 공감하고 이를 소통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세대 간 이해의 확장 및 갈등 해소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MZ 세대의 자기표현 문화와 소비 가치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하나의 정답이나 문제로 규정하기보다, 각 세대가 처한 환경과 선택의 맥락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서로 다른 가치와 표현을 단순한 차이로 바라보는 데서 나아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여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러한 시선의 전환이 쌓일 때, '다름'은 갈등이 아닌 사회 발전의 또 다른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편집위원 김민소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한때는 가족의 절대성을 설명하는 데
이보다 더 적확한 말이 없었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지금, 이 문장은 더 이상
자명하지 않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묻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자.

"The blood of the covenant is thicker than the water of the womb (언약의 피는 자궁의 물보다 진하다)."

우리가 흔히 가족의 절대성을 강조할 때 쓰는 문장, '피는 물보다 진하다.'의 원문이다. 본래 이 말은 전쟁터에서 피를 나누며 맹세한 전우애, 즉 선택한 관계가 태생적 혈연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문장을 혈연 중심의 가족관, 이른바 '혈연 지상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 왔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 삶을 지탱하는 '진한 관계'는 무엇인가? 혈연과 혼인 중심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넘어,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아픔을 돌보며 살아가는 다양한 관계들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가족'과 '가구' 사이에서

우리는 흔히 '가족'을 떠올릴 때 부모와 자녀가 한집에 모여 사는 모습을 상상한다. '가족'을 '혈연, 혼인, 입양으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과 통계의 언어는 이미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는 가족 대신 '가구'라는 개념을 중심에 둔다.

가족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
가구	혈연관계와는 상관없이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

이 기준에 따르면 가족이라도 군복무, 취업, 교육 등으로 인해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주민등록이 다르더라도 실제로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가구원으로 포함된다. 먼 친척, 친구, 가사 도우미, 종업원 역시 함께 살고 있다면 가구원이 된다. 즉, '가구'는 '누구와 피가 섞였는가'보다 '누구와 삶을 공유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전통적인 핵가족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생활 공동체가 존재한다.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과 같은 혈연과 혼인 중심의 가족을 비롯해, 독신가구, 비혼동거가족, 사실혼가족, 동거가족 등 혼인 제도 밖의 가족, 나아가 우정공동체가족, 공동육아가족, 생활공동체가족, 다종족가족과 같이 돌봄과 생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들까지 그 스펙트럼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가족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의 전형에 묶여 있지 않고 개인의 삶의 방식과 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멀리 떨어져 사는 형제나 자매보다 매일 저녁을 함께 먹는 룸메이트가 내 삶에 더 밀접한 존재일 수도 있다. 법적인 '가족'은 아닐지라도, 삶을 함께 꾸려 나가는 '식구(食口)'들이 우리 곁에 존재한다.

'기타'로 묶인 사람들

가족의 형태는 이토록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통계는 '가구'라는 개념을 통해 비교적 충실히 다양한 삶의 형태를 포착하고 있지만, '가족'을 분류하는 방식은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의 지체'는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일례로 '인구주택총조사'는 가족의 형태를 '핵가족', '직계가족', '기타가족'의 세 범주로만 분류하고 있다.

핵가족	부부만의 가족이나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 또는 편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
직계가족	부부와 양친(또는 편친)으로 구성된 가족이나 부부와 양친(또는 편친) 그리고 자녀로 구성된 가족
기타가족	위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의 가족

이 분류의 한계는 '기타가족'의 범주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핵가족과 직계가족은 구성원에 따라 세분화되는 반면, 그 외 다양한 가족의 형태는 '기타가족'이라는 하나의 범주 아래에 갇혀 있다. 가족을 바라보는 제도의 시선이 여전히 전통적 모델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 준다. 관계의 다양성은 존재하지만, 공적인 언어로는 충분히 호명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내 가족'

이러한 인식의 한계는 곧바로 권리의 문제로 이어진다. 평생을 함께 살아 온 동거인이라도 법적 가족이 아니라면 응급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고, 장례를 주관할 수도 없다. 주거, 대출, 상속 제도에서도 배제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불편함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관계가 공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문제이다. 제도가 관계를 호명하지 않을 때, 그 관계는 보호의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난다. 가족의 정의가 곧 권리의 경계가 되는 이유이다.

이와 같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논의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생활동반자법(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이다.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법적으로 '가족'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하고, 의료 결정권, 장례 주관, 주택 임대차 승계, 상속 일부 등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개인이 고립되지 않고, 관계가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생활동반자법', 기대와 우려 사이

'생활동반자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첨예하다. 찬성하는 이들은 1인 가구와 비혼 동거가 급증하는 현실을 제도가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관계에 의료 결정권이나 주거 안정과 같은 최소한의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프랑스의 팍스(PACS) 제도와 같은 해외 사례 역시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참고 대상으로 언급된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전통적 혼인 제도의 가치가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 제도와의 충돌, 상속이나 세제 혜택을 비롯한 제도 악용의 가능성이나 기존 가족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 등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처럼 생활동반자법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하나의 법안에 대한 찬반을 넘어, 변화한 삶의 모습과 기존 제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된다.

피보다 진한 것은 '마음'이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현대 사회에서 우리 삶을 지탱하는 '진한 관계'는 무엇인가? 가족을 정의하는 기준은 언어와 제도 속에 존재하지만, 그 관계를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언제나 개인의 삶이다. 제도의 정의와 삶의 경험이 완전히 겹치지 않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분명한 것은 가족의 본질이 서로를 아끼고 책임지며 지지하는 '마음'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마음은 같은 성을 쓰거나 법적 테두리 안에 있지 않아도 성립한다. 오늘날의 가족이 하나의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다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며, 서로 다른 모습의 가족들과 이웃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혼문을 지켜라

편집위원 봉지원

We're goin' up, up, up it's our moment
You know together we're glowing
Gonna be, gonna be golden

2025년 현재 온 지구촌에 울려 퍼지는 이 익숙한 가사, 바로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 'Golden'의 가사이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심지어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연속적으로 'Golden'이 정상을 차지하며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대체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일명 '케데헌'의 매력이 무엇이길래 이렇듯 전 세계를 사로잡은 걸까? '혼문'을 수호하며 사람들을 지키는 헌터들의 이야기, 그 현장 속으로 떠나보자.



세계는 왜 '헌터'들에게 열광하는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은 '헌트릭스'라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 '루미', '미라', '조이', 그리고 그들과 대적하는 '사자보이즈'이다. 그중에서도 '헌트릭스'의 멤버 '루미', '사자보이즈'의 멤버 '진우'가 비중이 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헌트릭스는 겉으로는 K-POP 아이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혼문'이라는 일종의 방어막을 수호하며 팬들을 지키는 '헌터'들이다. 사자보이즈 또한 마찬가지로 아이돌을 표방하며, 헌트릭스에 대적하여 '혼문'을 뚫고 사람들의 영혼을 가져가려는 악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줄거리의 '케데헌'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을까? 해외 언론사 시네마 익스프레스가 분석한 그 흥행 비결로는 먼저 내용적 측면에서 K-pop과 판타지 장르를 결합해 신선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있다. 특히 K-pop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거대한 팬덤을 형성하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K-pop 팬덤들이 흥행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전통 신화와 문화재를 담아내어 해외 관객에게 독특한 문화적 요소를 선보이면서도, 한국 문화에 쉽게 접근할 기회를 마련한 것이 흥행에 기여하였다. 영화 속 한국 문화에는 '한복, 갓, 붓글씨' 등의 전통적인 요소와 '부적, 퇴마 도구, 월도' 등의 무속 신앙과 관련된 요소, 그리고 '김밥, 라면, 목욕탕' 등의 현대적인 요소가 고루 포함된다.





(출처 : 넷플릭스)

이 밖에도, 독특한 영화 관람 문화가 흥행의 불길에 힘을 보탠 측면이 있다. 바로 '싱어롱'이라는 문화로, 영화에 등장하는 노래를 관객들이 따라 부르며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이다. 관람객들은 '싱어롱'에 참여하기 위해 SNS에서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 게시물을 공유하며 한국어 발음을 공부하고, 한국어로 즐겁게 노래를 따라 부르며 영화를 200%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그 뒷이야기 : K-pop과 한국계 제작자들

'케데헌'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면 K-pop의 아주 소소한 문화까지 잘 담아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 속 후배 아이돌그룹을 한국어로 '후배'라고 부르는 점이나 그룹별로 개성이 담긴 응원봉이 등장하는 등 글로벌 K-pop 팬이라면 공감할 만한 요소들이 곳곳에 담겨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무속 신앙에 기반을 둔 무당의 '굿'과 K-pop 아이돌 '콘서트'에서 동일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포인트로 이야기를 구상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은 K-pop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해서는 탄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K-pop 문화 속 팬과 가수의 시너지를 완벽히 이해하고 영화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넷플릭스)

영화의 OST와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도 빼놓을 수 없다. 더블랙레이블의 테디, 안무가 리정, 그룹 트와이스 멤버 정연·지효·채영 등 K-pop 대표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제작한 OST는 기존 K-pop 팬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친숙하게 느껴졌다. 이는 K-pop을 단순히 흉내 낸 것이 아니라 완벽히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숨겨진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계 제작자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크리스 애플한스 감독과 함께 영화의 공동 연출을 맡은 것은 바로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 강(Maggie Kang·강민지) 감독이었다. 두 감독은 이 영화가 '한국 배경'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영화의 디지털 작업을 담당한 이미지웍스는 모든 부서에 한국인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별도의 한국 위원회가 '문화적 진정성'을 검토하는 등 '한국'이라는 중심 배경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유지하도록 제작진 모두가 힘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이렇게 문화적으로 온전히 한국적인 영화가 미국 회사에 의해서 제작된다는 사실은 한국 문화가 가진 강력한 힘을 나타내주는 증거"라던 매기 강 감독의 자부심과 함께 빛을 발했다.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우리의 '혼문'

'헌트릭스'의 공연이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생기는 '혼문'은 사악한 것들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현실에도 '혼문'과 비슷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결속시키는 '문화의 힘'일 것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과연 어떠한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고 왔을까?

먼저, 영화를 통해 '서울'이라는 도시가 사람들에게 색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영화 속 배경으로 등장한 서울의 명소들을 관광객들이 이른바 '성지순례'하며 서울을 관광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명소로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K팝 광장과 3D 전광판 등이 있으며, 특히 초대형 3D 전광판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관광객들이 많다. 또한, 영화의 메인 주인공인 '루미'와 '진우'가 데이트를 즐겼던 낙산공원도 팬들에게 하나의 명소가 되었다.

두 번째로, 영화로 인해 한국 전통문화에 이목이 쏠리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났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개관 이후 처음으로 올해 관람객이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로 인한 '박물관 굿즈'를 의미하는 '뮷즈' 판매량의 급증이다. 올해 8월 기준, 박물관 내 기념품점을 비롯한 카페와 음식점 등의 카드 결제 고객이 1년 전에 비해 161% 늘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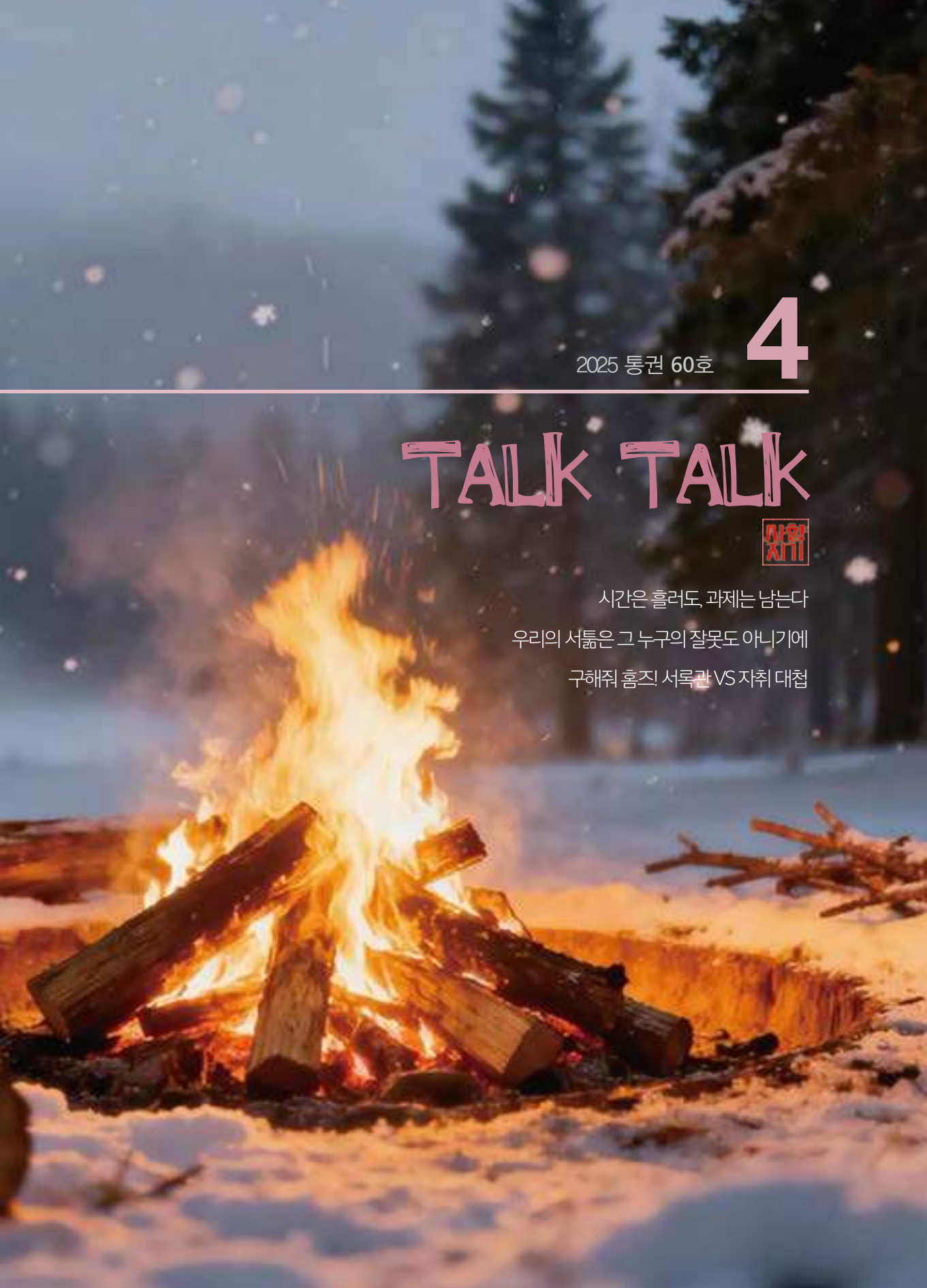
이렇듯 '케데헌' 열풍으로 힘을 얻은 K-컬처는 세계 시장 속에서 점차 그 위상이 드러나는 듯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K-컬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떠오르기도 한다. 영화에 한국의 문화를 고스란히 담아낸 덕에 세계인들이 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의 K-컬처 또한 세계 속으로 나아가되 그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You're my soda pop, My little soda pop ~

어깨를 들썩거리게 하는 'Soda Pop' 노래 가사처럼 전 세계에 활력을 불어넣은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2025년 현재, 이 영화의 인기 속에서 K-컬처가 나아갈 방향을 엿본 것 같기도 하다. 영화의 열풍이 오래 지속되길 기원하며, 영화 속 다양한 이야기들을 사향인들도 만나보길 바란다.



TALK TALK



2025 통권 60호

4

TALK TALK

사회자

시간은 흘러도, 과제는 남는다

우리의 서툶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에

구해줘 홈즈! 서록관 VS 자취 대첩

시간은 흘러도, 과제는 남는다

편집위원 이서영

"~.... 따라서 이번 시간 과제는 OO입니다."
"이번 주는 oo 제출이고 VV는 다음 주까지 제출이네."
수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 과제. 사향인 여러분은 평소 '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제를 하며 '단지 제출로 끝내기엔 아깝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는 사향인이라면, 환영합니다!



저 과제인데요, 문제 있어요?

매번 우리를 힘들게 했던 과제지만 본래 목적은 평가 요소만이 아니다. 실제 「초중등교육법」에서 과제의 목적을 찾아볼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학업, 진로, 인격 형성 등 학생의 생활 전반에 관한 조언, 상담, 주의, 훈육 · 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외에도 과제는 학생이 학습 내용을 심화하고 스스로 자신의 성취 정도를 점검하도록 돕는다. 이렇듯 과제는 학생이 교육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로써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그림일기와 학습지 풀기 등의 과제가 요즘은 그저 추억 한 편에 자리 잡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부여되는 과제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 속 '학습'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되고 '평가'로써의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느끼기 쉽다. 학습 도구로써 보충보다 '제출'과 '평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이는 자연스레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에도 기여한다.

오늘만을 위해 묵혔다…. 과제 대방출

제출과 평가가 주안점이 된 뒤바뀐 흐름 속 과제의 본 목적을 상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준비했다! 매 순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만들었던 과제들…. 단순히 제출 버튼 클릭으로 끝내기에 아까운 사향인들의 다양한 과제를 이곳에 모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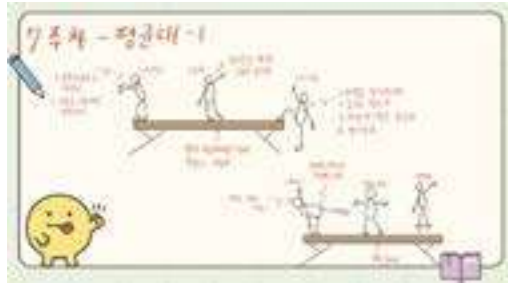


제 1회 사향 과제 전시회



#체육 부문 **1학년 1학기 체육실기지도1(체조)**





24학번 곽곽이

"매주 체조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피드백을 정리하여 나만의 11주간의 체조 교과서를 만드는 과제입니다.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예비 교사로서 나만의 체조 교과서를 만드는 과제가 그 자체로 의미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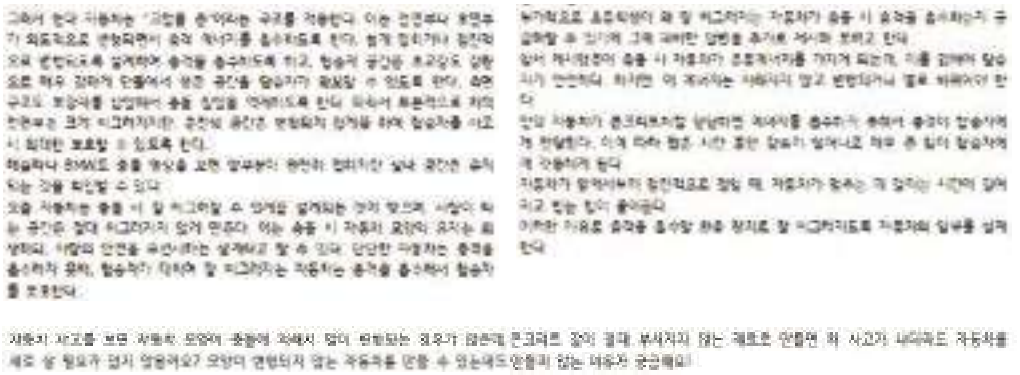
#디지털 부문 **2학년 2학기 수학의 본질**



여지수

"수학의 본질 수업 시간 발표 PPT 일부입니다. 수학의 역사적 측면을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발표 내용을 구성하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습지 부문 물리학 한글날 과제



베리

"초등학생이 할만한 물리 질문을 적어보고 그에 맞는 답변을 쓰는 과제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실제로 흥미를 느낄만한 주제 선정과 내용이 창의적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습 부문 3학년 1학기 실습 자료

최하연

"실습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사용했던 교수 자료입니다. 피피티를 잘 만들었다는 평가와 지도교사님께서 제 얼굴이 나오는 부분을 보시고 좋아하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습니다."

#실기 부문 2학년 1학기 창의융합실기, 3학년 2학기 가정생활과 융합교육

익명1

"스토리가 있는 상상의 동물 그리기, 지속 가능한 밥상 차림 과제입니다. 신들의 저주로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던 메두사가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를 사용한 비건 상차림을 표현했고, 김치까지도 비건 버전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독창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학년 2학기 융복합조형실기



익명2

"데칼코마니와 조각들의 콜라주로 만든 동물의 형상을 입체로 구현하는 과제입니다. 만들 땐 막막했는데 만들고 나니 그림 속 토템이 정말 입체 조형물로 튀어나온 것 같아 즐거웠던 수업이었습니다."

박선우

"시간의 융복합이라는 주제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교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어지는 시간과 성장을 표현하며, 관객에게도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겹쳐 미래를 형성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향 과제 전시회 신청 해주신 사향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시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Coming soon…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교실 현장 속 과제는 저마다의 모양으로 교육에 녹아들어 있다. 예비교사로서 과제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더불어 이번 첫 번째 '사향 과제 전시회'가 다양한 아이디어의 장이 되었길 바란다.

우리의 서툶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에

편집위원 김민소
수습위원 김지윤

누구나 한 번쯤 얼굴이 화끈거리는 실수나 가슴 아픈 실패를 겪습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음을 깨닫지만, 그 서투름 속에서 우리는 분명 무언가를 배우고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서투름이란?

1. 일 따위에 익숙하지 못하여 다루기에 설다
2. 전에 만난 적이 없어 어색하다
3. 앞뒤를 재어 보는 세심함이 없이 섣부르다
4. 생각이나 감정 따위가 어색하고 서먹서먹하다

'서투름'은 무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세계와 부딪히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처음이라서, 잘하고 싶어서, 그리고 아직 배우는 중이라서 겪는 이 마찰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완벽을 중시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서투름'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 보려 합니다.

서투르면 안 될까요?

우리 사회에서 실패의 경험은 흔히 '낙오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형성합니다. 카이스트 실패연구소의 설문 조사에서도 '한국 사회는 한 번 실패하면 낙오자로 인식된다.'라는 문구에 58% 이상의 응답자가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서투름은 '익숙하지 않음'이라는 본래 의미를 가지기도 전에 사회적 평가의 대상이 되며, 학습과 성장의 과정이 아니라 실패라는 낙인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서투름'으로 인한 실패는 성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두려운 이유는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문화적 조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나이대에 특정 과업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적 시계'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단주의[1]적 관계망 속에서 더욱 강화됩니다.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관계적 자아'가 두드러지는 문화에서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곧 자기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다시 서툰 모습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서투름 이야기

누구나 한 번쯤 '내 실패를 타인이 규정하는 사회' 속에서 완벽을 향하고 싶은 마음을 품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툴렀기에 아플 수 있었고, 실패했기에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실패를 꺼내 놓은 다섯 사향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서툴렀던 과거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합니다.

1) 각 개인끼리 모여서 상호 협력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회학적 원리이자 집단을 우선시하는 사상. 반대어는 개인주의다.

Q. 나의 서투름으로 인해 발생한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 경험은 무엇인가요?

완벽주의 예비쌤 나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수업을 구상할 때 세세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교생실습 중 예상치 못한 학생들의 반응에 대처하지 못해 수업을 망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낭만 알바생 아르바이트 중 와인잔을 깬 적이 있습니다. 동료는 두꺼운 맥주잔을 깼는데, 저는 더 비싼 와인잔을 깨서 더 민망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신중한 모험가 항상 안전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깥에서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위험한 사람을 만나 정말 '큰 코를 다친' 경험을 했습니다.

오뚝이 재수생 학업에 소홀해 결국 재수를 하게 된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입니다.

철벽 거절왕 서울에 혼자 놀러 갔다가, 팝업스토어 근처에서 휴대폰 액정 교체를 홍보하던 직원에게 계속 붙잡혔습니다. 거절하지 못해 따라갔다가 결국 휴대폰을 갑자기 바꾸게 되는 바보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Q. 그때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완벽주의 예비쌤 자가 피드백을 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극복했습니다.

낭만 알바생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으며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신중한 모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오뚝이 재수생 가족과 친구들의 정서적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철벽 거절왕 주변의 조언을 들으며 다시는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Q. 실패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완벽주의 예비쌤 그 이후로는 수업 준비를 할 때 돌발 상황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발문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준비합니다. 머릿속으로 학생들의 반응을 충분히 시뮬레이션합니다.

낭만 알바생 이병률 시집 『바다는 잘 있습니다』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당신만은, 방에서 나와 더 절망하기를 바랍니다. 오래 전하지 못한 안부를 전합니다. 바다는 잘 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 실패는 다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깊이 느꼈습니다.

신중한 모험가 안일한 생각은 좋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상황일수록 더 경계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중요한 태도를 배웠습니다.

오뚝이 재수생 실패를 극복하면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정신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철벽 거절왕 이후로는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성공을 거둬야만 실패가 의미 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투름을 통해 더 신중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 충분히 값지기 때문입니다.

Q. 나에게 '서투름'이란?

완벽주의 예비쌤 **"처음에는 용서될 수 있는 실수이자, 성장을 위한 부끄러움"**

처음에는 용서될 수 있는 실수이자,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낭만 알바생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는 긍정적인 핑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긍정적인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서툴렀기에 그랬다"라고 말하며 오늘도 다시 살아갑니다.

신중한 모험가 **"판단력의 부재, 그리고 아픈 예방주사"**

인지 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미숙함이며, 앞으로 더 신중해질 수 있게 해주는 예방주사 같은 존재라고 느낍니다.

오뚝이 재수생 **"성공으로 가기 위한 확실한 신호"**

실패로 시작되는 성공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철벽 거절왕 **"어른이 되기 위한 성장통"**

서투름 때문에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 경험 덕분에 더 빨리 어른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소 기자

"나를 걷게 하는 동력"

우리는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잘 닦인 길을 만나기도 하고, 모나고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서투름은 마치 거친 길 위에 서 있는 순간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덜컹거림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길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 길을 딛고 묵묵히 걸어온 거리야말로 나를 설명하는 진정한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지윤 기자

"그 자체로 유의미한 한 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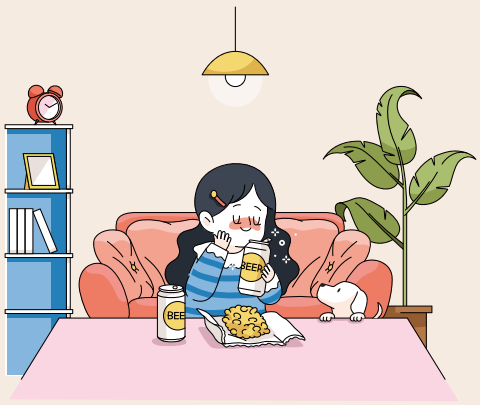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처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투름은 미숙했던 우리를 다독여주고, 더 나은 자신으로 이끕니다. 앞서간 이들이 있다고 하여 뒤처진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서툴렀던 과거는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딛었다는 방증이자 현재와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사향인에게 '서투름'이란 무엇인가요? 오늘의 실수가, 지금의 막막함이 부끄러워 숨고 싶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서투름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진정한 '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구해줘 홈즈! 서록관 VS 자취 대첩

편집위원 홍혜정

부모님이 이사를 하게 되어, 서록관과 자취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사슴이. 기숙사에 거주 중인 서록이와 자취하고 있는 청람이는 서로 자신의 거주 방법이 더 좋다며 사슴이를 설득하는데…. 사슴이의 고민은 나날이 깊어져만 간다. 내 집은 어디 있을까? 구해줘 홈즈!





서록관 대표, 서록이

서록관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서록관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선 안전하고 값이 저렴하기 때문이야. 또한 기숙사에 살면 운영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생활 복지도 정말 좋아. 독서실, 인터넷 카페 등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시험 기간에 큰 도움이 되고, 체력 단련실이 있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학교 안에 있다는 것이지! 통학하는 친구들보다 잠을 더 잘 수 있고 수업에 늦을 걱정도 없어.

서록관! 이 점은 조금 불편해

누군가와 같이 살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고, 룸메이트와 생활 방식이 잘 맞지 않아 힘들 때도 있어.

1관

쓰레기장이 24시간 운영되면 좋겠어. 쓰레기장 운영시간이 한정적이라 문이 닫히면 쓰레기를 버릴 수 없어 불편해. 또 세면대가 있는 부분은 단차가 없어, 물이 쉽게 고이기 때문에 방 안에도 물이 들어올 때가 있어.

2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이 낡아 불편할 때가 있어. 또 옷장이 작아서 겨울이 되면 옷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어.

서록이가 추천하는 나만의 기숙사 생활 꿀팁

청소	화장실은 세정제를 이용하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 바닥 청소에는 테이프 클리너를 쓰면 좋아. 바닥을 밀고 테이프에 붙은 먼지와 머리카락은 떼서 버리면 바닥이 깨끗해져. 신발장에는 냄새 제거제를 놓으면 신발 냄새도 나지 않고 관리가 쉬워.
수납	옷장과 수납공간이 작은 2관의 경우 '트롤리'를 추천해. 아니면 캐리어를 이용해 봐. 옷을 캐리어에 넣어 책상 밑에 보관하면 옷장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야. 1관의 경우 신발장이 2관보다 조금 작은데, 신발장은 설치식으로 사면 냉장고 앞에 두기 딱 좋아.
기타	택배를 시킬 때 호실을 주소에 적어두면 비교적 확실하게 내 택배를 찾을 수 있어. 또 가끔 침대 매트리스가 딱딱해 잠을 설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침대 토퍼를 사면 푹신하게 잠을 잘 수 있지.

서록 서포터즈 인터뷰

서록관에는 서록관의 행사를 담당하는 '서록 서포터즈'가 존재한다. 서록 서포터즈는 무엇이고, 서록관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록 서포터즈장인 **허민지 학생**을 만나보았다.

자기소개 및 서록 서포터즈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록 서포터즈 팀장 허민지입니다. 서록 서포터즈는 작년 12월 처음 선발되어, 올해 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저 포함 4명의 팀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록 서포터즈에 지원하게 된 계기와 가장 매력적으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학교 일을 한 번 해 보고 싶었지만, 학생회는 너무 본격적이라서 망설이던 제게 서포터즈는 '부담도 크지 않으면서 돈도 버는' 아주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학교에서 의미 있는 일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것이 서포터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서록 서포터즈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서포터즈는 크게 4가지 활동을 합니다.

공동구매	공동구매 행사는 수시로 진행합니다. 라면, 햇반, 김, 휴지 등 필수품을 단체로 구매하여 개별로 사는 금액보다 천 원 정도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림제/ 잇츠마켓	1학기에는 열림제를 진행합니다. 열림제는 기숙사를 외부인에게 오픈하는 행사입니다. 2학기에는 '잇츠마켓'이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잇츠마켓은 겨울 간식과 함께 재사생들의 플리마켓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	서록1관과 2관 택배보관함과 공용공간 등을 청소하며 벌점을 상점으로 전환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서록관 행사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입사 환영 행사, 신입생 환영회, 임용 고시 응원 행사, 아이스크림 행사 등 다양한 서록관 행사를 기획하고 총괄합니다.

서포터즈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보람 있었던 순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올해 2학기 기숙사 입사 환영 행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팀원들끼리 700개 가까운 물품에 하나하나 스티커를 붙이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생들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사생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힘들었던 것이 다 사라질 정도로 보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서록 서포터즈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서록 서포터즈는 사생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팀이니만큼, 사생들이 서포터즈 덕분에 기숙사 생활이 즐겁다고 해주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자취 대표, 청람이

자취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자취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타인의 눈치를 보는 성향이 강했기 때문이야. 기숙사에 거주해 보니 온전히 쉬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꼭 필요해서 자취를 선택하게 되었어. 또한 기숙사 짐 넣고 빼는 것과 중간중간 관리하러 들어오시는 모든 것이 나의 성향과 맞지 않았어. 자취를 하니 프라이버시도 확보되고, 룸메와 안 맞는 생활 방식 때문에 스트레스받을 일도 없어졌어. 자취를 하니 요리해 먹기도 편하고, 인테리어하는 재미도 쏠쏠해.

자취! 이런 점은 조금 불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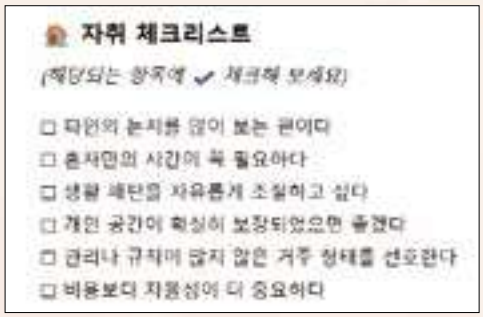
자취는 기숙사 생활에 비해 돈이 많이 들어서 절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 또 집안일 뿐만 아니라 전등 교체, 대형 가구 옮기기 등 힘이 많이 필요한 일은 혼자 하기 어려워. 식재료도 금방 상해서 처치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 마지막으로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면 벌레가 나왔을 때 힘들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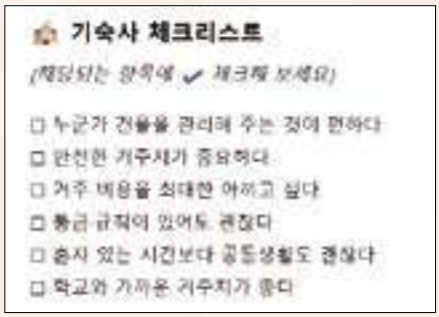
나만의 자취 꿀팁!

식재료	나는 식재료 보관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야. 식재료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겉포장을 다 뜯어서 개별 보관을 해두면 알뜰하게 쓸 수 있어. 또 식재료를 살 때에는 시장을 자주 가서 절약하는 편이야. 배달 음식을 먹으면 돈도 많이 들고,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1주일치 식재료를 사서 최대한 직접 요리해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
생활	음식을 먹고 나면, 설거지는 조금 있을 때 바로바로 해야 해.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 외출해서 옷 바로 걸기, 밥 먹고 바로 치우기, 2~3일에 한 번꼴로 분리수거 하기 등 일상을 루틴화・습관화하면 좋아.

사슴이는 어디로 가야 할까?

서록이와 청람이이 말을 듣고, 사슴이는 적합한 거주 형태를 생각해 보았다.





(출처: Chat GPT)

사슴이: 나는 타인의 눈치를 잘 보지 않고, 거주 비용을 아끼고 싶어.
그렇다면 나에게 적합한 거주 방법은...기숙사야!

기숙사에 입사하게 된 사슴이! 사슴이 뿐만 아니라 사향인 여러분도 각자의 사정으로 기숙사 입주와 자취 중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거주 형태도, 정답은 없다. 그저 나에게 조금 더 잘 맞는, 적합한 거주 방법을 선택해 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나의 집은 어디선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INFO



2025 통권 60호

5 INFO

펜과 칠판으로 지킨 나라

나는 예민한 사람일까? 'HSP'

거짓말하는 인간, 호모 팔락스

가을은 독서의 계절?

어제의 야구, 오늘의 야구

펜과 칠판으로 지킨 나라

편집위원 김인영
편집위원 손지후

2025년,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였다. 80년 전 우리 민족은 끝없는 노력 속에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다. 총과 칼로 싸운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지만, 이와 달리 펜과 칠판으로 나라를 지킨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로서 교육을 통해 민족의 자주성을 지켜 나가고자 했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독립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❶ 교육으로 나라를 일으키리라, 교육구국운동

대한제국 말기 1905년에 을사늑약에 의해 국권을 빼앗기자, 민족의 과제는 국권 회복에 집중되었다. 당시 국권회복운동은 장기간에 걸쳐 실력을 길러 빼앗긴 국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교육구국운동'과 국권을 빼앗긴 이상 물리적인 힘으로 결전하여 국권 회복을 하자는 '의병운동'으로 나뉘었다.

'교육구국운동'이란 교육을 통해서 민족을 주체로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 국권회복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운동이다. 교육구국운동은 1905년 이후 설립되기 시작한 각종 학회 등 애국계몽단체들의 활동을 통하여 전국으로 확산했다. 교육운동가들은 교육을 통해 민중을 각성시키고 인재를 양성하여 국력을 신장하는 것이 국권 회복을 위한 급선무임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기관지를 발행하거나 강습회·강연회 등을 진행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족의 자각을 고양시켰다. 이러한 민족교육열의 고조는 전국에 사립학교의 설립을 확산시켰으며, 그 속에서 수많은 교육운동가가 교육구국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❷ 가르침으로 나라를 세운 이름들

그렇다면 교육운동가들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었을까? 인영, 지후 기자가 선정한 인물은 총 넷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부터, 익숙하지는 않으나 중요한 업적을 남긴 인물, 여성 교육운동가, 그리고 가난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육운동을 이어 나간 인물들을 알아보자.

❶ 안창호

"그대는 매일 5분씩이라도 나라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안창호의 독립운동 사상의 핵심은 '힘'이었다. 이 '힘'은 무력이나 경제력, 실용적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적·사회적 의식까지 포함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교육운동을 이어갔다. 먼저, 안창호는 *대성학교*를 비롯한 세 개의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학교 설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쳐 **학교교육운동**을 주도하였다. 또한, 그는 *청년학우회*와 *태극서관* 등의 단체를 조직해 **사회교육운동**을 전개했다. 사회교육운동은 학교교육운동의 연장선으로써, 학생이 아닌 사람들도 학교라는 물리적인 공간 밖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인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안창호는 '인격 완성'을 교육의 최고 가치로 추구하였기 때문에 인간성 회복이 요구되는 현대교육에서 그의 교육사상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❷ 이종호

"교육 사업이라면 남에게 뒤질세라 무조건 달려들었다." - 매천 황현

이종호는 할아버지 이용익의 뒤를 이어 교육운동을 바탕으로 한 독립운동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그는 *보성전문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으며 2대 경영주로서 활동하였다.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보성전문학교에서 배움을 받는 자들이 **나라와 겨레를 이끌 독립과 자주를 이룩하도록 지원**한 이종호는 당시 보성전문학교를 통감부에 예속시키려고 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매천 황현 선생이 이종호가 "*교육 사업이라면 남에게 뒤질세라 무조건 달려들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종호는 *명천보성학교, 충북보성중학교, 사립둔포학교* 등 많은 학교를 세우거나 지원하였다. 이후 이종호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신민회*에 관여하고, 안창호와 함께 *대성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민족정신을 가르치기도 했다. 또한 *권업회*를 창립하고 *권업신문*을 발간하여 독립에 관한 소식을 알리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3 김마리아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했다."



김마리아는 어려서부터 독실한 기독교 정신과 항일정신이 몸에 밴 가정환경에서 태어났다. 집안 전체가 독립운동가였던 상황에서, 그녀는 근대적이고 선진적인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투철한 민족의식과 여성의식을 갖춘 인물로 성장했다. 그녀는 동경여자학원을 유학하던 시절, 잡지 『*여자계*』를 발행해 여성들의 사회의식과 항일의식을 일깨웠는데, 이는 3·1운동의 전국적 확산에도 기여했다. 김마리아는 이후 상해임시정부를 조직적으로 후원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결성하였는데 조직 내의 배신으로 인해 체포되어 온갖 고문을 견뎌냈다. 그녀는 일본 법정에서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했다."라고 외치며 굳건한 독립의 의지를 견지하였다. 이후 상해로 망명해 선진적인 서구의 교육에 전념하고 단결과 실력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 민족이 독립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4 이승훈

"씨앗은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제 힘으로 들치고 올라온다.
씨앗은 아무리 무거운 흙에 눌려도
그 흙을 들치고 올라와 싹을 틔울 힘을 가지고 있다."



이승훈은 생활고를 겪으며 자라 젊은 시절부터 장사를 해 대상인이 되었음에도, 전쟁 등을 거치며 재산을 모두 잃게 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승훈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지를 다지고 사업을 크게 일으키며 자수성가했다. 이승훈은 안창호의 교육 강연을 바탕으로, **민족의 실력 양성을 위해 교육 운동에 헌신**하겠다 마음먹었다. 특히, 그는 교육을 통해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오산학교를 설립하였다. 이승훈은 *오산학교*의

교장으로서 자신의 제자 중에서 나라를 빛내고 광복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물들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어린 학생들에게도 존댓말을 쓰며 대했다고 한다. 또한 서당을 재편하여 *강명의숙*을 설립하여, 산술, 역사, 지리, 체조 등의 신식 과목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이승훈은 한글 보급을 위한 *조선어학회* 활동에 전념하며 민족의 얼을 지키는 데 끊임없이 노력하기도 하였다.

❸ 교육이라는 광복의 씨앗을 뿌리다

앞서 소개한 네 명의 인물을 비롯한 수많은 교육운동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교육운동을 이어갔다. 가르친 내용과 방식은 저마다 달랐지만, 그들이 향한 곳은 하나였다. 쓰러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빼앗긴 국권을 되찾는 것. 그들에게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민족의 숨을 지키는 일이었고, 암울했던 시대 속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는 누구인가'를 다시 새기는 일**이었다. 학교의 교실은 그들이 지켜야 할 마지막 자리이자, 훗날 되찾을 나라를 미리 세워두는 자리였다.

그렇다면,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 내고자 했던 '교육'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당시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교과서의 문장을 읽게 하는 일이 아니었다. 바로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었다. 지식 몇 개를 더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되찾을 나라의 시민으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그토록 애썼던 것이다. 글을 읽고 쓰는 일은 민족의 언어를 지켜내는 저항이 되었고, 역사를 배우는 일은 잊혀가는 정체성을 되찾는 일이 되었다. 교실에서의 펜과 칠판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희미한 등불이 되어, 민족이 다시 걸어 나갈 길을 밝힌 것이다.

❹ 광복 80주년, 그날의 수업을 오늘로 이어서

광복 80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는 그날의 교실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국권을 되찾기 위한 울분 속의 배움은 민주주의와 공동체, 평화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늘의 교사는 무엇을 지켜야 하며, 학생들은 어떤 내일을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이 앞으로의 80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오늘의 교실은 교육운동가들이 꿈꾸던 미래 위에 서 있다. 총 대신 펜을 들고, 칠판 앞에 서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었던 이들의 삶은 역사 속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들이 붙들었던 '교육'의 의미만큼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그 모든 고귀한 이름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들의 신념만큼은 오늘의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한다. 우리 태도 속에 그 신념이 이어질 때, 교실은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우는 자리이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 사진 출처: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 참고 문헌: 한관일(2008). 대한제국 민간 사립학교의 교육구국운동에 관한 연구.
최진영(2010). 도산 안창호의 교육사상과 교육운동.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배항섭(2008). "한말 일제하 李鍾浩의 교육활동과 항일운동". 한국인물사연구.
유준기(2009). 김마리아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보훈논총.
서재복,김유화,최미나(2008). 남강 이승훈의 민족교육사상 연구. 인문과학연구.

나는 예민한 사람일까? 'HSP'

편집위원 배민영
수습위원 박지민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역치는 모두 다르다. 누군가는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리고, 미세한 변화에도 크게 반응한다. '예민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아마도 작은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예민함'은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먼저 읽힌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남들보다 예민하다는 것이 단지 단점으로만 남는 기질일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예민한 사람'은 심리학에서 HSP(Highly Sensitive Person)라고 불린다. 이는 1990년대 미국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가 연구를 통해 정립한 개념이다. HSP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5~20%가 타고나는 선천적인 기질로, 소리, 빛, 냄새와 같은 외부 자극뿐만 아니라 감정, 생각과 같은 내부 자극을 일반 사람보다 더 깊고 광범위하게 처리하는 신경 시스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카페 같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의 대화 소리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낯선 사람들과의 모임 이후에 피로감을 크게 느끼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일레인 박사는 이 기질을 연구해 DOES라는 4가지 특징을 제시했다.

1. *D: Depth of processing [깊이 있는 처리 과정]*
   다른 사람보다 어떤 정보나 자극을 접했을 때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분석하며 연결한다. 또한, 하나의 단순한 정보라도 과거 경험이나 다른 지식과 관련지어 처리하는 양상을 보인다. 단순한 정보에도 과도한 생각으로 결정이 지연되거나 우유부단해보일 수 있다.
2. *O: Overstimulation/Overarousal [과잉 자극/과부하]*
   항상 작은 정보에도 깊이 생각하는 성향의 사람은 많은 정보가 들어오거나 자극이 강한 환경에 속했을 때 신경계가 쉽게 과부화된다.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이는 위의 [D] 특성과도 연결되어 있다.
3. *E: Emotional Reactivity and Empathy [강한 감정 반응과 공감]*
   감정을 경험할 때 그 정도가 큰 HSP이다. 긍정적/부정적 감정 모두 깊이 느껴, 주변 사람의 기분이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감정 전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뛰어난 공감 능력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능력이지만 부정적인 감정에도 깊이 몰입한다면 쉽게 지치거나 정서적 고갈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다.
4. *S: Sensing to Subtle [미묘한 자극 감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즉 오감이 뛰어난 HSP이다. 단순히 냄새나 차이점에 그치는 것이 아닌 배경의 작은 소음, 미세한 냄새 변화 등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차이까지 감지해낸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작은 자극들이 언제나 크게 다가온다면 어떨까? 아마 일상에서 잦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HSP일까?

평소 사소한 변화나 자극에도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DOES 특성을 읽었을 때 '나도 HSP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아래의 자가 진단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성향을 점검해보자.

	HSP 자가 진단 테스트	*예*	*아니오*
1	타인의 기분을 잘 읽고, 그에 쉽게 영향을 받는 편이다.		
2	통증에 예민한 편이다.		
3	피곤할 때 신체적/정서적으로 불균형해지기 쉽다.		
4	주변의 미묘한 세부사항의 변화를 잘 인지한다.		
5	바쁜 날에는 사적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		
6	과도한 자극이 있는 미디어를 피하는 편이다.		
7	밝은 빛, 강한 냄새, 큰 소리 등에 쉽게 압도된다.		
8	풍부하고 복잡한 내면을 갖고 있다.		

	HSP 자가 진단 테스트	*예*	*아니오*
9	시끄럽거나 복잡한 장소에서 오래 머무르면 쉽게 지친다.		
10	예술이나 음악, 자연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		
11	쉽게 놀라거나 긴장한다.		
12	인생에 변화가 생기면 전반적인 일상이 흔들린다.		
13	과도한 경쟁이나 평가가 있는 환경에서 쉽게 위축된다.		
14	갈등 상황은 되도록 피하는 편이다.		
15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할 때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16	타인이 놓친 것을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17	날씨 변화나 환경의 작은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출처: 일레인 N. 아론의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

**일레인 아론 박사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항목입니다. 위 자가 진단 테스트는 질병 진단 목적이 아닌 자기 자신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한 과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만약 17개의 항목 중 11개 이상의 항목에 '예'라고 답했다면, HSP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예민하다. 즉, 레크레이션 시간이나 MT에서 남들보다 쉽게 지치고, 사소한 일이나 감정에도 마음이 복잡했던 경험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기질 때문이었던 것이다.

HSP, 약점이 아닌 강점

요즘은 '예민하다'는 말은 더 이상 부정적인 딱지로만 쓰이지 않는다. 오히려 예민함은 타인의 말과 행동이 어떤 파문을 남기는지 세심하게 헤아릴 줄 아는 감각에서 비롯된다. 예술·기획·교육 등 섬세함이 요구되는 많은 분야에서 HSP의 민감함은 탁월한 관찰력과 깊은 몰입력으로 이어진다. 남들이 스쳐 지나가는 디테일을 포착하고, 감정의 결을 정확히 읽어내며, 장면과 순간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는 결코 단점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또 하나의 재능이다.

예민함은 곧 섬세함이며, 섬세함은 깊이를 만들어낸다. 세상을 더 정교하게 보고, 타인의 감정을 더 온전히 받아들이며, 스스로의 내면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기질이다. 그래서 예민함은 감추어야 할 약점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창(窓)이다. 때로는 상처받기 쉽고 피로해지기도 하지만, 바로 그 민감함 덕분에 우리는 더 다채롭고 밀도 높은 삶을 경험한다. 예민함은 약함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깊이 느끼고 깊이 이해할 줄 아는 또 다른 형태의 강인함일지도 모른다.

HSP로 살아남기!

HSP는 지나치게 세심하고 공감 능력이 좋다 보니 때로는 스스로를 더 지치게 만들기도 한다.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자신의 감정을 눌러버리고, 사람들 틈에 오래 있으면 진이 빠지고,

작은 말도 마음에 콕 박히며, 머릿속에서 벌어진 가상의 대화로 한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이들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자기 마음을 돌보느라 분주하다. 너무 많이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오랫동안 담아 두기 때문이다.

모든 자극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HSP에게는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결국 '도망을 잘 치는 능력'이 으뜸인 셈이다.

TIP. HSP로 살아남기!

불필요한 자극 줄이기
조명·소리·냄새 등 감각 자극을 최소화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HSP의 회복력은 '자극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
부정적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면 에너지가 금세 소진된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법을 연습하자.

나만의 E-충전 루틴 만들기
예민한 사람은 자신만의 '행복 리스트'를 가지고 수시로 에너지를 충전해야 한다. 좋아하는 음악, 산책, 취미 활동 등은 감정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마음이 안전한 공간 만들기
심리학의 '해석 수준 이론'에 따르면, 물리적·심리적 거리두기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완화된다. 항상 돌아갈 수 있는 취미, 공간, 물건 같은 '나만의 안전기지'를 마련해 두자. (*해석 수준 이론: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 해석 수준의 관계를 설명하는 사회심리학)

3인칭 관점으로 자기 객관화하기
전문가들은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를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리두기 전략을 추천한다. "지금 ○○는 많이 지친 상태구나" 같은 자기 대화는 감정 과몰입을 예방한다.

과한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기
HSP의 뇌는 작은 일도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여 근육이 긴장하고 스트레스 반응이 크게 나타난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가 아니라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지'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세상의 소리에 쉽게 상처받고, 미세한 떨림에도 반응하는 사람들.
하지만 삶이란, 긴장과 피로 속에서도 꾸준히 나를 다잡으며 살아내는 일이기에 그 예민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속도로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지 않겠는가.

거짓말하는 인간, 호모 팔락스

편집위원 김도아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 크고 작은 거짓말을 주고받는다. 친구의 옷차림을 칭찬하기 위해,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해, 혹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이 없다면 인류는 절망과 지루함으로 죽어버릴 것이다", "지나친 정직은 인간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말처럼, 거짓말은 이미 인간 사회의 필수적인 한 축으로 존재한다. 거짓말의 다양한 모습과 의미를 탐구하며, 과연 '하얀 거짓말'은 무조건 옳지 않을지 거짓말의 의미를 찾아보자.



거짓말의 다양한 얼굴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가 지혜로운 인간이라면, '**호모 팔락스(Homo fallax)'는 거짓말하는 인간**이다. 인류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하고 소통하는 존재이지만, 그 언어 속에는 진실과 거짓을 동시에 구사하는 고도의 사회적 기술이 숨어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white lie)'이다. 친구의 새 머리스타일이 어색해도 "너무 예쁘다"고 말하고, 피곤하지만 "괜찮아"라고 답하는 순간, 우리는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가기 위해 작은 거짓을 택한다. 반면 허위 보도, 정치적 조작, 기업의 가짜 광고처럼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때로는 법적인 처벌로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거짓말은 그 크기와 의도에 따라 '사회적 윤활유'가 되기도, '도덕적 독'이 되기도 한다.

한편 심리학에서는 거짓말을 단순한 비도덕적 행위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이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defense mechanism)로 해석한다. 심리적 방어 기제로써의 거짓말은 갈등을 완화하고, 상처를 피하며, 자존감을 지키는 도구로 작용한다. 동아사이언스의 「거짓말 잘하는 비결」 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거짓말은 '의도적인 생략·과장·왜곡·회피'의 형태로 나타나며, 사회적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즉, 거짓말은 단순히 진실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가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언어 전략인 셈이다.

그렇다면 거짓말 능력은 타고나는 것일까, 아니면 자라면서 발달하는 것일까?'호모 팔락스'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마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하는 존재로 느껴진다. 하지만 거짓말은 **사회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이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어린 아이일수록 단순한 거짓말을 더 자주 하지만, 성장할수록 그 거짓말은 점점 정교해지고 전략적으로 변한다. 이는 **인지 능력의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실을 숨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즉, 기억력·주의력·자기통제력이 함께 작동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능력을 통틀어 '실행 기능(Executive Function)'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단순히 도덕적으로 불량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인지 발달의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아이가 타인의 생각을 추론하고, 사회적 규칙을 이해하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사고 능력이 자라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거짓말은 인지 발달의 그림자이자 성장의 부산물이다. 아이들은 단순히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용되는가'를 학습하며 세상과의 관계를 연습하는 것이다.



거짓말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논쟁

정치와 언론, 광고는 인간의 거짓말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공간이다. 정치인은 여론을 얻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고, 언론은 클릭 수를 위해 자극적으로 편집하며, 광고는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현실을 미화한다. 이러한 거짓말은 단순한 말의 왜곡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공동체의 기반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진실을 말하는 정직함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도 없다. 지나친 정직이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업 내부의 부패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는 '정의로운 폭로자'로 존경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집단 내부의 불신과 대립을 초래해 조직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또한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사실 전달'만을 명분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진실을 드러냈음에도 사회적 신뢰보다는 혐오와 분열을 키운 사례로 꼽힌다.

결국 진실의 폭로가 항상 정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진실을 말하는 방식과 시기,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사회의 준비 정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불편한 진실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정직함은 때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해칠 수 있다. 때로는 '말하지 않음'이라는 거짓말이 오히려 더 큰 진실을 지키는 선택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거짓말은 악인가, 필요악인가"라는 질문은 윤리학과 철학의 오래된 논쟁거리다. 칸트는 거짓말을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리주의자 벤담과 밀은 "더 큰 행복을 위한 거짓말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늘날에도 "목적이 선하다면 수단으로서의 거짓말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실용주의적 관점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결국 거짓말의 도덕성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의도와 결과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현대인의 삶 속 거짓말의 활용

이처럼 거짓말은 도덕적 논쟁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필수적인 언어로 남아 있다. 현대 사회는 진실만으로는 버텨내기 어려운 복잡한 관계와 상황들로 가득하다. SNS 속 꾸며진 이미지, 회의 자리의 완곡한 표현, '괜찮다'라는 자동화된 인사까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작은 거짓말'을 하며 하루를 살아간다. 이 거짓말들은 대부분 누군가를 속이려는 악의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특히 일상 대화 속 거짓말은 일종의 사회적 윤활유로 기능한다. 하얀 거짓말은 상대에게 자신감을 주고, 유머로 던진 과장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다. 때로는 위로의 거짓말이 진실보다 더 따뜻한 힘을 가진다. "다 잘될 거야",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들은 진실의 정확함보다는 공감과 위로의 진심이 중요하다. 이처럼

거짓말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는 사회적 완충재 역할을 한다.

하지만 거짓말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관계를 위해 사용하던 작은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언젠가 진실을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 사용하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기준이다. 건강한 거짓말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도를 점검하는 것. 이 거짓말이 상대를 위한 배려인지, 아니면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변명인지 구분해야 한다.

둘째, 결과를 예측하는 것. 이 거짓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돌아봐야 한다.

셋째, 정직을 대체하지 말 것. 거짓말은 일시적인 관계의 완충제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힘은 결국 진심과 신뢰에서 나온다.

결국 거짓말은 인간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필요한 허구'다. 진실과 거짓 사이의 회색지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며 살아간다.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피하는 완벽함이 아니라, 거짓말을 자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함이다. 그 성찰의 순간이 거짓말하는 인간 '호모 팔락스'를 조금 더 지혜로운 존재로 만든다.

거짓말은 인간이 가진 결함이자 동시에 사회를 지탱하는 도구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전면적으로 배척하거나 무조건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의도와 결과로 사용되는지 성찰하는 태도다. 이번 기사를 통해 거짓말과 정직의 경계를 다시금 고민하고, 일상에서 보다 성숙한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

편집위원 김도아



'가을은 독서의 계절'!? 지금의 우리에게 선선한 날씨에 책 읽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이 표현은 20세기 중반 출판업계가 책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낸 마케팅 문구이다. 마치 빼빼로데이나 화이트데이가 특정 기업의 판매 전략으로 정착했듯, 우리의 일상 속 계절과 기념일에는 교묘히 스며든 마케팅이 숨어 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이러한 '시즌 마케팅'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가 당연시하는 문화 속에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지 짚어보자.

가을에 정말 책을 더 읽을까?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문구는 일본의 1960년대 출판업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당시 출판사들은 여름 휴가철 이후 침체된 책 판매를 회복하기 위해 '선선한 가을,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는 문구를 내세웠고, 이는 곧 한국에도 전해져 광고와 캠페인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학교, 도서관, 공공기관에서도 이 표현을 차용하며 '가을 = 독서'라는 이미지는 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은 가을에 책을 더 많이 읽을까? 통계청의 독서 관련 조사에 따르면, 계절에 따른 독서율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유행한 이후에도 연평균 독서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결국 "가을엔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말은 현실의 독서 습관과 관련 없이 출판사들이 만들어낸 계절 마케팅의 결과물에 가깝다.

이렇듯 마케팅은 '계절 = 특정 활동'이라는 고정관념을 만들어낸다. 봄엔 새 학기, 여름엔 휴가, 가을엔 독서, 겨울엔 연말 소비처럼 특정 계절에 어울리는 행동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상품이나 이벤트를 내놓는다. 이렇게 반복되는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들은 마치 스스로 선택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기획된 소비 패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데이 마케팅과 시즌 마케팅의 확장

'가을=독서'처럼 특정 시기와 이미지를 결합한 전략은 '데이 마케팅'으로 더 넓게 퍼져 있다. 대표적인 예가 빼빼로데이(11월 11일)다. 1990년대 중반부터 알려진 이 기념일은, 막대 과자 모양이 숫자 1과 닮았다는 점을 활용해 '11·11 = 빼빼로를 주고받는 날'이라는 상징을 만들었다. 이후 제과업계가 대대적인 광고와 프로모션을 붙이며 전국적인 '선물 데이'로 키워냈다. 오늘날에는 연인·친구에게 과자를 선물하는 문화뿐 아니라, 한정 패키지와 콜라보 굿즈가 쏟아지는 연례 대형 판촉 이벤트가 되었다.

화이트데이(3월 14일)도 마찬가지다. 일본 제과업계가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받은 남성이 사탕으로 답례하도록 만들면서 시작된, 전형적인 상술형 기념일이다. 이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로 확산되며 '발렌타인=여성이 초콜릿을 주는 날, 화이트데이=남성이 사탕·선물을 주는 날'이라는 공식이 굳어졌다. 사랑을 기념하는 전통이라기보다, 제과업계가 설계한 마케팅 기념일이 일상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

계절을 활용한 시즌 마케팅은 더 다양한 업종으로 확장된다. 카페 브랜드는 매년 봄마다 벚꽃 콘셉트 음료와 MD를 내놓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머그·텀블러·디저트 등 '홀리데이 에디션'을 선보인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정기간 출시되는 시즌성 메뉴'와 시즌 MD를 별도 구분해 소개할 정도로 계절 한정 상품을 중요한 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벚꽃·신년·크리스마스 MD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희귀템'으로 재거래되기도 한다.

편의점 업계도 계절과 건강 트렌드를 묶은 시즌 마케팅을 펼친다. GS25는 2025년 여름, '우리동네

편스장(편의점+헬스장)' 캠페인을 내세워 단백질·저당·저칼로리 간편식 200여 종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6~8월 세 달간 진행했다. 여름철 다이어트·운동 열풍을 노리고, "운동 전·중·후에 편의점에서 건강 간식을 챙기자"라는 단계별 제안을 붙여 '여름=몸 만들기=편의점 건강식 구매'라는 소비 패턴을 설계한 것이다.

결국 이런 데이·시즌 마케팅은 '날짜/계절 - 감정 - 상품'을 연결하는 장치다. 11월 11일에는 빼빼로, 3월 14일엔 사탕, 봄엔 벚꽃 굿즈, 여름엔 다이어트 식품, 가을엔 책과 굿즈, 겨울엔 크리스마스 한정판처럼, 마케팅은 특정 시기를 떠올릴 때 자동으로 함께 생각나는 상품을 심어 놓는다. 소비자는 마치 스스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이미 계절과 기념일에 맞춰 기획된 시간표형 소비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우리 생활 속 시즌 마케팅의 현재와 미래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슬로건은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는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해 전국 공공·작은도서관, 지역 서점과 함께 독서문화 행사를 연다. 국립중앙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은 강연, 작가와의 만남, 독서 축제 등을 열고, 포항·김포 등지에서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같은 대형 행사도 진행된다. 민간 서점·플랫폼도 여기에 적극 참여한다. 교보문고는 독자 유형 테스트나 '가을 특집' 기획전을 열어 특정 테마 도서를 묶어 판매하고, 예스24는 북토크·야외 북크닉 행사 등을 통해 가을 이미지를 '책과 함께 보내야 할 계절'로 강화한다. 전자책·오디오북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윌라 등은 독서 챌린지, 퀴즈 이벤트, 출석 체크 미션을 통해 참여하면 굿즈·쿠폰을 받는 구조를 만들며, 자연스럽게 정기 결제와 사용 시간을 늘린다.



SNS 시대의 시즌 마케팅은 한층 더 개인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인스타그램·틱톡에는 '#독서의계절, #가을책장' 같은 해시태그가 넘쳐난다. 카페의 시즌 음료와 굿즈, 서점의 가을 도서 전시, 독서 인증 사진이 타임라인을 채우면서,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나도 가을이니 책 한 권쯤, 시즌 음료 한 잔쯤은 해야 할 것 같은" 심리를 느끼게 된다. 여기에는 실제로 한정판 굿즈, 시즌 전용 포토존, 참여형 챌린지가 결합해, '소비=참여'라는 공식을 강화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즌 마케팅 속에서 어떻게 휘둘리지 않는 소비자가 될 수 있을까?

1. '계절 감성'과 '실제 필요'를 분리하기

"가을이니까 책을 사야 한다", "벚꽃 시즌이니까 텀블러를 하나 사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정말 지금 필요한지, 이미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점검해 본다.

2. '한정판'에 대한 불안 감정 들여다보기

시즌 굿즈는 매년, 때로는 비슷한 디자인으로 반복 출시된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이건 내 취향인지, 아니면 FOMO(놓칠까 두려운 마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3. 참여 방식 바꾸기

가을 독서 캠페인을 즐기고 싶다면, 꼭 새 책을 사지 않아도 된다. 도서관 대출, 전자도서관·온책방 서비스, 중고서점·책 교환 모임 등 비소비형 참여 방식을 활용해도 충분히 '독서의 계절'을 누릴 수 있다.

4. 나만의 '시즌 루틴' 만들기

마케팅이 제안하는 루틴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을엔 한 달에 시집 1권 읽기", "겨울엔 친구와 북토크 1번 하기"처럼 돈보다 경험 중심의 계절 목표를 스스로 설계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시즌 마케팅은 앞으로도 더 정교해질 것이다. 날씨 데이터, 소비 이력, SNS 활동까지 분석해 "이 사람에게 이 계절엔 어떤 상품을 보여줄지"를 결정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케팅을 아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문구를 떠올릴 때, 이제 우리는 단지 책 한 권을 떠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뒤에 놓인 기획과 전략까지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위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소비만이, 진짜 나다운 계절을 만들어 줄 것이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문구는 단순한 계절적 수사가 아니라, 출판업계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만들어진 계절의 고정관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마케팅이 일상 속에 스며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이를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향인들이 시즌 마케팅의 숨은 의도를 돌아보고, 나아가 진정한 독서의 의미를 되새기며 책과 함께하는 가을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어제의 야구, 오늘의 야구

편집위원 김인영

지금은 야구의 시대다. 무엇보다 관중 수가 말해준다. 2024년 *KBO는 사상 첫 1,000만 관중을 달성한 데에 이어, 2025년에는 **포스트 시즌을 남긴 채 정규 시즌만으로 1,200만 관중을 돌파하는 등 그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로 치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기 급상승의 이유 중 하나로 각 구단별 캐릭터 콜라보레이션과 다양한 굿즈들의 등장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해진 마케팅 전략뿐 아니라, ABS 시스템 등의 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공정성과 정확성까지 더한 오늘의 야구에 대해 알아보자.

* KBO (Korea Baseball Organization): 한국야구위원회
** 포스트 시즌: 정규 리그가 종료된 후 최종 우승팀을 가려내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경기.



야구도 귀엽게 보자_캐릭터 콜라보레이션

기존 야구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각 구단의 마케팅 경쟁이 한창이다. 그중 유독 눈길을 끄는 캐릭터와 구단의 콜라보레이션을 살펴보자.

기존 인기 캐릭터 주로 만화에 등장하는 인기 캐릭터들이 콜라보를 많이 진행한다. 롯데 자이언츠의 '짱구'와 '포켓몬',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의 '티니핑'이 있다.




롯데 자이언츠 x 짱구, 포켓몬
(출처: 롯데 자이언츠 인스타그램 (@busanlottegiants))



기아 타이거즈 x 티니핑
(출처: 기아 타이거즈 인스타그램 (@always_kia_tigers))

SNS 유명 캐릭터 SNS를 통해 인기가 많아진 캐릭터들과의 콜라보도 있다. '마루는 강쥐'와 LG 트윈스의 콜라보, '망그러진 곰'과 두산 베어스의 콜라보가 대표적이다.



LG 트윈스 x 마루는 강쥐
(출처: LG 트윈스 인스타그램 (@lgtwinsbaseballclub))



두산 베어스 x 망그러진 곰
(출처: 두산 베어스 인스타그램 (@doosanbears.1982))

지역 공식 캐릭터

지역 공식 캐릭터와 콜라보를 진행한 구단도 있다. 바로 대전의 '꿈돌이'와 한화 이글스의 콜라보다.



한화 이글스 x 꿈돌이
(출처: 한화 이글스 인스타그램 (@hanwhaeagles_soori))

번외

제빵 회사 '삼립'에서는 KBO와 콜라보를 진행하여 '크보빵'을 출시했다. 빵과 함께 각 구단의 마스코트 스티커가 들어있어 큰 인기를 얻었다.



KBO x 삼립
(출처: KBO 공식 인스타그램 (@kbo.official))

응원도 패션이다!_굿즈 전성시대

10개 구단과 캐릭터 콜라보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새로운 굿즈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굿즈로는 각 구단만의 유니폼과 응원봉이 있다. 머리띠, 슬로건 수건 등 야구장에서 응원 용품으로 사용하는 굿즈뿐 아니라, 각 구단에서 출시하는 볼캡과 티셔츠, 바람막이 등은 야구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하고 있다.

새로운 굿즈로 떠오른 '**짐색**'은 업사이클링의 일환으로, '안 쓰는 야구 유니폼 짐색으로 제작하기'라는 컨텐츠가 유행하면서 등장했다. '짐색'은 체육관(gym)과 가방(sack)이 합쳐진 용어로, 운동화 등의 간단한 스포츠 용품을 넣고 다니는 천 주머니 형태의 가방을 의미한다. 야구 팬들은 유니폼을 활용해 만든 짐색에 응원 도구와 소지품을 넣어 다닌다. 짐색이 유행하면서 짐색으로 제작하기 위해 새 유니폼을 구매하는 팬들이 생길 정도였다. 그러자 각 구단에서는 공식 짐색을 출시하기 시작했고, 이제 짐색은 캐릭터 콜라보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표 굿즈 중 하나가 되었다.

그렇다면 캐릭터 콜라보가 활발해지기 전, 야구장의 응원 문화는 어땠을까? 인영 기자는 어렸을 적 가족들과 야구장에 갈 때, 주황색 비닐봉지에 바람을 넣어 머리띠처럼 쓰고 부산의 연고지 팀인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했다. 이 주황색 비닐봉지는 원래 쓰레기를 담아가라는 용도로 구단 측에서 팬들에게 나눠주던 것이었는데, 이를 팬들이 머리에 쓰기 시작하면서 사직 야구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부산 사투리로 일명 '**봉다리 응원**'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정도였다. 하지만 부산시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롯데는 2020년부터 주황색 비닐봉지 제공을 중단했다. 이후 '짝짝이'로 불리는 응원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환경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변화지만, 사직구장 명물이었던 '주황 봉다리'가 사라진 것은 여전히 아쉽다.



짐색
(출처: 롯데 자이언츠 온라인 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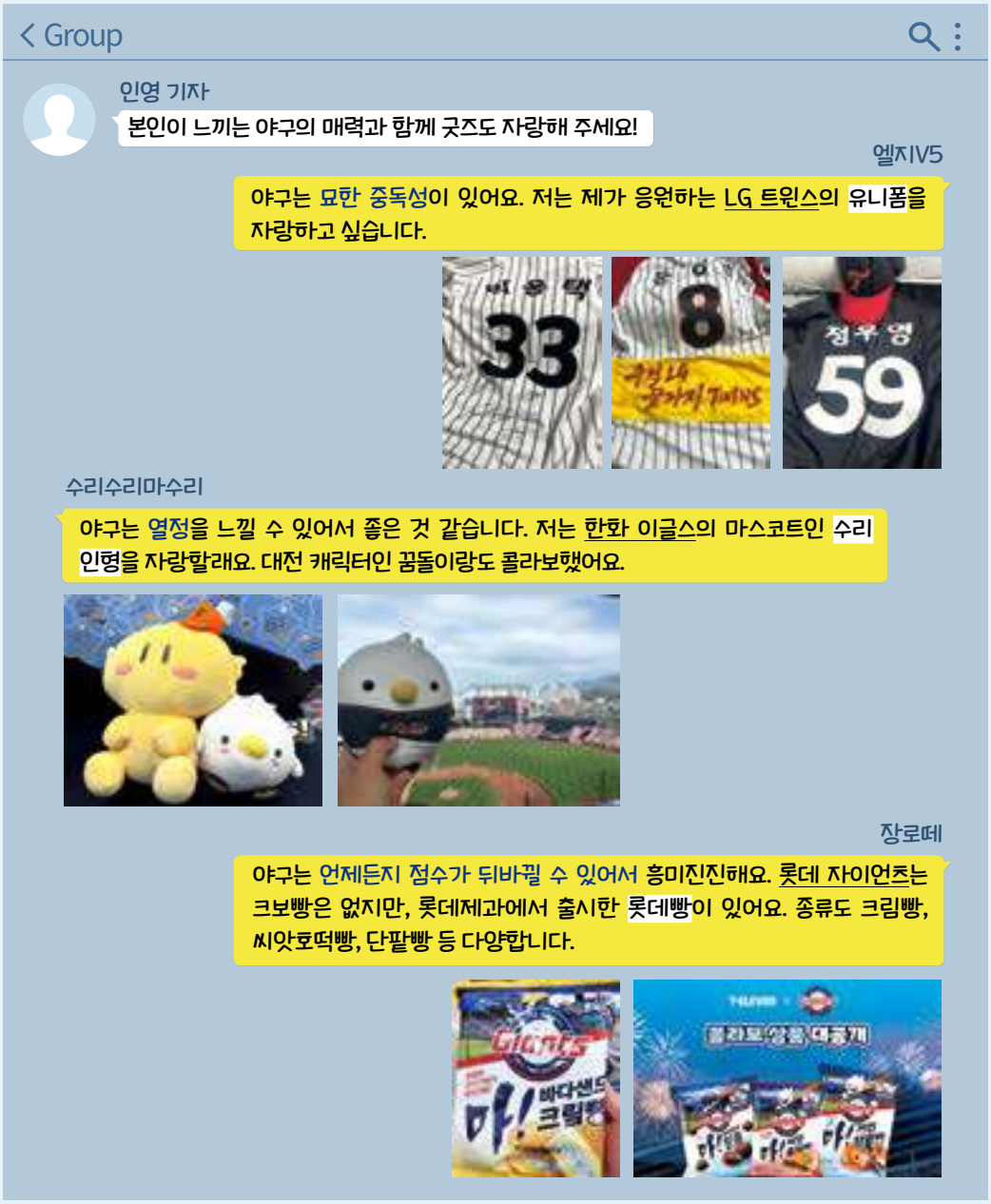




롯데 자이언츠의 '주황 봉다리 응원'
(출처: 부산 롯데 호텔 공식 블로그)

사향인의 야구 굿즈 자랑 대회

저희 구단 굿즈 좀 봐주세요.. 다양한 구단 팬들이 모여있는 서울교대. 그래서 인영 기자가 준비했다, 사향인의 천하제일 야구템 자랑 대회!



(출처: 세븐일레븐 인스타그램 (@7elevenkorea))

더 공정하게, 더 정확하게_기술이 바꾼 경기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프로야구 1군 경기에 ABS를 도입했고, 최첨단 기술과 비디오 판독 기회가 확대되면서 예년에 비해 오심으로 인해 희비가 갈리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경기를 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만들어 준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1 AI 심판의 등장_ABS

'ABS(Automatic Ball-Strike system)'는 '자동 볼 판정 시스템'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 투수가 던진 공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자동으로 판정하는 기술이다. 투수가 던진 공의 속도, 위치, 회전, 스트라이크 존 통과 여부를 고속 카메라와 센서가 인식하고 즉시 심판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심판은 더 이상 육안으로 판정하지 않으며, 이 결과를 듣고 콜을 외친다. 기계의 판정은 정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의제기 또한 항의는 할 수 없다.

KBO는 지난 4년간 퓨처스리그(KBO의 2군 리그)에서 ABS를 시범 운영하며 선수단과 심판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점을 개선해 왔고, 드디어 2025시즌에서 정식 도입되었다. 볼·스트라이크 판정은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다. ABS가 도입되면 모든 경기에서 같은 스트라이크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판정에 일관성이 생긴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란도 줄어들고, 경기 결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심판의 역할은 사라지는 것일까? 아니다. ABS는 스트라이크와 볼의 판정만 담당할 뿐, 도루·아웃·세이프 등의 판정은 여전히 인간 심판의 몫이다. KBO는 ABS의 도입을 '심판의 부담을 덜고 정확도를 높이는 보조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기계와 사람이 공존하는 리그로 나아가는 것이다.

2 볼일까, 스트라이크일까?_체크 스윙 판독 시스템

KBO는 지난 8월 19일부터 '**체크 스윙 판독 시스템**'을 도입했다. '체크 스윙'이란, 투수가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 '볼'로 던진 공이 타자가 휘두른 방망이가 어느 지점에서 멈췄느냐에 따라 볼로 판정 날 수도, 스트라이크로 판정 날 수도 있는 규정이다. 타자가 방망이를 끝까지 휘두른다면 투수가 던진 공이 볼이든 스트라이크든 '스트라이크'로 판정 난다. 하지만, 체크 스윙 기준 내에서 방망이가 멈춘다면 '볼'로 판정 난다.

체크 스윙 판독 시스템은 1루와 3루 부근에 설치된 두 대의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배트 끝의 각도가 타자석을 기준으로 90도를 초과하면 스윙, 90도 이하면 노스윙으로 판정한다. 이때 배트의 홈플레이트 통과 여부, 손잡이 위피, 신체 회전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감독은 기존 비디오 판독과 별도로 체크 스윙 판독을 2번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가 번복될 경우 판독 기회가 유지된다.

볼·스트라이크 판정에 못지않게 체크 스윙 판정은 항상 오심의 논란이 많았다. 방망이의 회전 여부만이 아니라, 타자의 위치, 배트를 내미는 손목, 심지어는 타자의 타격 의사까지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1루나 3루 심판의 시각에 따라 변수가 많은 판정이기 때문이다.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여서, 비디오 판독만으로 쉽게 스윙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다. 체크 스윙 판독 시스템은 보다 더 정확한 판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 시절 주황색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고 롯데를 응원하던 문화는 사라졌고, 예전처럼 볼과 스트라이크 비디오 판독 결과를 기다리는 묘한 긴장감도 없어졌다. 대신 관중석에 다양한 귀여운 캐릭터들이 들어왔고, AI 심판 덕분에 경기는 더 공정해졌다. 우리는 분명 '어제의 야구'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좋아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목이 쉬도록 응원하며, 매 경기 속에서 저마다의 기억을 쌓아 간다. 마케팅과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의 야구' 속에서, 선수들의 열정과 관중석의 환호만큼은 계속해서 어제를 닮아있기를 바란다.



PEOPLE



2025 통권 60호

6

PEOPLE

사람 지기

도움과 돋움, 함께 성장하는 우리

제40대 총학생회 S-PACE를 만나다

도움과 돋움, 함께 성장하는 우리

편집국장 김민선
수습위원 양시형

"특수교육은 섬세한 손길에서 피어나는 큰 희망의 씨앗이다."

우리는 특수교육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서울교육대학교 학생이라면 대부분 1학년 때 '특수교육학 개론' 수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 체계와 제도를 배워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원 체계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특수교육의 교실은 아이들의 서로 다른 속도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그 변화가 존중받는 배움의 공간이다. 그 한가운데에서 특수교사는 세심한 관찰과 꾸준한 실천으로 아이들의 배움을 지켜가며, 이러한 실천은 한 학생을 돕는 데서 나아가 교실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 그 밑거름을 차곡차곡 쌓아 온 특수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교실의 모습을 들여다보자.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도움, 개별화 교육

특수교육은 학생의 '다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데서 출발한다. 같은 장애 유형이라도 발달 수준과 학습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화 교육은 특수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별화 교육은 무엇이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1) 개별화 교육이란?

'개별화 교육'이란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 방법·교육 내용·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출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2) 개별화 교육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



[그림 8-1] 개별화교육계획의 일반적 수립 절차

(출처: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가이드북(국립특수원))

개별화 교육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생별 개별화 교육 계획(Individual Education Plan)**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개별화 교육 계획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담아낸 문서이자 실행 계획으로, 학생의 장애 특성, 현재 능력, 교육적 요구, 선호와 관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된다. 이 계획은 교과와 비교과 활동,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행동 및 정서 지원, 전환 지원 등 학생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생활 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교육 지원 계획이다.

또한 개별화 교육 계획은 목표 설정에서 실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기록하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 과정과 변화 모습을 담아내는 개인별 포트폴리오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위의 절차도는 이러한 개별화 교육 계획이 어떤 흐름과 단계를 거쳐 수립·운영되는지를 한눈에 보여준다.

3) 현장 교사의 개별화 교육 실천은?

Q.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 손정희입니다. 초등 특수학급에서 13년을 보내고 작년에 특수학교로 자리를 옮기며, 특수교육 경력도 어느덧 15년 차가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좋아 교사가 되었지만, 특수학교에서의 하루는 늘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바쁜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1학년 귀염둥이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의미 있는 배움을 만들어가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1학년을 마무리할 시기가 되어, 조금씩 안정되고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면, 이 길을 선택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Q.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개별화 교육계획(IEP)"은 어떤 과정으로 세우고 실천하시나요?

학생의 우선적인 교육적 요구가 교과 학습에 있는 경우에는 **교과 중심 개별화 교육 계획**을, 일상생활에 있을 때는 **생활 지원 중심 개별화 교육 계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 학습과 생활 지원을 모두 필요로 할 때에는 교과 중심 개별화 교육계획과 생활 지원 중심 개별화 교육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교과 및 생활 지원 중심 개별화 교육 계획**을 선택하여 운영합니다. 특히 장애 유형이 다양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들이 많은 특수학교에서는 생활 지원 중심 개별화 교육계획을 바탕으로 교육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생활 지원 중심 개별화 교육 계획의 영역별 교육 내용은 학생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필요한 기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기술, 그리고 장애로 인해 보완·대체·강화되어야 할 기술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교과 수업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지원되어야 합니다.** 교육 방법과 평가는 교과 편제나 시수에 구애받지 않으며,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학생의 모든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중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Q. 개별화 교육을 현장에서 적용할 때 특별히 어려운 점이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 활동의 주요 근거는 **개별화 교육계획과 특수학교(급) 교육과정**입니다. 학생이 참여하는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는 특수학교(급) 교육과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교육 서비스 제공, 도전 행동 관리, 기타 학교생활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해 실행합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은 학생이 한 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할 교과 및 생활 지원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되며, 학생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이나 수업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방법, 평가 내용(예: 교과 및 생활 지원, 통학, 도전 행동,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을 폭넓게 포함합니다.

그러나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때때로 개별화 교육 계획과 교육과정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개별화 교육 계획을 학생의 교과 진도표처럼 작성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육과정과 수업 계획은 개별화 교육 계획의 한 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을 뿐, **개별화 교육 계획이 학생의 한 학기 또는 한 학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대체하는 동의어는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예비 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이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현장에 나와 아이들을 만난다면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학급에서 근무하며 느낀 점은, 통합학급 교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장애가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또래 학생들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통합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학급 교사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특수교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넓히는 돋움, 통합교육

통합교육은 한 아이의 성장을 돕는 '돋움'이 교실 전체로 확장되는 과정이다. 개별화된 지원을 받은 학생은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더 큰 배움과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이러한 통합적 교실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1)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고 비장애 또래학생들과 함께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현장 교사의 통합교육 실천은?

Q.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22년 차 특수학급 교사, 최원아입니다.

Q. 통합 학급을 운영할 때, 교사 스스로는 어떤 장애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혹 장애를 질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대부분은 '신체에 이상이 생겨 괴로운 상태'가 아니기에, 아픈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의사소통 방법이 다르고, 표현 방식을 익히는 속도가 다를 뿐입니다. 학습을 배우는 속도와 방식 또한 저마다 다릅니다. 아직 익히지 못했을 뿐이고, 아직 자신만의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지원 속에서 배우고 익혀 간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Q. 통합 학급에서 학생들이 장애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실천 전략이 효과적 이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자주 만나고, 충분히 관찰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급 활동이나 수업에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것이 이해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1인 1역을 맡고, 보편적 학습설계로 계획된 수업안에서 각자의 목표에 맞는 학습을 하게 된다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더 잘 참여할 수 있는지를 반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해와 더불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급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공격받지 않고,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존중받는 분위기라면 학생들에게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러한 존중을 받는 경험과 여유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학급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돕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잘 관찰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 '그럴 수 있지.', '괜찮아.'와 같이 실수나 부족함을 허용하는 말들을 건네는 것, '아직' 잘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며 친구를 옹호하고 응원해 주는 태도, 모두가 함께할 때 더 즐겁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인사처럼, 버릇처럼 이러한 모습을 먼저 보여준다면, 존중과 배려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몸과 마음에 스며들지 않을까요?

Q. 학생들과 함께한 시간 가운데, 특히 기억에 남거나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우정〉이라는 통합 학급 장애 이해 교육을 1년 동안 주 1회씩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역할극 수업이었어요. 담임선생님과 제가 역할을 나누어 짧은 역할극을 함께 선보였는데, 이전 수업들에서는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이던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연극을 본 뒤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 수업부터 아이들은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를 대하는 태도 또한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호의적으로 변했습니다. 담임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반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연극을 영상으로 찍어 남겨 주었는데, 지금도 그 영상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Q. 마지막으로, 예비 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이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우리 반 학생'이 되는 순간, 선생님의 마음 한편에는 1년 동안 그 아이를 위한 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편이 따뜻한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는 가끔 따끔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르다, 그저 다를 뿐이다'라고 스스로 다짐해 보아도, 생각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예쁜 구석구석을 찾아 그 자리를 조금씩 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학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마음의 자리를 내주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반 친구들도 그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모두가 마음을 내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 주는 학급이 된다면, 통합 학급 운영도 한결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특수교사나 같은 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을 키워 간다고 생각하면, 마음도 훨씬 든든해질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걸어갈 여러분의 따뜻한 교직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특수교육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돕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마주하며 도움과 돋움이 함께 자라나는 시간이다. 교실에서 아이와 눈을 맞추고, 한 걸음 기다리며, 다시 함께 나아가는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 배움의 시간이 된다. 그리고 그 곁에는 아이들의 하루를 함께 건너는 특수교사들의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들이 특수교육의 현장을 향해 걸어갈 사향인들의 마음에 오래 남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가는 길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



제40대 총학생회 S-PACE를 만나다

편집위원 김민소

'하나 된 속도로 끝없이 나아가는 우리'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교육대학교의 새로운 내일을 그리는 두 사람, 제40대 총학생회장 이문의 학우와 부총학생회장 권용주 학우를 만났다.

09월 22-26일	선거운동본부 구성
10월 02-05일	학우 대상 설문조사
10월 12-14일	학우 인터뷰
10월 20일	선거운동본부 발대식
10월 22-28일	선거 유세 진행
10월 27일	정책 공청회
10월 29-30일	본투표
10월 31일	개표 및 결과 공고





민소 기자 먼저 사향지기 독자인 서울교육대학교 학우들에게 두 분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총 이문의 학우 안녕하세요. 제40대 총학생회 S-PACE의 총학생회장, 유아특수교육과 24학번 이문의입니다.

부총 권용주 학우 안녕하세요. 제40대 총학생회 S-PACE의 부총학생회장, 체육교육과 24학번 권용주입니다.

Part 1. Face

Q. 이번 총학생회의 이름인 'S-PACE'에는 어떤 의미와 포부가 담겨 있나요?

먼저 'S'는 서울교육대학교 학우를 의미합니다. 학생회가 중심이 되는 조직이 아니라, 학우들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SPACE'는 공간을 뜻합니다. 학교가 수업을 듣고 떠나는 장소가 아니라, 학우들의 일상과 추억이 쌓이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PACE'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학우들의 의견을 빠르게 듣고 필요한 변화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되, 그 속도가 학우들의 체감과 어긋나지 않도록 발맞추어 나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를 우주의 S-PACE, 공간의 S-PACE, 속도의 S-PACE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끝없이 팽창하는 우주처럼 더 나은 학교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며, 서울교육대학교라는 공간을 학우들만의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학우들과 하나 된 속도로 함께 걷는 학생회가 되고자 합니다.

Q. 총학생회장단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궁금합니다.

총 저는 제38대 총학생회 '시너지'에서 문화기획국원으로, 제39대 총학생회 '바로'에서는 생활복지국장으로 활동하며 학우들의 학교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을 맡아 왔습니다. 특히 제39대 총학생회에서는 농민학생연대활동과 축제를 총괄하며 많은 학우들이 함께 참여하고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부총 저는 제38대 총학생회 '시너지'의 소통홍보국원, 제39대 총학생회 '바로'의 사무관리국장으로 활동하며 학우들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회의 역할은 불편을 줄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학우들의 일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데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학생회 활동을 더 단단한 변화로 이어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총학생회장단에 출마하였습니다.

Part 2. Trace

Q. 선거를 준비하며 숨 가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준비 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선거를 준비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선거운동본부원들과 한 명씩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해 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들으며, 이 선거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본부원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공약을 함께 다듬어 가는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선거운동본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내부 논의와 학우들의 시선을 동시에 고려하며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함께해 준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선거 기간 중 많은 학우를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총 선거 기간 동안 정말 많은 학우분들께서 학교 시설 및 학생회에 대한 솔직한 시선과 의견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참고 의견이 아니라, 실제 공약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공약이 학생회의 생각이 아니라 학우들의 시선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고, 저희 역시 학우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부총 공약을 준비하며 학교의 개선할 점을 직접 찾아 나섰던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많은 학우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교에 바라는 점과 학교 생활 속에서 실제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 뜻깊었습니다. 이후 공약을 정리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학우분들께서 저희가 세운 공약에 공감해 주시고 응원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순간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응원은 지금 총학생회 활동을 이어가는 데에도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Part 3. Space

Q. 모든 학과와 학번이 어우러지는 총 MT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학우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 MT 추진 공약은 학우들 간의 교류를 넓히고, 학과와 학번의 경계를 넘어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총 MT를 통해 학우들이 단순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서울교대에서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학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Q. 'SPACE 확대' 공약으로 회의실·강의실 대여 확대 및 휴게 공간 확충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고 싶으신가요?

현재 학내에는 학우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의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학과별 학생회 회의, 스터디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공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학우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 지원을 확대하고, 학습과 자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Q. 저학년을 위한 '임용고시 체험판'과 '안내서 제작' 공약이 눈에 띕니다. 기존의 지원 사업과 차별화된 점이나, 이 공약을 준비하며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은 무엇인가요?

임용고시와 관련된 지원은 학년별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1·2·3학년 학우들이 임용 준비의 전체 구조를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과 안내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4학년 학우들을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자, 임용 관련 문의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4학년 학우들의 실질적인 고민을 놓치지 않으면서, 1·2·3학년 학우들이 임용에 대해 막연함이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Q. 공약 준비 과정에서, 위 공약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제약이나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약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고민한 질문은 학우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학우 대상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공약의 이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며, 저희가 지난 2년간 쌓아 온 학생회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선에서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하고 싶은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할 수 있으며 학우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Part 4. Pace

Q. 슬로건이 '하나 된 속도로 끝없이 나아가는 우리'입니다. 앞으로 1년간 서울교육대학교 학우들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총 "학우들이 믿고 기대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우리"

'하나 된 속도로 끝없이 나아가는 우리'라는 슬로건에는, 학생회가 앞서 끌고 가는 조직이 아니라 학우들과 나란히 걸어가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담았습니다. 앞으로의 1년 동안 학우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약속한 공약들을 성실히 이행하며, 학우들이 믿고 기대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S-PACE가 서울교육대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학우들의 일상과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가는 학생회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부총 "학우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우리"

제40대 총학생회 S-PACE는 '하나 된 속도로 끝없이 나아가는 우리'라는 기조에 따라, 학우들과 하나 되어 빠른 속도로 학우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 생활과 캠퍼스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학우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변화를 신속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며, 학우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제40대 총학생회 S-PACE와 함께 나아갈 2026년을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SPECIAL

2025 통권 60호

7

SPECIAL

사향지기

우당탕탕 사향상사

기자's pick 내가 꿈꾸었던 대학 로망



우당탕탕 사향상사

수습위원 양시형

알면 알수록 다니고 싶어지는 회사!

양시형 인턴 / 20세 / 주 업무 : 기사 쓰기
"바쁘다 바빠... 오늘은 사향지기 회의 날이잖아!!"

나래이션 오늘도 어김없이 세계적인 대그룹 사향지기의 계열사 사향상사의 아침이 밝았다. 오늘은 사향상사의 신입 인턴 시형이의 사향지기 활동 브리핑이 있는 날! 어느덧 사향상사에 들어온지 9개월이 된 인턴 시형이는 잔뜩 긴장한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왔다.

양시형 : 결전의 날이다. 그럼 회의실로 가볼까?

함께 사향상사의 신입 인턴 시형이의 브리핑을 관람(구경)하도록 하자!



< Group


양시형

아, 아, 그럼, 지금부터 사향상사 통권 제 60호 사향지기 활동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향지기가 어떤 기업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저희 회사는 사향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친 기업입니다. 사향지기의 계열사 사향상사는 '사람을 향한 다채로움'이라는 모토 아래 모여 끈끈하게 성장하고 있는 초거대 우량주입니다! 저희 사향상사는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회의를 통해 교지를 발간하고, 전문성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전문성 있는 활동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상무


양시형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서울교대 미디어 센터로서 일반 동아리보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딱딱하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주제를 선별하고, 기사를 작성하며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까지 모두 세계 제일의 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동력이 됩니다!

나래이션 임원진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흡족한 표정을 보아하니 인턴이 마음에 든 모양새이다.


양시형

여기서 주목할 점은 카테고리가 7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Campus, Education, Culture, Talk Talk, Info, People, Special

이렇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떤 소재를 가져와도 카테고리에 맞출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제약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그럼 카테고리 안에서 아무 주제로 써도 된다는 건가?


차장


양시형

네! 그렇습니다. 각자 생각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다른 부원들이 가져온 소재를 보고 흥미를 느껴 함께 기사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템을 선정했다고 바로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양시형

먼저 기사 기획서를 작성합니다. 모든 글에는 개요가 필요하니까요. 기사의 방향, 핵심 내용, 전달 방식을 사전에 정리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본격적인 작성은 2~3개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피드백이 부담스럽지 않나?

상무

양시형

그게 바로 사향지기의 강점입니다! 피드백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칭찬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고, 생각하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제 글이 실시간으로 성장하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피드백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네이버 카페의 댓글 기능을 활용하거나, 대면으로 만나서 서로 회의를 하며 피드백을 주고 받습니다. 다른 기자들의 기사에 피드백을 남기면서 배우기도 하고,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는 양방향 학습 구조가 형성됩니다!

디자인을 직접 한다는데, 그럼 그림을 잘 그려야 하나?

차장

양시형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적 센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사의 목적에 맞는 일러스트를 중심으로 레이아웃을 구성하면 되고, 디자이너와 협업해서 맞춤 기사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산출물은 교지 형태로 발간되어 학교 곳곳에 배치됩니다. 사향 융합 체육관, 다솜채 등 여러 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작성하고 수정한 내 글이 온전히 실린 책이 학교 곳곳에 있다는 건... 정말 뿌듯한 경험입니다! 또한 다같이 회의를 하면서 맛있는 저녁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수고한 직원들과 어디 물 좋은 곳으로 다녀오지 그랬나.

상무

양시형

다음으로는 완성된 교지를 완성하고 다녀온 MT을 소개하겠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가평으로 다녀왔습니다! 교지 제작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한 팀원들과 함께 펜션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펜션 수영장 풀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물총을 쏘면서 선후배 가리지 않고 서로 물 세례를 받았고, 공으로 배구도 했습니다. 물놀이가 끝나고는 다 같이 펜션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구워주신 고기가 일품이었습니다!

상무

허허, 역시 일만 하면 안 되지. 놀 때도 제대로 놀아야 해!

양시형

맞습니다! MT를 통해 평소 회의 때는 볼 수 없었던 서로의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팀워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교지편집위원회 '사향지기'는 대학 내의 의사소통을 매개하며 밝고 건전한 대학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기구입니다. 학생으로 구성된 교지편집위원들이 교지 '사향지기'의 콘텐츠 생산 및 디자인 편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나래이션 브리핑을 마친 인턴 시형이. 떨리는 마음으로 임원진들의 반응을 살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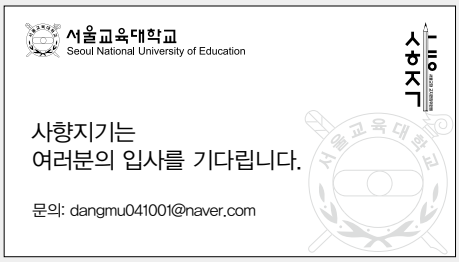
상무

음... 잘 들었네. 역시 사향지기는 좋은 동아리야.

차장

나도 대학생 때 이런 동아리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래이션 이렇게 오늘도 사향상사의 1년이 무사히 지나갔다. 내일은 또 어떤 브리핑이 펼쳐질까? 다음 호를 기대해주세요!



기자's pick
내가 꿈꾸었던 대학 로망

편집국장 김민선

교복을 입고 대학 생활을 상상하던 시절, 우리는 저마다 마음속에 작은 설렘을 품곤 했습니다. 로망이란 꼭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기대와 기쁨과도 같습니다. 그런 작은 바람들은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주고, 때로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되어줍니다.

이번 '기자 픽'에서는 사향지기 부원들이 품어온 대학 생활의 로망이 현실로 피어난 특별한 순간들을 소개합니다. 부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로망도 기분 좋은 설렘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모교 방문단

편집국장 김민선

고등학생 시절, 교복을 입고 교실에 앉아 있으면 선배들이 사복 차림으로 학교를 찾아와 자신의 대학 생활과 입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유난히 멋져 보여, 자연스럽게 '나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언젠가는 저 자리에 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3학년이 된 저는 모교 방문단의 일원으로 모교를 다시 찾았고, 같은 꿈을 꾸는 고등학생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사향지기 교지를 건네며 대학 생활과 입시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오래 마음에 품어왔던 장면 속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짧은 만남 속에서 후배들의 눈빛과 반응을 마주하자, 교복을 입고 선배들의 말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던 고등학생 시절의 저와 모교 방문단으로 이 자리에 선 지금의 제가 자연스럽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교 방문단'은, 오래 마음속에 품어왔던 저의 대학 생활 로망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다채로운 동아리 활동

편집위원 김도아

재수 시절, 대학에 가면 꼭 해보고 싶다는 '대학 버킷리스트'를 적어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또래들과 밤을 지새울 수 있다는 상상이 유난히 낭만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졸업을 앞둔 지금, 동아리가 여전히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사향지기를 비롯해 여러 동아리에서 좋은 추억을 쌓았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거나, 특정한 능력을 기르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여곡절이 많았던 순간들일수록 추억의 나이테가 되어 애정은 더 두텁게 쌓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고생을 안주 삼아 기울였던 잔에서는, 어쩐지 청춘의 냄새가 나는 것만 같습니다. 아직 동아리 경험이 없다면, 대학생 때만 누릴 수 있는 동아리라는 특별한 시간을 한 번쯤 마음껏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편집위원 김민아

대학 진학 후 이루고 싶었던 로망은 '카페 아르바이트' 였습니다. 어른이 되는 첫걸음이란, 진정한 커피의 맛을 음미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페 아르바이트생으로서 마주한 현실은 커피의 맛을 알아가기는커녕, 같이 일하는 분들과 호흡을 맞춰 음료를 제조하고 매장을 청소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ㅎㅎ 그럼에도 교대 입학 후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약 1년 6개월간 수많은 사람을 응대했고, 그 과정에서 따뜻함과 당황스러움 등 다양한 감정을 느껴볼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토대로 '관계'에 대해 성찰하며 위기 대처 능력도 기를 수 있었기에,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즉흥 여행

편집위원 배민영

저의 대학 로망 중 하나는 '즉흥적으로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시간표도 내 마음이고, 오늘의 선택도 내 몫인 대학 생활! 어느 날 사랑하는 친구와 "갈래?" "가면 가." "그래, 가자!"라는 말에 이끌려 비행기표를 갑작스레 예매하고 후쿠이로 훌쩍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상에 없던 여행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달콤한 시간이었답니다. 5월의 선선한 날씨에, 다른 동기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니 괜히 더 설레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도 대학생의 몫이지만,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허락된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즉흥 여행에 맛을 들인 저는, 정신을 차려보니 호주행 비행기에 타 있기도 했습니다. 즉흥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은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순간'을 그대로 붙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설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행들은 제게 망설임보다 용기를, 걱정보다 웃음을 남겨주었습니다. 때로는 많은 고민보다, 마음이 이끄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선택이 더 오래 남는 기억이 되기도 하니까요.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만나지 못했을 새로운 행복을 분명히 만났으니까요! ♥

과잠 사진 찍기

편집위원 봉지원

저의 새내기 시절 대학 로망은 '과잠 사진 찍기'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 준비를 하며 각종 SNS에서 여러 과잠을 보고 로망을 키웠던 것 같아요. ㅎㅎ 저희 과의 과잠은 제가 원하던 스타일이어서 로망을 100% 충족할 수 있었답니다~~! 다 같이 학교에서 찍은 과잠 사진 이외에도 동기들과 놀러 가서 찍은 사진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가끔 그 사진들을 꺼내보면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 다시 새내기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향인 여러분도 과잠을 입고 여러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페에서 여유롭게 수다 떨기

편집위원 김민소

수험 기간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제 대학 로망은 '카페에서 여유롭게 수다 떨기'였습니다. 물론 수험생에게도 카페에 들를 만한 자투리 시간이 존재하지요. 그러나 십 대의 제 자투리 시간은 교육대학교 진학이라는 목표 아래 공부로 촘촘히 채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로망은 새내기 시절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질문이기도 했는데요. 2학년 교육 실습 기간에도 동료 기자님들과 카페에 모여 시간을 보내던 중 한때 꿈꾸었던 대학 로망이 떠오르기도 했답니다. 이제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지 않는 제게 귀여운 추억으로 남아 있는 로망입니다.

전교전

편집위원 김인영

제가 꿈꾸던 대학 로망은 전국 교육대학교 체육대회인 '전교전'이었습니다. 새내기로 입학하기 전부터 육상 전교전에 출전하는 것이 목표였고, 실제로 육상부에 들어가 4월 첫 전교전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육상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승을 차지하며 2년 연속 종합 우승의 성과를 거두었고, 저는 개인 종목에서 메달을 따며 더욱 뜻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 배구부와 티볼부 전교전에도 출전하며, 지난 2년간 총 다섯 번의 전교전을 치르면서 제가 꿈꾸던 대학 로망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교전 역시 기대됩니다.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의 대화

편집위원 손지후

서울교육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저는 이 학교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같은 꿈을 가진 학우들이 모여 있다는 점이 가장 기대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직업을 꿈꿔왔지만, 주변에 같은 꿈을 지닌 친구들이 많지 않아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웠던 터라 교대 입학은 제게 큰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새내기 시절부터 교생 실습을 다녀오기까지 저는 같은 미래를 그리는 사람들과 서로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동기들, 그리고 특히 사향지기 부원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들은 늘 의미 있고 즐겁게 기억됩니다. :)

'대학 버킷리스트' 만들기

편집위원 이서영

저의 대학 로망은 바로 '대학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는 버킷리스트처럼, 작은 노트에 대학생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적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교내 알바부터 동기들과 운동장에서 노는, 이른바 '동그라미' 해보기, 수강 신청을 함께하는 일까지 다양한 계획을 적고 실제로 하나씩 이뤄왔습니다. 교내 대회 참가처럼 아직 실현하지 못한 항목도 남아 있지만, 이 대학 버킷리스트는 제 대학 생활을 나만의 색으로 천천히 물들여 주고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나만의 행복을 위한 대학 버킷리스트 만들기, 여러분의 '대학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염색

편집위원 홍혜정

저의 대학 생활 로망은 어쩌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염색'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학창 시절 한 번쯤 가볍게 해봤을 일이지만, 저에게 염색은 쉽게 시도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방학 동안 염색을 했다가 다시 검은색으로 덮고 학교에 가야 하는 과정이 늘 번거롭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염색은 자연스럽게 '대학에 가면 꼭 해보고 싶은 로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쁘게 1학년을 보내고 머리도 어느 정도 자란 뒤, 저는 용기를 내어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첫 염색인 만큼 너무 튀지 않게 '매트 브라운'을 선택했고, 약 두 시간이 지난 후 태어나 처음 염색한 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품어왔던 대학 생활의 로망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지만, 기대와 달리 예전의 흑발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며 묘한 실망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결국 머리가 자라 뿌리 염색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 저는 다시 머리를 검은색으로 덮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염색 도전은 인생의 마지막 염색으로 마무리되었고, 두 번의 염색 뒤에 제게 남은 것은 더 이상 찰랑거리지 않는 검은 머리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미용실 의자에 앉아 비싼 모발 케어를 받으며, 저만의 대학 생활 로망을 조용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수습위원 김지윤

저의 대학 로망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대학교 자체에 대한 환상은 크지 않았던 터라, 제가 유일하게 기대했던 공간 역시 도서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보다 훨씬 큰 규모에 압도되었고, 다양한 장서와 지도서를 둘러보는 시간 자체가 좋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공강 시간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하고, 2층 소파에서 쉬며 한적한 도서관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꼭 읽고 싶었지만 구하기 힘들었던 원서를 도서관에서 발견하기도 했고, 서가 정리 근로를 하며 막연히 꿈꿔왔던 낭만을 어느 정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대학 도서관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감상을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한강에서의 치킨

수습위원 박예은

저는 지방에서 올라오며 '한강'에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바쁜 도심 한가운데서 한강의 여유를 즐기는 것이 제 로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개강한 지 5일 만에 고향에서 올라온 친구와 함께 한강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지방 사람 둘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서울의 3월은 생각보다 훨씬 춥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음료와 함께 치킨과 피자, 생라면을 먹고 밤새워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은 갓 상경한 시골 쥐들에게 낭만으로 가득 찬 밤이었습니다. ㅎㅎ

동기들과 함께하는 여행

수습위원 박지민

제 대학 생활의 가장 큰 로망은 동기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에 대학에 입학해,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남들에게는 평범할 수 있는 대학 생활의 여러 순간이 저에게는 늘 간절하게 느껴졌고, 그중에서도 동기들과의 여행은 저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2학기 종강 이후, 마침내 동기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낯선 풍경 속에서 함께 웃고 걷고 이야기했던 순간들은 제게 무척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일정이 특별하지 않더라도 같은 시간을 함께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 여행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대학 생활을 비로소 실감하게 해 준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

수습위원 양시형

제가 꿈꿔왔던 대학 로망은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에만 머무르기보다, 평소 관심 있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여러 공모전에도 도전하며 제 가능성을 넓혀가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 가운데 특히 교내 대회에 참가해 유의미한 결과를 남기는 것은, 제가 그려왔던 대학 생활의 중요한 로망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로망을 바탕으로, 캡스톤 디자인 대회에 도전하게 되었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입상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돌아보면 유의미한 1년을 보낸 것 같아 뿌듯합니다!



편집후기


편집국장 김민선

지난 3년 동안 세 번의 직함을 거치며, 제 시선과 배움의 폭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수습위원 시절에는 문장 하나하나를 쉽게 넘기지 않는 집요함을 배웠고, 편집위원으로서는 그 문장들을 모아 하나의 흐름으로 만드는 법을 익혔습니다. 편집국장으로서는 수많은 글이 한 권의 교지로 엮이는 과정을 마무리하며, 책임의 무게를 배운 것 같습니다.

한 기사를 완성하기 위해 불꽃처럼 몰입했던 순간도, 눈꽃처럼 차분히 전체를 다듬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온도의 순간들이 쌓여, 사향지기에서의 기억은 평생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준 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제는 독자의 자리에서 사향지기가 만들어갈 새로운 울림과 이야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편집위원 김도아

새내기가 되어 사향지기 지원서를 쓰고, 헌내기가 되어 사향지기 새내기 면접에 참여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새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향지기에서 얻은 따뜻한 추억만큼, 더 많은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남는 것 같습니다. 사향지기에서 만난 매력 있는 선배들과 후배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그동안 함께하며 너무나도 큰 힘이 되어준 우리 23학번 사향지기 민선, 지원, 민아언니, 민영이 모두 힘내서 내년 이맘때 사향지기에 웃는 얼굴로 돌아오길 바라며, 2025 모두들 굿바이~!


편집위원 김민아

마지막 교지를 편찬하며 "한 권의 책은 한 시절의 마음을 닮는다"라는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1학년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사향지기를 읽던 설렘과, 훌륭한 기자님들의 따뜻함 속에서 봄을 느꼈습니다. 더 나은 기사를 위해 도전을 서슴지 않던 2학년의 계절은 뜨거운 여름이었겠지요. 3학년이 되어서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도 전에 부국장으로서의 책임감에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었지만, 낙엽이 물들 듯 한층 성숙해질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의 큰 계절을 지나 '사향지기 졸업'이라는 겨울 앞에 선 지금, 저 멀리서 불어오는 찬 바람이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기자님들과 제 사람들 덕분에, 더 찬란한 봄을 맞이하기 위한 용기를 얻었으니까요.

학창 시절의 가장 행복했던 경험을 사향지기에 담아낼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향지기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추억하는 한 권으로 오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위원 배민영

마지막 교지를 마무리하며, 여러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겹쳐 떠오릅니다. 원고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이야기들, 한 문장을 두고 오래 고민하던 시간들, 책이 되어 손에 쥐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사향지기에서 보낸 제 청춘의 기록이었습니다. 사향지기는 다양한 마음을 만나며, 바쁘고 서툴렀던 시절의 고민과 성장을 담아둘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글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들여다보며, 제 자신을 조금씩 이해해 가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게 사향지기는 책갈피를 꽂아 두고 자주 되돌아보고 싶은 그런 페이지입니다. 제 대학 생활이라는 큰 책 속에서 가장 소중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이 교지가 누군가에게는 잠시 머물렀다 가는 시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각자의 시간 속에 조용히 꽂히는 한 장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사향지기에 제 청춘의 한 장을 담을 수 있어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 교지를 전합니다.

이 페이지 속에서 가장 짙게 밑줄 쳐진 문장들은 함께해 준 분들의 이름입니다. 3년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 준 29기에게 깊은 고마움과 애정을 전하며, 늘 곁에서 길이 되어 주셨던 27기·28기 기자님들, 그리고 앞으로의 사향지기를 이어갈 든든한 30기·31기 기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편집위원 봉지원

사향지기에 들어와 처음 기사를 작성하고, 제가 작성한 기사가 출간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덧 마지막 교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교지는 첫 글자를 쓸 때부터 애틋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향지기와 함께하며 쌓은 많은 추억들이 저를, 그리고 사향지기의 구성원들을 지탱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대학 생활 버킷리스트였던 교지편집위원회에서의 활동이 제 개인의 소망을 이룬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향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교지도 즐겁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위원 김민소

여러분의 기억 속 첫 잡지는 무엇이었나요? 제 기억 속 첫 잡지는 동아사이언스의 '어린이 과학동아'입니다. 기다리던 정기 배송일이 오면 우편함에서 잡지를 꺼내 활자 하나하나 꾹꾹 눌러 읽고는 했어요. 기자님들이 각자의 일상을 공유해 주는 '편집 후기'를 읽을 때면 '나도 언젠가 기자가 되어 편집 후기를 작성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새 사향지기에서의 네 번째 편집 후기입니다. 어김없이 2학년 2학기도 소중한 경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조교로 활동했던 과학영재교육원, 동생 대입을 마치고 다녀온 스페인,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인턴십에서 보낸 시간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또렷이 빛나는 것은 단연 30기 기자님들과 함께한 참가 실습이었습니다. 첫 수업을 준비하고 실연하며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사향지기의 가치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오년에도 함께합시다. ♡


편집위원 김인영

사향지기 편집 후기를 쓸 때면 한 학기가 끝났다는 것을 실감하곤 합니다. 특히 이번 60호 교지는 제 대학교 2학년 생활을 떠나보내는 호이기도 해서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끝이라고 쓰면서도, 사실은 다음 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함께 적힙니다.

본격적인 교육 실습, 과 학생회를 비롯한 3개의 집부 활동, 8개의 배구 대회, 새로 가입한 영어 회화 동아리 등 여전히 바쁜 한 해였어요. 이 와중에도 사랑 가득한 사향지기와 함께한 시간들 덕분에 2025년의 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저희를 수습 위원일 때부터 잘 이끌어 주신 29기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선 국장님, 도아 기자님, 민아 기자님, 민영 기자님, 그리고 지원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

2026년 한 해도 늘 건강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편집위원 손지후

정말 빠르게 한 학기가 지나갔고, 정말 빠르게 60호 교지가 발간되었습니다. 매우 바빴던 이번 학기는 늘 의미 있는 경험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준비한 축제에서 많은 학우분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던 순간, 사향지기와 함께한 참가 실습에서 실패와 성장을 오가며 확신과 고민을 동시에 느꼈던 순간들을 지나 2025년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교대에서의 3학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경험 속에서 학교에 점점 익숙해지고, 서울교대가 편안한 공간으로 느껴지며 동기들과 더욱 가까워진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번 학기는 저에게 큰 의미로 남았습니다. 사향인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하나의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특히, 사향인 여러분이 이번 60호 사향지기를 읽는 시간을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느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기사를 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위원 이서영

사향지기 기자님들의 기사에 대한 열정, 삶에 대한 사랑을 통해 많이 배운 한 해였습니다. 수습위원을 지나 이제 어엿한 편집위원으로서 한 해를 보냈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지를 통해 매년 나의 문체를 담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나의 작은 단어에서 많은 뜻을 담은 문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함께한다는 것은 사향지기이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사향지기의 소중함과 사람의 따뜻함을 많이 느낍니다. 기사 작성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항상 옆에서 믿고 응원해 주는 내 사람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향지기 교지와 함께해주시는 분들 모두 2026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편집위원 홍혜정

벌써 사향지기와 함께한 2년이 지나갔습니다. 2년동안 글쓰기 실력이 좀 늘었냐고 묻는다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를 쓰고싶은데 욕심만 늘어갈 뿐, 아직도 제 기사는 좀 초라해 보입니다. 이번 60호는 제가 서울교대를 일년 넘게 다니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사를 담아보았습니다. 나의 눈으로 바라본 사실을 모두의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이 기자라는 사실을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다음 61호 국장은 제가 될텐데, 잘 할 수 있을지 어깨가 아주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실망시키지 않고 묵묵하게 독자들과 소통하는 그런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써주신 민선 국장님, 항상 동경의 대상이었던 민아 기자님, 좋은 기사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동료 기자님들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사향지기 사랑합니다♥



수습위원 박예은

입학 전부터 관심과 설렘을 가지고 보던 서울교대의 교지를 직접 제 손으로 만들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정말 특별하고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쓴 기사가 교지의 한 페이지가 되어 세상에 나온다니 감격스럽네요. 처음이라 모든 과정에서 많이 서툴렀는데, 잘 이끌어 주신 동료 기자님들과 선배 기자님들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지를 봐주시는 사향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수습위원 박지민

쩜오기로 들어온 뒤, 저의 기사가 처음으로 실린 호라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한 편의 글이 완성되기까지 고민하고 사유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제 생각이 조금씩 정리되고 확장되어 가는 경험은 '사향지기'의 일원이었기에 가능했다고 느낍니다. 저의 관심사를 글에 담고, 이를 타인과 나눌 수 있다는 점 또한 이 활동이 지닌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마주하는 감정과 생각들을 놓치지 않고, 저만의 시선으로 다채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싶습니다. 이 교지를 펼쳐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이 잠시나마 따뜻한 하루를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수습위원 김지윤

설레는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은 서울교대와 어느덧 사계절을 모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순간의 한 조각이었던 사향지기의 편집위원까지 앞두니 더욱 성장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유독 바빴던 이번 1학년 2학기에 사향지기는 오히려 제게 든든한 그늘이자 다정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항상 수고해 주시는 국장님과 다른 기자님들께, 그리고 새롭게 함께한 수습위원 동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많은 노력과 애정이 담긴 이 교지가 여러분께도 의미 있게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사향지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수습위원 양시형

대학교에 올라오며 두 번째 교지를 완성했습니다. 아직 교지를 만드는 작업이 서툴지만, 한 호를 끝까지 만들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합니다. 동시에 다음에는 더 단단한 글과 편집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첫 교지를 만들며 느껴졌던 부족한 마음을 동력 삼아 내년에도 좋은 교지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준 사향지기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많이 감사하고, 다음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나아가고 싶습니다. 사향지기 화이팅!

사향지기
2025년 60호
발 행 인 장신호
편집주간 이지혜
편집국장 김민선
편집위원 김도아
김민아
배민영
봉지원
김민소
김인영
손지후
이서영
홍혜정
수습위원 김지윤
박예은
박지민
양시형
발 행 처 서울교육대학교 미디어센터 교지편집위원회
발 행 일 2026년 2월 24일
디 자 인 (주)서울멀티넷



서울교육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교 지 편 집 위 원 회